

3021

349.11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 政策研究計劃에 의한 特殊課題研究 結果임.
- II. 이 책자의 내용은 刊行處의 見解를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와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1980年代 國際關係와 韓國의 對外戰略

Handwritten mark



3021 2021
 " 2011
 한국대의정간
 한국대의정간
 분안 3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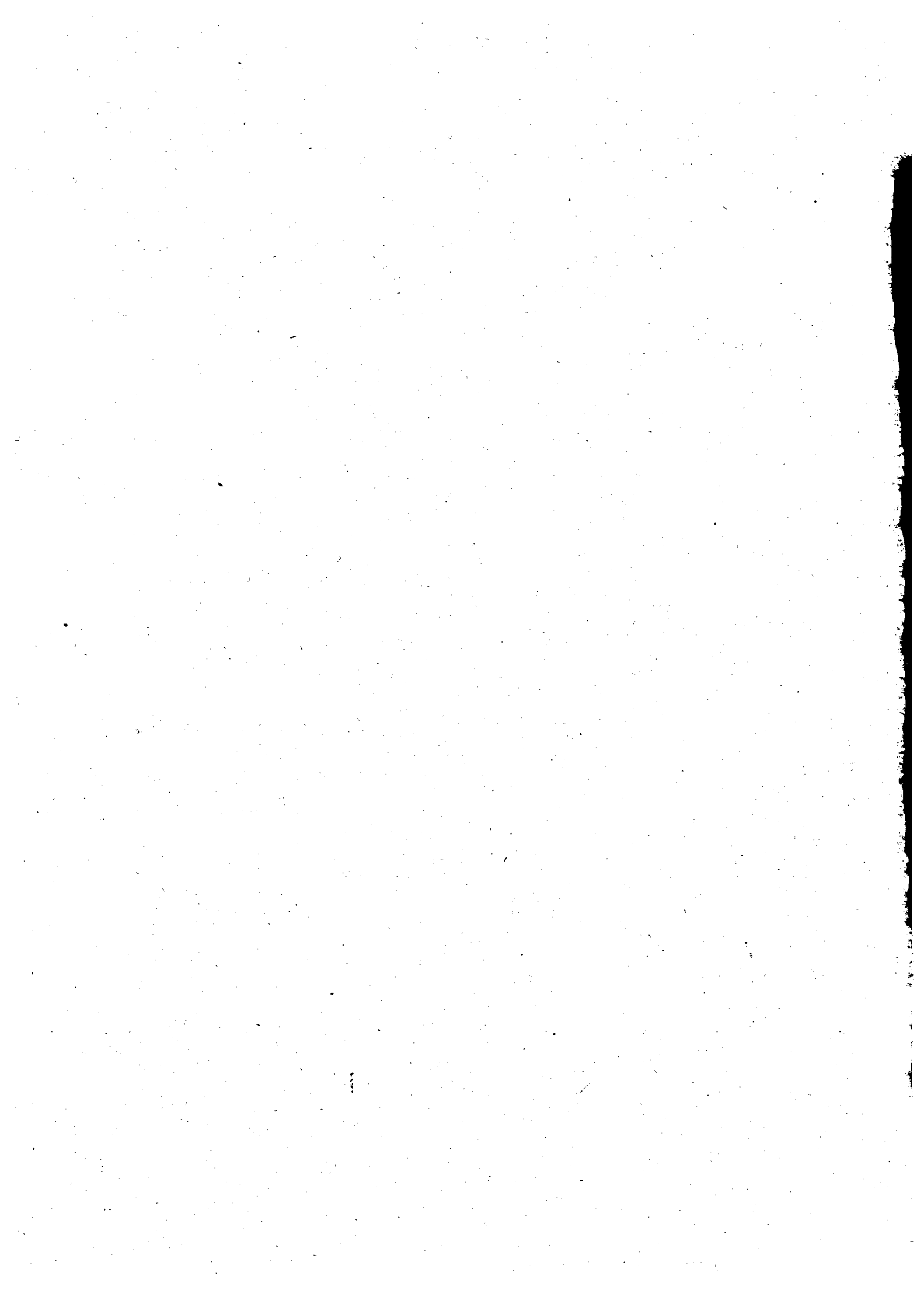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李 昊 宰 (高麗大教授, 政治學博士)

刊行責任 申 德 洙 (教育弘報室 補 佐 官)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

目 次

要 約	3
I. 序 言	11
II. 1980年代 新國際秩序의 問題点	17
1. 美·蘇關係와 데탕트의 将来	19
2. 資源問題와 世界政治	40
III. 新國際秩序와 共產圈의 将来	73
1. 中·蘇紛争의 将来	75
2. 中共의 外交政策變化	112
3. 東欧圈의 經濟危機	157
IV. 世界經濟問題와 國際政治	177
1. 第三世界와 新國際政治秩序	177
2. 日本의 外交政策과 資源問題	182
3. 國際政治經濟와 韓国	197
V. 1980年代 國際秩序와 分断国問題	209
1. 西独과 東独의 關係	211
2. 韓国과 北韓의 關係	224
VI. 結論：1980年代의 韓国の 对外戰略	237



要 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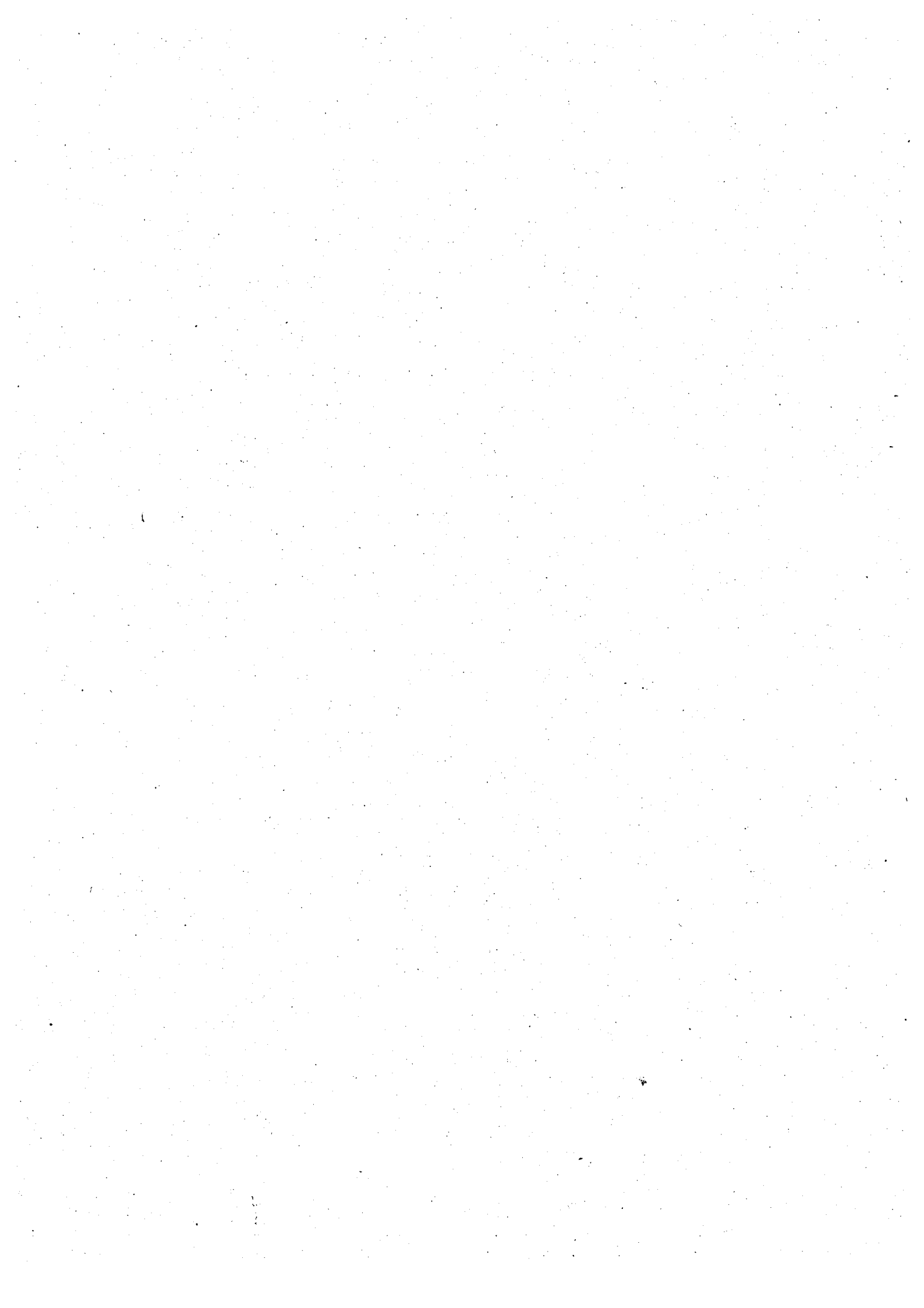
1980年代의 國際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美蘇關係와 德탕트의 將來가 不透明하다는 것과 資源問題가 強大國의 政治的·軍事的 對立을 더욱 不安定하게 하는 要因으로 登場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1970年代에 支配的이었던 德탕트가 蘇聯의 급격한 軍事力 增強과 膨脹主義的인 政策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持續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레이건行政府가 들어서면서 美國의 蘇聯에 對한 強硬政策이 強化되면서, 마침내 膠着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美國과 蘇聯의 德탕트에 對한 환멸은 根本적으로 이 둘의 德탕트에 對한 期待와 解釋이 相反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世界秩序에 對한 새로운 理解에 到達하기 前에는 美蘇關係가 根本적으로 對立과 葛藤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즉 美國은 蘇聯과의 德탕트의 댓가로 第三世界에서의 政治的 安定과 現狀維持를 원했던 反面에, 蘇聯은 이와같은 連繫關係를 부정할 뿐 아니라, 德탕트를 이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와 中東地域에서 蘇聯의 영향력을 確大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世界政治構造의 安定에 必須的인 超強大國間의 妥協을 어렵게 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의 侵攻과 같은 行動은 美國으로 하여금 軍備增強과 蘇聯과의 對決政策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蘇間의 對決은 과거와 같이 邊방지역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美國과 蘇聯의 영향권의 중추지역인 유럽이나 中東地

開되었고 美·中·日의 關係改善이 韓国の 平和에 寄与하는 側面도 있으나 이와같은 極東地域에서의 勢力構造의 變化는 蘇聯과 北韓을 모두 자극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役割을 強調하는 美國의 政策이 南韓의 國家利益과 반드시 附合하지 않는 事實도 銘心해야 할 것이다.

1980年代에는 이와같은 不安定의 要素가 누적되어 있으며, 韓國과 北韓에 대한 強大國의 理解關係가 流動的이고 制限的이 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더욱더 創意的인 對外戰略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I. 序 言



I. 序 言

1980年代의 國際政治는 벌써 일찌기 豫測하지 못했던, 심각하고 重大한 變化를 直面하고 있다. 美·蘇간의 데탕트는 蘇聯의 膨脹主義的 外交政策과 이에 対応하는 美国의 새로운 軍備強化政策으로 인해 瓦解의 危機에 빠져있으며, 두 나라사이의 勢力角逐은 冷戰時代의 긴박한 양상을 強度있게 재연할 可能性마저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石油資源의 重要性이 부각됨에 따라 第三世界의 比重이 크게 加重되었고, 여기에 일키고 설킨 強大國의 利害關係로 인해 世界의 도처에 地域紛争의 可能性이 더욱 增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80年代의 國際政治는 그만큼 不安定한 추세를 향해 進行되고 있으며 學問的 分析과 展望을 絶실히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을 고려하여 韓國國際政治學會는 1981年 11月 5日~7日, 3日間 서울에서 "1980年代의 國際政治 理論과 政策"이란 主題를 가지고 國際學術大會를 開催하였다. 國內外的 近 80여명의 學者들이 發表討論에 참가한 이 國際會議는

① 1980年代 新國際秩序의 問題點, ② 新國際秩序와 共產圈의 將來, ③ 世界經濟問題와 國際政治, ④ 1980年代의 國際秩序와 分斷國의 問題에 대한 体系的인 分析과 理解를 도모함으로써 韓國의 對外戰略과 統一政策의 方向設定에 寄與했다고 하겠다. 特히 強大國간의 對立과 葛藤要因, 資源問題의 부각과 世界經濟의 問題點,

共産圏의 변모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定性에 대한 討論은 1980年代의 韓國外交政策樹立에 參考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韓國國際政治學會는 統一院의 支援을 얻어 1981年度 國際學術大會에서 發表된 外國碩學들의 主要論文을 정리하여 이와같은 論文集을 마련하였다. 이번 國際學術大會에는 美國, 西獨, 오스트리아, 브라질, 日本, 홍콩, 대만에서 모두 10名の 著名한 學者들이 참가하여 各 分野에서 主題論文을 發表하였다. 이들은 모두 1981年初에 國際政治學會와 接觸하여 論題를 選定하였고 約 1年間の 研究結果를 11月の 國際學術大會에서 發表하였다. 이들의 研究活動과 國際學術大會의 開催 및 이와같은 論文集을 마련하는 데 支援을 아끼지 않은 여러機關, 特히 統一院에 對하여 감사드리며, 이 論文集이 1980年代의 韓國의 國際環境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이번 國際學術大會에 참가한 外國學者들의 名冊을 참고로 添附한다. 여기에 수록된 論文은 이들 外國學者들의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主題發表한 外國 學者들의 名冊

Candido Mende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Conjunto University, Brazil.
Harry Hardi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Stanford
University, U.S.A.

Gottfried Karl Kindermann, Director, Seminar for International Politics, University of Munich, West Germany.

Robert Pfaltzgraff, Jr.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Tufts University, U.S.A.

Bruce M. Russet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U.S.A.

Bryan Weng, Director, International Asian Studies Progra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Yoshiyuki Hagiwara,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y, Japan.

David S. Chou,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Republic of China.

Akira Nakamura, President of Hosei University, Japan.



Ⅱ. 1980年代 新國際秩序의 問題點

1. 美蘇關係와 데탕트의 將來

1980年代初의 觀点에서 보면, 美蘇關係에는 지난 1940年代以後 每時代마다 一貫되어왔던 側面이 있는가 하면 各 時代마다 獨特한 側面도 있다. 2次大戰동안 形成되었던 同盟關係는 비교적 짧은 期間中에 緊張關係로 변모되었다. 1948 ~ 49年の 베르린봉쇄, 1949年の NATO形成, 그리고 1950年の 韓國戰爭勃發로 美蘇의 緊張關係는 심각한 局面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1950代년에는 蘇聯의 影響力이 中東으로 擴張되는 時期였으며, 歴史的으로 러시아勢力이 미약했거나, 배제되었던 유라시아 이외의 地域에로까지 蘇聯의 影響力이 擴張되기 시작한 時期였다. 1960年代는 美国과 蘇聯이 쿠바 미사일危機를 通하여 核戰爭에까지 갈 뻔했던 時期였다. 이 때는 美国의 경우 戰略核武器의 優勢와 카리브地域에서 명백한 在來式 武力의 잇점을 지니고 있었다.

1960年代中盤에 蘇聯은 越盟에게 대대적인 軍備供給을 시작하였다. 美国의 베트남介入은 심화되었지만 그래도 美国은 蘇聯과의 全般的인 關係와 東南아시아에서 蘇聯과의 상이한 利害關係를 分離하려고 하였다.

1970年代에 美国은 蘇聯과의 關係를 데탕트란 共同概念을 바탕으로 改善하려고 努力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時期였다. 이 時期에 蘇聯은 美国과의 戰略的 均衡을 成就하였는 바, 이것은 1972年

의 SALT I에 반영되었다. 그後 蘇聯의 武力增進은 197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軍事力重要指標에 있어서 蘇聯의 優位를 보여주게 되었다.

1) 連続과 变化

이와같이 每時期에 一貫되는 要素가 있는 바, 그것은 우선 점차로 世界的인 규모로 擴大되는 蘇聯의 外交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軍事力の 끊임없는 확장이란 점에 있다. 더구나, 每時期에 共通的인 點은 蘇聯의 이웃나라를 支配하려는 傾向이 보다 明白하게 들어났다는 것이다. 1940年代 後半에 東歐에서 그랬고 1950年代에는 東歐, 폴란드, 헝가리,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1979년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蘇聯의 支配性은 明白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數十年동안 蘇聯은 또한 "平和攻勢"를 展開하였다. 1953年 스탈린의 死亡以後, 쿠바미사일危機直後, 그리고 1970年代全般과 1980年代初半에는 德탕트의 形式을 빌어서 비록 美·蘇間에는 緊張이 高調되었지만 西歐유럽에 대해서 選別的으로 宥和政策을 追求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이와같이 1981年을 起点으로 해서 앞으로의 美蘇關係의 展望은 評價하는데 있어 過去을 돌이켜보면 示唆하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2次大戰以後 各 時期의 特徵이 그대로 再現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蘇聯의 外交政策은 繼續해서 傳統的 要素, 即 蘇聯의 地政学的인 環境이라든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의 軍事的,

政治的 影響力을 擴張하려는 歴史的 傾向等에 依하여 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未來는 過去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蘇聯과 美國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어떤 見解差異가 드러나게 될는지, 그리고 그것이 美·蘇의 起強大國間의 關係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

最近 蘇聯의 軍事力 增強은 蘇聯으로 하여금, 美國이 國防力을 強化하여 美蘇間의 軍事的 間隔이 좁혀지기 전에 어떤 政治的인 所得을 얻으려고 하거나 않을 것인가? 이것이 美國의 國防政策과 美蘇關係專門家들이 말하는 소위 "脆弱性的 창구" (Window of Valunerability) 라는 理論이다.

그외에 美蘇關係에서 分명한 것은 蘇聯의 지도층이 이번 世紀內에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브레즈네프時代가 終末에 가까와지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브레즈네프時代는 蘇聯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유래가 없는 成功으로 점철되는 時代였다. 美國과의 戰略的 均衡을 成就하였고 그것을 公式化하여 美國과 더불어 超強大國의 地位를 獲得하였으며, 아프리카, 페르시아인 걸프地域, 中東, 東南아시아, 그리고 中央아메리카에까지 蘇聯의 影響力을 擴張시키는 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蘇聯은 美國과 西歐유럽의 美國同盟國間의 緊張을 惡化시키는 데 成功했던 것이다. 1964年 후르시초프가 逐出되고 브레즈네프가 執權했을 때 蘇聯은 쿠바미사일 危機에서 美國에 屈服하여, 쿠바에서 미사일을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回顧해 보면 브레즈네프時代의 成功은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 1980年代初에 美国은 核武装과 在來式軍事力과 같은 戰略的 軍事的 힘에 있어서 뒤떨어진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國際的인 危機를 관장할 能力의 減退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브레즈네프나 혹은 그의 후계자들은 過去와 같은 기회를 가지려면 앞으로는 훨씬 많은 犧牲과 危險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蘇聯이 過去와 같은 外交政策의 모멘텀을 維持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美国과 同盟國들은 모두 危險에 當面케 될 것이라는 것이다. 即 蘇聯이 美国의 軍事力이 漸進的으로 再強化됨에 따라 未來의 展望이 漸次로 不利하리라 豫想하여, 지금의 기회를 利用하려는 傾向이 強化된다면 더욱더 危險이 加重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브레즈네프以後 새로운 指導層이 조심스러운 態度를 取하더라도 즉 그들의 權力이 安定되기전의 과도기에는 특히 더욱 조심스러운 政策을 扞할 것이라고 假定할 수 있다. 일단 自身들을 確信시키기 爲하여 蘇聯에게 有利하다고 생각되는 기회가 있게 되면 그 기회를 最大限度로 利用하려 들 것이라는 理論도 同時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行爲에 對한 理論은 蘇聯側에 有利한 軍事的 不均衡을 招來케 한 지난 10年間 軍事的 趨勢로 볼 때 앞으로, 80年代에 있을 기회편승의 時期와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 抬頭한 戰略的 軍事環境

앞으로 10餘年동안 蘇聯은 繼續 類例없는 막강한 軍事力을 保有하게 될 것이다. 1980年代에는 蘇聯은 美国과 相応할 만한 軍事力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브레즈네프의 確言은 的中했 을 뿐 아니라 最近의 趨勢는 오히려 美国을 凌駕하는 정도가 되었다. 軍事力은 蘇聯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外交政策의 手段이다. 軍事的 手段을 통한 影響力의 擴張을 達成하기 爲 하여 蘇聯은 심지어 쿠바와 그외의 外國의 勢力을 利用하기도 한다. 앞으로 經濟的 生産性의 低下와 人口의 노령화경향, 폴란드와 같은 蘇聯의 影響圈內에서 政治的, 經濟的 改革要求에 当面하게 되면서 蘇聯의 軍事力強化와 餘他 蘇聯社會의 弱點은 더욱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蘇聯은 軍事力에 依存한 外交政策을 追求할 可能性이 있다. 이것은 蘇聯의 戰略的 核武器를 強化하여 美国의 軍事力을 中化시키려 할 것이며, 또한 美国의 戰略核武器를 威脅케 하고, 西歐유럽에 대한 軍事力을 強化하고 있다. 現在 艦隊數로 世界 第一의 蘇聯 海軍力은 歷史的으로 러시아의 影響力이 배제되었던 地域에까지 蘇聯의 存在를 認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世界에서 最大 規模의 空輸能力을 保有케 할 것이라는 點이다.

蘇聯의 外交政策을 지원하기 위한 蘇聯의 軍事力은 과거 10餘年동안 蘇聯과 떨어진 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이 增加되면서 더욱 強化되었다. 예를 들어, 리비아는 蘇聯의 軍事力이 카리브岸

地域과 中央아메리카로 進出할 수 있는 靜哨기지를 提供하였다. 니콜라과에서 蘇聯과 쿠바는 엘살바도르와 같은 다른 中央아메리카의 諸국에까지 軍事的 侵透를 할 수 있는 基地를 얻게 되었다. 아프리카, 쿠바 또는 중앙아메리카로 蘇聯의 軍事力을 大規模로 公수하는데 리비아를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東南아시아의 경우 베트남에서 海軍基地를 얻음으로써 美國과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美國의 同盟國에게 가장 重要한 海路를 攔截시킬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蘇聯이 利用할 수 있는 軍事力은 蘇聯의 戰略核武器에서부터 代理軍事力, 特히 쿠바의 軍事力에까지 多樣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東獨, 北韓, 베트남, 리비아의 여러가지 軍事力을 利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蘇聯이 再武装을 서두르는 美國과의 直接對決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第三世界에서 蘇聯의 利益을 增進시키기 爲하여 代理軍事力을 利用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더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다른 形態의 代理戰爭이 國際테러를 위해 훈련된 힘을 利用하는 것도 蘇聯自体에 直接的인 危險을 줄이는데 有用한 手段으로 점점 더 重要하게 될 것이다. (2)

3) 相異한 美國과 蘇聯의 觀點

돌이켜보면 지난 10餘年동안 美國이 追求한 데탕트政策이 失敗하게 된 것도 美國과 蘇聯이 基本的으로 相異한 概念에서 出發했다는 事實에서 基因한다. (3) 想想하건대 美國의 接近方式에는

일종의 자기기만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蘇聯指導層은 美国側에 對하여 蘇聯과 美国의 意見一致는 결코 蘇聯으로 하여금 自身の 利益을 增進시키고, "西歐帝國主義"와 鬭爭하는 努力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번 指摘하였기 때문이다. SALT I 協定과 비준되지 않은 SALT I 條約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蘇聯의 軍事力增強計劃과 그와 동시에 世界大部分의 地域에서 蘇聯의 政治的 勝利는 蘇聯과 美国이 데탕트에 對하여 相異한 概念을 가졌다는 것을 反映해 준다. 데탕트時期와 그 直後에 蘇聯은 에집트와 소마리아와 같은 國家에서 損失을 감수했지만, 그와같은 損失은 앙골라,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남예멘, 베트남, 니과라구아, 라오스, 리비아, 모잠비크, 그레나다, 차드 등 과 같은 地域에서 蘇聯이 얻은 政治的 勝利에 比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蘇聯側의 여러가지 著作물을 보아도 蘇聯과 美国은 두 強大國間의 關係와 1980年代의 主要國際安保問題에 對하여 상이한 見解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最近에 發表된 蘇聯側 論文에 依하면, 이와같은 見解差異를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提起하였다. 即 1970年代初에 美国은 蘇聯이 第3 世界의 安定에 對하여 美国과 見解를 같이한다는 條件으로 蘇聯으로 하여금 戰略的 軍事的인 側面에서 同等한 資格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前提條件에서 美蘇關係를 追求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本態度는 1972. 5 月에 닉슨大統領과 브네즈네프가

모스크바에 조인한 SALT I協定과 平和共存原則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世界安定에 對한 美國의 이와같은 接近方法에 對하여 蘇聯側 理論家들은 第3世界의 傾向을 分析하면서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 < SALT I協定과 第3世界의 安定에 對한 蘇聯의 保障을 交換한다는 美國側의 幻想을 배제한다는 目的에서 蘇聯指導者들은 1972.5 美國大統領과의 첫번째 모스크바會議에서 分明하게 強調하였다. 即 蘇聯指導者들은 다른 民族과 國家에 關한 問題를 決定하기 爲하여 美國大統領과 마주 앉아서 協商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明白히 하였다. 蘇聯指導者들은 또한 美國과의 關係正常化에 對한 協定을 체결하면서 蘇聯은 繼續 世界 여러나라 民族들의 社會主義民族解放鬪爭을 支援할 것이란 점도 明白히 하였다. 이와같은 見解는 蘇聯指導者들의 公共演說을 通하여 그 後 여러번 되풀이 되었고, 蘇聯政府의 여러가지 政策文件에서도 再強調되었다 > (4)

이와같은 蘇聯의 批判은 1970年代初盤의 美國의 對蘇政策의 核心部分을 形成했던 連繫理論 (The notion of linkage) 을 事實상 拒否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蘇聯의 對美政策이 1971年에서와는 달리 連繫理論을 받아들여리라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蘇聯의 批評家는 다음과 같은 蘇聯政策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原則을 재강조하였다. 即 "蘇聯은 現在의 開發途上國家들의 新植民主義的 依存形態를 다른 形態의 依存으로 對置시키려는 일에 결코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南北

對話를 推進하려는 美國과 西邦同盟國들의 主要目標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아무리 '相互依存' 이란 허울좋은 原則宣言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의도를 숨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5) 이와같은 蘇聯側의 主張은 앞으로 1980年代의 對美關係를 高찰할 때 有意해야 한다. 비록 이들 蘇聯批評家는 SALT 協定과 美國과의 戰略均衡에 대한 蘇聯側 見解를 分析하지는 않았지만, 蘇聯은 SALT가 許容하는 限 모든 기회를 利用하여 우수한 戰略的核武器를 發展시키려고 努力한 것은 事實이다. 美國은 SALT協定을 通하여 SS-18과 같은 蘇聯의 戰術武器의 發展計劃과 配置를 제어할 수 없었다. 反面에 蘇聯과의 미사일條約 (ABM Treaty) 으로 蘇聯의 攻擊으로부터 ICBM 體制를 방어할 수 있는 美國의 能力은 大幅制限되었던 것이다.

4) 美蘇의 葛藤 : 第3世界와 同盟國問題

第3世界問題에 대한 美蘇의 見解差異는 1980年代의 여러 가지 形態의 葛藤要因이 될 것 같다. 카터行政府는 第3世界에서의 社會, 經濟改革을 通한 變化와 人權問題에 關心을 表明했지만 심각한 批判의 對象이 되었고, 심지어는 카터行政府가 지지한 指導者들로부터도 批判을 받았다. 니과라과에서 소모사政權을 산다니스타스政權으로 代置하는 것과 같은 美國의 政策은 결국 中央아메리카에서 蘇聯과 쿠바의 교두보를 擴張強化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6) 따라서 美國과 蘇聯間의 緊張狀態를 高調시켰을

뿐만 아니라 美国과 同盟国間의 緊張을 造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美国은 NATO 体制以外의 地域에서 일어나는 問題에 對해서는 西欧유럽同盟国과 항상 異見을 가져왔으며, 이와같은 不協和音은 第3世界에서 蘇聯의 影響力이 增加되고, 아울러 第3世界問題를 다루는 適切한 方法과 그 原因에 對한 美国과 유럽同盟国の 見解가 더욱 달라지면서 1980年代에는 이러한 傾向이 더욱 深化될 可能性이 있다. 過去 30餘年동안 北大西洋以外의 安保問題에 關한 美国과 西欧유럽同盟国の 見解差異는 漸次로 벌어져 마침내 西欧유럽國家들은 美国的 政策에 對하여 反對하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例를들어, 1956年 수에즈운하危機에 있어서 英仏政策에 對한 美国的 反對와 1960年代의 美国的 베트남政策에 對한 西欧유럽同盟국의 反對等이 그것이다. 또한 1973年의 10月戰爭당시 中東政策에 對하여 美国과 유럽國家의 相反된 見解라든가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에 따른 美国과 유럽國家의 相異한 評價는 美国과 同盟国間의 不協和音을 반영하고 있다. 社会民主党이 執權하고 있는 國家, 特히 西欧諸國들은 엘살바도르의 左派勢力을 強力하게 지지하고 있는 反面에, 美国은 左右極端派에 對한 對案으로 改革主導의 中導政權을 強化하려는 것도 이러한 不協和音의 연속을 의미한다. 1981.8 仏蘭西와 西独政府는 쿠바와 蘇聯이 지지하는 엘살바도르의 極左派勢力을 公式적으로 認定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행동은 第3世界問題를 놓고 美国과 NATO 同盟国間의 見解差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見解

차이는 仏蘭西에서 미테랑政府가 登場하면서 더욱 深化될 展望이 보인다.

이와같이 NATO 會員国들사이에 第3世界安保와 同盟国間的 防衛問題에 대하여 異見이 露出되자 蘇聯은 이를 재빨리 利用하려고 選別的인 데탕트政策으로 나왔다. 10 餘年前만해도 蘇聯의 데탕트政策은 西歐유럽과 美國을 모두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 年代初에는 美·蘇關係가 惡化되면서 蘇聯은 美國과 西歐를 明白하게 區別하는 方式을 採択하였다. 이와같은 政策은 過去의 蘇聯의 行動에서 보면, 戰略的인 側面에서 상이한 點은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別로 다른 點이 없다. 過去 40 餘年동안 蘇聯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美國의 同盟国들을 個別的으로 非難할 때도 있었다. 例를들어 수에즈운하危機當時에는 英國과 仏蘭西에 對하여 蘇聯은 威脅을 하였고, 1970 年後半에는 西歐유럽諸国の 核武装을 反對하려는 努力도 그와같은 蘇聯의 戰略을 反映하고 있다.

5) NATO 現代化와 美·蘇關係

NATO 地域의 核武装現代化에 對한 西歐유럽諸国の 反對勢力은 西獨에서 가장 強力하다. 이와같은 反對가 親蘇聯傾向을 反映한 것이든, 또는 過去의 歷史에서 脫피하여 民族的 自主性을 追求하는 努力을 反映하고 있든지간에, 이와같은 核武装에 對한 反對는 유럽地域에서 核武器均衡狀態가 長期的으로는 蘇聯側에 보

다 유리하게 展開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蘇聯은 西獨이 東獨과의 關係를 改善하기 前에 武力使用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爲하여 西獨은 德탕트에 보다 執着하게 될 것이다. 蘇聯의 立場에서 본다면 東·西間의 和解措置는 東獨에서 蘇聯이 当面한 安定問題와 附屬되어야 한다. 따라서 中央유럽에서 蘇聯勢力을 威脅할지도 모르는 두개의 獨逸間의 政治的 妥協의 可能性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는 앞으로 蘇聯에 있어서 폴란드 사태의 結果에 따라서 中央유럽의 여러地域에서도 当面하게 될 것이다.

現在 蘇聯이 当面한 主要問題는 두개의 獨逸問題의 政治的 和解에 關한 問題가 아니라 蘇聯의 對폴란드政策으로 獨逸과 其他地域에서 積중하고 있는 反核感情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主要目標은 同盟國間의 意見一致를 回復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소한 1960年代後半以後 美國과 西歐同盟國間의 콘센서스(Consensus)는 防衛와 德탕트의 2개의 概念에 依存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도 오늘날 美國은 몇몇 西歐유럽諸國, 特別히 西獨과 네델란드에서 擴大되고 있는 "平和運動"에서 보여주듯 西歐諸國의 德탕트에 對한 깊은 關心이 効果적인 防衛能力의 維持를 곤란케 할 것이라는 問題에 当面해 있다. 西歐유럽의 核武装反對가 增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核武器의 保有는 必然的으로 核戰爭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는 集團이 있는가하면

少數의 共產主義者, 트로츠키主義者, 無政府主義者와 大西洋同盟體制를 해체시키려는 集團들이 있고, 또한 무엇인가 妥當한 이유를 찾으려는 理想主義者, 그리고 現在의 條件에 不滿을 가지고, 反核運動에서 어떠한 解放感을 만끽하려는 젊은 世代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集團이 平和運動과 反核運動을 주도하고 있다.(7) 여기에 西歐유럽의 核武裝은 美國領土를 核戰爭에서 除外시키고, 그대신 유럽에서 核戰爭을 시도하려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가담하고 있다. 以外에 瓦르샤와 條約國의 攻擊이 있을 경우 NATO가 核武器를 먼저 쏠 수 있는 NATO의 탄력적인 對應戰略에 對한 西歐유럽諸國의 不滿도 이와같은 反核運動의 背景에 깔려있다. 비록 瓦르샤와 條約에 依하면 瓦르샤와 條約國이 先制核攻擊을 감행할 수 있지만, 蘇聯은 점차로 유럽諸國에 對하여 再來式武器에 의한 攻擊을 감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되었다. NATO諸國의 先制核攻擊은 NATO諸國이 政治的 或은 經濟的으로 大規模的인 在來式軍事力을 維持할 수 없는 狀況을 考慮한 代案이었다. 비록 蘇聯과 瓦르샤와 條約의 原則은 初半의 再來式戰爭概念을 배격하고, 그대신 核武器까지 동원한 攻勢를 假定하고 있지만, NATO의 戰爭각본은 蘇聯이 初盤에서는 在來式武器에 의한 공세를 펼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각본은 NATO가 먼저 核攻擊을 유럽에서 使用할 것이라는 誤解를 불러 일으켰다. NATO諸國이 蘇聯과 瓦르샤와 條約의 原則에 對하여 意見一致를 보지 않는 한 一般大衆은 核武器를 유럽에서 使用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결정할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동안
소련은 유럽에서 소련의 핵優位를 增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소련의 軍事的 優勢를 定着시키기 爲하여 NATO 諸國과 일
련의 武器制限協商을 始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同盟國의 問題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問題
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同
盟國間의 問題가 앞으로 美·蘇關係에 있어서 美國側이 當面한
重要問題라는 點을 指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1980年代의 美·蘇關係는 東歐에서 發生하는 여러가지 事態, 特
히 폴란드內에서 發生하는 事態에 依하여도 상당한 影響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美·蘇關係는 各者의 同盟國과 그들의 政
治的 影響力圈內에서 發生하는 問題에 따라서 그 性格이 決定될
것이다.

6) 소련과 폴란드

소련은 그 어느곳에서보다도 中部유럽에서 더 많은 危險
에 直面해있다. 이것은 美國과 그 同盟國들로 하여금 大西洋同
盟體制를 強化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만일 소
련이 폴란드事態에 武力介入을 하게 된다면 美國과 유럽同盟國들이
폴란드事態에서 政治的 軍事的 行動을 取하지는 못하겠지만 소련
의 行動은 유럽國家들로 하여금 美國이나 餘他地域에서의 國防費
增額을 지지하게 할 것이며, 또한 西歐유럽에서 NATO 現代化에

대한 反對가 減退할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立場에서 본다면 餘他地域에서 反蘇運動이나 共産党的 政治的 指導力에 도전하는 運動을 反對했던 경우에서보다도 폴란드危機에서 軍事的으로 介入을 해야하느냐 하는 問題는 더큰 危險性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特히 軍事介入의 政治的, 經濟的 損失이 대단히 높은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그와같은 事態를 수습하려는 努力이 失敗했을 경우 軍事的 介入을 반드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基準에 따라서 蘇聯은 폴란드에서 軍事的 介入을 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폴란드를 通過하는 蘇聯과 東獨사이의 通信網에 대한 威脅
둘째로, 폴란드 자체의 保安軍과 共産党이 效果的으로 統治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느냐는 問題

셋째, 폴란드가 重要問題에 있어 蘇聯과 瓦르샤와 條約國의 政策에서 어느정도 이탈해 가느냐는 問題

넷째, 共産党的 指導力을 威脅하는 広範圍한 民主化要求와 같은 폴란드의 事態發展이 蘇聯을 包含하여 다른 東歐國家에까지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可能性

다섯째, 폴란드의 經濟的 破局이 다른 共産國家, 特히 東獨에게 어느정도 影響力을 줄 것인가 하는 問題等を 判斷基準으로 삼게 될 것이다.

以上の 다섯가지 基準 가운데 어느하나라도 威脅이 된다고 判斷을 내리게 된다면 蘇聯은 軍事力을 使用하여 폴란드事態를 解決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判斷基準이 正確한 것이라고 假定

한다면 1981年 여름의 事態는 이미 蘇聯이 관용할 수 있는 範圍를 넘어서고 있는 듯하며, 앞으로의 展望은 대단히 어둡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1980年代의 美·蘇關係에서 폴란드問題는 더욱 重大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7) 中東과 東페르시아灣地域

1970年代와 1980年代의 美·蘇關係에서 葛藤의 引火點으로 中東과 東페르시아灣地域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妥當하겠다. 1970年代 後盤에 發表된 美國政府의 公式報告에 의하면 蘇聯은 2000年代에는 原油輸入國으로 된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世界의 油供給이란 側面에서 페르시아灣 產油國들이 차지하고 있는 重要性 때문에 이 地域의 不安定한 政權은 蘇聯의 介入에 關係없이 政治的 索요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르며, 그 結果로 美國이나 美國의 同盟國에게 非友好的이거나 敵對的인 政權이 수립될 可能性이 있다. 어쨌든 蘇聯은 그 自身의 原油輸入의 必要性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美國, 西歐유럽國家, 日本 등의 原油輸入政策에 對하여 影響力을 미치기 위해서도 이 地域 產油國에 對한 蘇聯의 勢力擴張을 追求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9)

第3世界에서 蘇聯의 影響力增大는 美國과 그 同盟國의 에너지와 外의 資源의 輸入依存度가 높아지면서 더욱 重大한 關心事가 되고있다. 現在 美國은 12가지의 非燃料資源을 전적으로 수입에 依存하고 있으며, 40가지의 必須的인 非燃料資源중에서

23 가지의 資源을 大量 輸入하고 있다. 이와같은 資源은 美國과 同盟國의 國防 및 國民經濟部門에 必須的인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資源은 大部分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國家나 地域에 위치하고 있다. 産業用다이아몬드, 백금, 크로니움, 마그네슘, 구리, 금, 코발트등의 資源은 蘇聯과 南아프리카諸國이 主要 保有國이며, 同時에 生産國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現實로 말미암아 第3世界의 資源國이 美國이나 다른 産業國에게 앞으로 資源問題에 대한 葛藤이란 側面에서 地政學的인 重要性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10)

現在의 世界의 原油供給은 충분하지만 이 地域에서 政治的 變化로 因한 長期的인 供給의 중단과 같은 事態를 完全히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이 地域에서 西方勢力의 投入能力은 蘇聯에 比하여 美國과 그 同盟國들이 모두 이 地域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不利한 立場에 있다. 게다가, 蘇聯은 海軍力의 成長과 空輸能力의 增強 및 이란과의 國境地帶에의 軍隊配置, 그리고 南예멘과 같은 産油國 周辺國家에서의 軍事基地와 施設의 增強을 通하여 앞으로 이 地域에서 軍事活動을 할 수 있는 潛在力을 強化하였던 것이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은 그 이유가 어떻든간에 美國과 그 同盟國에게 地政學的으로 대단히 重要한 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增強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提供했다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灣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의 增大는 이 地域에 對한 地政學的 重要性을 蘇聯이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8) 蘇聯의 勢力과 아시아 海岸地域

蘇聯은 西南아시아에서 東北아시아에 이르는 海岸地域에서 影響力을 擴張시키려고 온갖 手段을 講究하고 있다. 1970年代 後半以後 美國이 印度洋과 아라비안 海岸地域의 安保를 支援하기 위하여 西太平洋地域에서의 海軍力을 漸次로 撤收시킴에 따라 同地域에서 蘇聯의 海軍力의 地位는 相對的으로 強化 되었다.

다른 地域에서와 마찬가지로 東北아시아에 있어서도 美國은 불라디보스토크의 軍事施設의 扩充과 같은 蘇聯의 軍備強化라는 現実に 當面하고 있다. 1980年代初盤에 美國은 過去 10餘年에 걸쳐 繼續되었던 趨勢의 結果로 東아시아에 一連의 安保問題에 當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年代初盤부터 美國은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이룩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自衛能力을 增加시키도록 하여 日本과 中共과 함께 이 地域에서 蘇聯의 勢力膨脹에 對抗하여 勢力均衡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닉슨-키신저政策이 有效하던 時代에는 이와 같은 勢力均衡은 이 地域에서 美國勢力의 減少에 對한 代案으로 提示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는 이것은 美國의 能力減少에 對한 代案이라기 보다는 蘇聯의 軍事力成長과 美國의 國防力이 中東地域과 같은 곳에 分散됨으로써 發生하는 安保問題를 共同으로 대처하는

데 必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은 蘇聯의 海軍力이 分明하게 美國보다 뒤떨어졌던 때에는 一時的으로 發生한 必要에 따라서 美國의 海軍力을 戰略적으로 重要한 地域에서 잠시 빼어돌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全世界에 걸친 蘇聯 海軍力の 發達, 中·蘇國境地域에서의 蘇聯의 軍事力強化, 第2次大戰末에 日本으로부터 탈취한 北海道地域의 軍事基地化, 東南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進出等은 아시아地域에서 심각한 새로운 安保問題를 제기하였다. 蘇聯의 戰略目標은 이 地域에서 殘余美國勢力을 于先 中和시키고, 結局에는 撤收를 촉진한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西太平洋地域의 美軍事力을 더 감소시키면 蘇聯으로 하여금 이 地域을 支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防衛力增進과 더불어 同盟國, 特히 日本과의 防衛費支出에 대한 共同負擔의 形식을 조속히 발전시킬 必要가 있다. 이 地域에서 蘇聯의 軍事力強化趨勢는, 美國이 美國뿐만 아니라 그 同盟國의 利益에도 重要한 페르시아灣地域에 대한 새로운 安保問題를 保障해야 한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더욱 危險스러운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1980年代의 美·蘇關係라는 觀點에서 安保負擔의 共同責任이 重要한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과 日本의 關係는 美國과 西歐유럽國家와의 關係에서처럼 蘇聯의 威脅에 대한 防衛에 대하여 意見一致가 缺如된 狀態에 있다. 예를 들어 日本의 防衛白書는 西太平洋과 東아시아에서

蘇聯의 軍事力增強에 대하여 자세하게 分析, 記述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評價는 아직은 日本의 防衛力을 增加하려는 努力으로 실천되지 않고있다. (11)

美国과 中共은 1980年代初半 以來로 一連의 共同戰略利益을 發展시켜왔다. 이와같은 美·中共關係의 진전에 대하여 美国側의 見解는 蘇聯의 軍事力強化에 對항하기 위하여 必要하다는 것이다. 中共側에 依하면 蘇聯은 兩面作戰을 追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即 中東, 페르시아灣과 아프리카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確立하여 궁극적으로 西歐유럽을 포위한다는 것이며, 또한 中国의 南部地域에 있는 國家와 東北아시아에서 蘇聯의 地位를 強化하여 中共을 포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評價가 正確하다면, 東北아시아, 特히 韓半島에서 蘇聯의 地位強化는 이 地域의 다른 國家에게 重大한 影響을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特히, 中共, 日本, 그리고 美国등에게는 상당히 不利한 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년간 이 地域에서 維持되었던 4強大國간의 勢力均衡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蘇聯이 東北아시아와 西太平洋地域에서 軍事力을 強化하는 것은 앞으로 이 地域에서 勢力均衡의 變化를 가져오려는 努力과 關聯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美国과 韓國의 密接한 安保關係의 維持야 말로 東北아시아에서 蘇聯의 政策을 저지하려는 美国의 戰略에 核心的인 條件인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앞으로의 美·蘇關係를 展望하면서 過去の 양상과 1980年代에 当面하게 될 여러가지 危險性을 동시에 指摘하였다. 비록 蘇聯이 美國이 現在 当面하고 있는 모든 安保問題의 원인은 아니지만 美國의 國家安保政策에 있어서 蘇聯은 主要威脅이 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美國은, 앞으로 美國과 그 同盟國의 見解差異를 利用하고, 第3世界의 葛藤을 悲化시키며, 유라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影響力을 增大시키려는 蘇聯의 戰略에 当面하게 될 것이다. 美國의 同盟體制가 現在 지니고 있는 不協和音은 特히 西歐에서 蘇聯으로 하여금 選別的인 데탕트政策을 追求할 수 있는 기회를 提供해 주고 있다. 蘇聯의 방대한 軍事力成長은 潛在的인 危險이 되고 있으나, 蘇聯은 1980年代의 美國은 그 以前보다 더욱 強力한 政治的 意志를 보여줄 것이라는 點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同時에 蘇聯은 폴란드에서 심각한 問題에 当面하고 있다. 1980年代에 美國은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우리세대의 中心的인 戰略問題를 창조적으로 다룰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即 蘇聯의 影響力을 더 이상 擴大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다수의 國家의 安保가 보장되는, 보다 安定된 國際秩序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2. 資源問題와 世界政治

重要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가 非同盟外交政策을 追求하는 것이 漸漸 不可能해지는 時代가 到來하고 있다. 天然資源의 供給을 配定하던 世界市場의 役割이 점점 그 機能을 喪失해 가고 있으며, 主要強大國들은 極히 重要한 原料源에 의 接近을 보장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흔히 強大國들은 政治的인 手段을 通하여 그와같은 接近을 確保하려고 한다. 原料源에 의 接近은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狀態에서 "市場의 機能"에만 依存하기에는 너무나 重要한 問題이다. 不安定하거나 過激한 第3世界의 國家들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들 第3世界國家들은 西方産業國家들에게 극히 重要한 資源을 大量으로 供給해 주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며, 또는 그런 資源의 安定供給을 보장해 줄 能力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例를들어, 世界의 石油供給市場에서 이란 한 나라가 탈퇴하는 것은 당분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나라가 많이 생기면 全世界經濟는 마비되거나, 또는 나머지 原料源을 扞保하기 爲한 競爭을 촉발하게 되어, 그와같은 競爭에 끌려들어가는 나라는 經濟的 破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各國의 指導者들은 그와같은 決定的인 原料供給源이 崩壞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조치를 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1) 經濟成長이란 絶對命題

第2次大戰以後의 世界는 實로 資本主義의 勝利를 記錄하였다. 先進産業國家로 구성된 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參加國들은 前例없는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高度의 物質的 生活保障을 이룩하였고, OECD 國家들간의 實質的인 經濟的 惠沢에 대한 均衡을 達成하였다.

最近에 " 스태그플레이션 " (Stagflation) 으로 약간의 經濟成長이 鈍化되었지만, 이들 OECD 國家들의 業績은 括目할 만하다. 이와같은 成長과 繁榮은 近代産業資本主義의 거대한 動力으로 可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産業國家가 資本主義를 採択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모든 國家가 産業國家는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國家는 이와같은 資本主義國家의 行動을 모방하려고 하고있다.

예를들어,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은 蘇聯의 安保는 高度의 技術向上, 重工業의 發展 그리고, 生産의 擴大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經濟的인 침체를 許容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軍事的인 弱點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發展은 政權의 死活이 걸린 問題이고, 軍事力이 대규모의 人口보다는 現代的인 産業能力과 고도의 技術開發에 依存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安保와도 直結된 問題이다.

國家의 安保에 대한 外部的인 威脅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

도 經濟成長을 持續하지 못할 때 發生할지도 모르는 政權安保의 內的인 威脅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內政治의 安定을 위해서는 經濟的인 惠沢이 補充되어야 한다. 事實 蘇聯과 같은 나라도 政權維持를 蘇聯國民의 生活向上이란 側面에서 정당화해왔다.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失敗한 폴란드는 政權의 不安定한 合法性마저 喪失하게 되었고, 앞으로 經濟成長을 回復하지 않으면 東歐에서 社會主義의 보다 深刻한 위기를 초래할 징조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者"들도 여러가지 重大한 側面에서 資本主義者들처럼 行動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主義國家는 國際的인 次元에서 國家安保를 보장하고, 國內的인 安定을 扞保하기 爲해서 經濟成長을 이룩해야만 한다.

이들 社會主義國家의 生産性下落과 非軍事的 科學分野의 落後性의 與件하에서는 經濟成長을 達成하려면 外國의 先進技術과 資本財商品에 接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스탈린時代의 蘇聯은 蘇聯同盟國間의 實質的인 自給自足の 經濟를 容納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蘇聯은 그와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 蘇聯은 정제된 生産性和 官僚主義的인 非效率性을 脫피하기 爲하여 西方世界의 技術이 必要하며, 蘇聯人口의 食糧供給을 爲하여 西方의 穀物이 必要하게 되었다. 또한 蘇聯은 蘇聯의 産業과 軍事施設을 가동시키기 爲하여 原料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共마저도 自力更生의 時代에 終末을 고하고, 蘇聯에 대한 軍事的 安保

라는 次元에서 西方世界로부터 技術과 資本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産業國家는, 아마도 모든 強大國들은 어떤 段階에 있든지 經濟成長을 維持해야만 한다. 經濟成長의 失敗는 軍事力を 維持하는데 必要한 産業 및 技術의 低下를 의미하는 것이다. 發達된 武器開發을 爲한 技術의 진보가 없거나 大規模의 軍事施設을 지원할 만한 經濟的 能力이 補充되지 못하면, 그 나라의 國際的인 影響力은 退步하거나 侵害당하게 된다. 또한 經濟成長의 失敗는 内部的으로 政權의 전복이란 危險을 當面하게 된다.

現代國家의 國民들은 所得向上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要求한다. 經濟沈滯가 持續되거나, 特히 広範圍한 失業狀態가 繼續되면 政權에 대한 國民의 支持가 弱化된다. 大部分의 第3世界國家들은 經濟成長이란 目標에 입각하여 政權의 正統性을 樹立하려고 努力한다. 事實 흔히 第3世界의 政治指導者들은 經濟成長의 必要라는 名目으로 政治的 自由의 “一時的” 犧牲을 要求한다.

따라서 그들이 中産階級의 支持를 오랫동안 받으려면 最小限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西方世界의 政治指導者들도 1930年代의 經驗을 생생하게 記憶하고 있다. 即, 經濟的 恐慌은 獨逸에서 나찌즘을 登場시키고, 유럽全域에서 權威主義的 政權의 威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成長이 없는 經濟 (no-growth economics)와 安定된 民主政體가 共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持續的인 經濟沈滯나 退步가 政治的으로 容納될 수 없다면, 基本的인 原料供給源에의 接近에 대한 威脅은 모든 國家의 重大한 關心事가 되지 않을 수 없다.

(2) 資源의 供給

産業發展과 國民消費의 成長은 大量의 原料를 必要로 한다. 産業國家가 지닌 傳統的인 原料源은 이미 모자라게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枯渴되었다. 西歐는 10가지의 重要鉍產物을 모두 輸入하고 있으며, 日本과 韓國은 産業發展에 꼭 必要하다는 11가지의 鉍產物을 모두 輸入하고 있다. 美國도 많은 地下資源의 供給을 扞保하기 위하여 北美大陸 以外에서 供給源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2次大戰以後의 大部分의 時期에 國際貿易은 이와같은 資源의 供給源에 比較적 公開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길을 確保해주었다. 美國은 世界의 支配的인 經濟 및 政治勢力이었고, 安定된 國際通貨秩序를 維持했다. 여러가지 方法으로 美國은 比較적 自由로운 貿易秩序를 保障하였고, 戰爭으로 피폐된 나라의 經濟復興을 도왔다. 또한 美國은 과테말라와 모베사以後의 이란에서와 같이 後進國家의 政府로 하여금 世界市場을 目標로 하는 比較적 公開經濟體制를 維持하도록 하기 위하여 政治的으로 간섭하기도 하였다. 美國의 先進産業同盟國家의 見地에서 보면 이와같은 美國의 役割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例를들어 英國은 英國의 貨幣單位가 通用되는 交易地帶를 公開하라는 繼續的인 美國의 壓力에

대하여 不滿을 表示했었다. 英國의 石油産業은 中東에서 그들의 独占的 位置를 剝奪당하고 美國의 多国籍企業들과 共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의 政治的인 影響力은 美國企業의 經濟的 競爭力을 補強시켜 줌으로써 이와같은 英國企業과의 共存을 可能하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政府는 마샬플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同盟國의 經濟力強化에 關心을 가져왔다. 國際經濟秩序의 維持를 위한 美國의 努力은 모든 非共產國家에게 惠沢을 주었으며, 또한 美國은 強力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軍事力으로 強力한 同盟國을 必要로 하였다.

그러나 모든 同盟國에게 軍事力強化를 다같이 要求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美國의 軍事力은 蘇聯의 威脅을 防禦하는 主要 방패가 되었고, 이와같은 美國의 軍事力의 保護下에서 모든 産業 資本主義國家는 그들의 世界的 經濟利益을 追求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年代의 日本의 回復이 가장 좋은 본보기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나 過去 數年동안에 이와같은 여건이 더이상 繼續되지 못하게 되었다. 美國의 軍事的인 支配力에 依存하여 第3世界에 대한 蘇聯의 侵透를 豫防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란의 샤(Shah)와 같은 重要한 同盟者를 維持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蘇聯의 影響이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더라도 第3世界의 國家들이 過去처럼 西方世界의 投資活動에 公開發的인 態度를 取하고, 世界市場을 위하여 大規模의 原料生産을 繼續하리라고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흔히 어떤 形態로든 어느 정도의 自力更生을 追求하고 있으며, 그들의 領土內에서 일어나는 資源生産活動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고자 한다. 이들 第3世界國家들은 그들의 原油를 그들이 定한 量만큼, 그들이 決定한 價格에 依하여, 그들이 選擇한 나라에게 팔고자 한다. 世界産油國會議(OPEC), 특히, 아랍産油國會議(AOPEC)는 가장 成功的인 商品輸出國의 協會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取할 態勢를 보여주고 있다. 第3世界에서 過去와 같은 市場條件을 維持하거나 再導入하기 위하여 美國이 軍事力을 使用하려 한다면 美國의 軍事力은 보다 強力한 反撥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政治的 軍事的 環境의 變化로 말미암아 이제 國際市場의 自由로운 機能을 通하여 原料源에 대한 接近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政治的인 目的을 가진 産油國의 販賣禁止와 같은 일은 1973年 以後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原料生産國의 政治的 혼란으로 파생하는 威脅에 比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1) 이들 原料生産國의 革命政權은 그들의 商品生産을 약간 감소시키려고 하겠지만 問題는 거의 無政府狀態와 같은 여건이 繼續되는 時期에 革命政府는 國內的 平和를 維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意圖했던 것만큼의 減小된 量의 商品供給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테러리즘, 國內秩序의 崩壞, 內亂時期, 또는 原料生産國간의 戰爭등은 原料生産에서 國際市場에로의 連結을 쉽게 斷絶시킬 수 있는 것이다. 輸入國의 立場에서는 原料源에의 接近

保障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第3世界の 政府가 持統的인 原料生産과 운송 및 販売를 保障할 의도와 그럴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第3世界가 믿을만한 同盟国이나 아니냐 하는 基準은 이데올로기적인 側面보다 第3世界政府의 安定과 統治能力인 것이다. 이와같은 安定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3世界国家에게 軍事的 裝備를 提供해주고 그들의 軍事力을 訓練시키는 데 인식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들이 支払均衡위기를 当面했을 때에는 經濟援助를 提供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先進産業国家는 軍事力을 과견하여 주둔시킬 수도 있다. 이와같이 原料供給源을 政治的으로 確保해야 할 必要는 石油의 경우가 가장 劇的으로 認識되었지만, 그것은 石油에만 局限된 것은 아니다. 大部分의 강철에 必要不可缺한 크로뮴(Chromium)은 거의 全的으로 南아프리카와 짐바브웨 그리고 蘇聯에서 生産된다. 프라티늄코발트, 自然고무, 아미카는 아프리카와 東南아시아地域에 있는 不安定하거나, 취약한 国家에서 産出된다.

이와같은 原料供給源에의 接近保障問題는 美国보다도 西歐와 日本과 같이 天然資源이 不足한 産業国家에게는 더욱 심각한 問題가 되고 있다. 만일 美国이 이와같은 資源에의 接近을 保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即 美国의 同盟国들은 심각한 經濟危機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美国이 아닌 다른 強大國의 보호를 摸索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第3 세계의 原料生産國과 스스로 軍事的, 政治的 結合을 追求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競爭이 더욱 첨예화되는 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支配力위축은 直接的으로는 美國의 經濟的 位置를 威脅하며 間接적으로는 西方世界의 長期的인 經濟, 政治, 安保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또한 蘇聯을 包含한 産業國家들의 "影響圈" (spheres of influence) 의 확충과 經濟的 支配領域의 擴大를 위한 첨예화한 競爭은 軍事的 對決과 戰爭의 심각한 危險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3) 第1次大戰의 촉진제

오늘날의 이와같은 資源問題에 대한 展望은 1914 年에 一次大戰을 유발했던 過程과 類似한 點이 많다. 19 世紀 동안에 유럽 強大國은 急速度의 人口增加와 經濟 擴充을 經驗하였다. 그들의 人口와 産業能力, 그리고 技術基盤은 모두 歷史적으로 類例없는 速度로 發展했던 것이다. 그 結果로 이들의 資源에 대한 必要도 그만큼 급증하게 되었다. 19 世紀 동안에는 이와같은 擴充으로 因한 世界秩序의 構造에 대한 압박은 그래도 견딜 만하였다. 英國帝國의 秩序 (the pax Britannica) 는 重商主義를 自由貿易의 原則으로 代치하면서 植民地獲得을 위한 壓力을 어느정도 完 化시킬 수 있었다. 더욱 重要한 사실은 資源과 潛在的인 植民地領土가 豊富했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아프리카와 極東地域은

그때까지 植民地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西歐의 強大國들은 지나친 競争을 하지 않고서도 影響圈을 確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 C末에 이르자 強大國間의 競争은 보다 치열하게 되었다. 이제는 大部分의 世界가 分割되었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새로운 植民地를 獲得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에게서 潛在的인 植民地域을 剝奪하는 狀況이 되었다. 強大國들의 影響圈이 相互交叉하게 되었고 影響圈의 境界線設定은 심각한 関心事가 되었으며, 특히 政治的 對決이나 軍事的 힘의 對決과 같은 結果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체로 1890年과 1914年 사이에 緊張이 고조되었고 同盟關係가 形成되었으며, 國際的 危機는 보다 빈번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國家利益의 葛藤과 政治的 緊張을 招來한 要因은 多樣하다. 經濟的 擴張과 人口增加로 유발된 資源의 要求는 此外의 國內的, 國際的 要因으로 補強되었다. 強大國間의 不信과 野望으로 말미암아 軍事的 競争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上昇일로에 있었다. 軍事費를 維持하고, 점차로 擴大하려는 官僚의 壓力은 오늘날이나 그 當時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그 當時에도 武器販賣의 增加로 利得을 받는 多樣的 經濟的, 社會的 利益集團이 있었다. 이와같은 利益集團은 軍事費를 節減하려는 努力을 強力히 저지하였다. 그 당시에는 經濟成長이 持續되고 있었기 때문에 民間部分의 要求를 擴大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占領軍의 主權과 海軍力의 形態로 나타나는 軍事的 能力을 위해서는 새로

은 植民地가 必要했고 장거리에 걸친 補給과 通信網의 구축이 不可避했다. 이와같이 兵力과 艦隊가 준비되면 이것을 새로운 植民地獲得을 위해서 使用하거나 또는 必要하면 相異한 地域에서 戰爭을 수행하는데 利用하였다. 그래서 植民地獲得은 軍備競争을 促進하였고, 또 그 반대로 軍備競争은 植民地獲得을 促進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強大國의 影響圈의 磨擦이 增加하면서 이와같은 마찰은 軍事力擴大를 가져왔고, 또 軍事力擴大로 強大國間의 마찰이 增加되었다.

이와같이 볼 때 1914年 8月의 危機狀況은 強大國中心의 國際體制에 內在한 葛藤의 자연적인 結果라고 할 수 있다. 利害關係의 對立은 經濟發展으로 새로운 資源에 대한 要求가 提起되면서 必然적으로 上昇하였고, 經濟的 官僚的 利害關係는 軍事力增強計劃을 支持하였으며, 이와같은 葛藤狀況에서 強大國의 指導者들은 점점 더 相互不信과 敵對感이 增加되는 분위기에서 믿을 만한 同盟國을 摸索하고 敵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重大한 國際的 危機는 不可避했다. 北아프리카에서 또는 1908年의 보스니아危機에서와 같이 때때로 強大國들은 潛定的으로 危機를 解結할 수도 있었다. 1914年의 사라예보의 危機로 強大國의 指導者들이 보다 많은 智慧와 인내심, 客觀的이고 慎重한 態度를 가지고 政策決定에 임했다면 一次大戰을 겪지않고 解決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밀에 깔린 葛藤과 緊張은 너무나 심각하여 다시 登場하게 된 것이며, 結局은 行운과 危機

管理의 能力만으로 解決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1914年의 大戰은 回避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戰爭을 完全히 防止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만 거의 不可避한 歸結을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可能했었다고 하겠다.

1914年 8月以後의 事件은 당시의 國際体制에 약간의 여유를 提供하였다. 獨逸, 오스트리아帝國, 러시아帝國은 解体되거나 軍事的으로 거의 無氣力하게 되었으며, 유럽人들은 戰爭에 대한 幻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最大의 植民地 保有國인 불란서와 英國은 그들의 帝國을 維持할 수 있었고, 事實상은 國際聯盟의 "信託統治" (Mandates)를 通하여 帝國을 擴大하였다. 一次大戰의 敗戰國들이 다시금 国力을 強化하고 膨脹政策을 復活시키는 데는 거의 20여년이 걸렸다. 그 다음 第2次大戰은 一次大戰보다 더 비싼 댓가를 치루고 다시금 体制內의 壓力을 어느정도 解消하였다. 大部分의 強大國은 敗北했거나 經濟적으로 枯渴되었으며, 美國과 蘇聯만이 除外되었다. 따라서 強大國들은 膨脹政策을 追求할 能力이 없거나 當장 그럴 必要를 느끼지 않았다. 그後 20 ~ 30年동안 美國의 優勢한 位置는 새로이 形成된 現象 維持에 대한 挑戰을 防止하는 役割을 하였다. 一次大戰以後보다 2次大戰以後 競爭的인 膨脹主義壓力이 다시금 재개되는 데에는 더 오랜 時日이 걸렸던 것이다. (2)

(4) 1980年代의 葛藤

물론 現代에는 1914年과 같지 않으나, 두 時代에는 類似점이 明白하게 있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原料源에 대한 接近을 保障해야 할 必要는 오늘날의 國際的 葛藤의 強力한 要因이 되고 있다. 主要強大國이 자기들의 領土內에서 或은 既存의 植民帝國內에서 비교적 自足할 수 있을 때에는 原料供給源을 더 獲得하려는 壓力은 낮았다. 植民帝國이 形式的으로 解体되었을 때에도 多様な 經濟的 影響力을 行使함으로써 既存의 交易패턴과 商業活動을 그대로 維持할 수 있었다. 그와같은 것이 不確實해졌을 때에는 最少限 美國의 優勢한 地位에 依存하여 비교적 公開發的인 世界經濟를 維持하고, 原料를 必要한 만큼 사고 팔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大部分의 商業國家가 商品生産에 必要한 原料를 自給自足할 수 없게 되었다. 自國領土에서 나는 原料源의 枯渴과 膨脹하는 人口와 經濟規模로 점점 더 많은 原料供給의 必要성과, 第3世界地域에 대한 植民地統制의 喪失效果 등으로 資源問題는 심각한 問題가 되었다. 게다가 自由主義的 國際經濟秩序를 保有할 수 있는 美國의 能力은 대단히 弱化되었다. 따라서 原料源에 대한 接近을 確保해야 할 절박한 必要를 모든 國家가 느끼고 있다. 특히 先進産業國家는 더욱 그러한 必要를 切感하고 있다.

이와같은 必要에 대한 直接的 反應은, 그리고 一般的인 東西間의 緊張에 대한 反應은 武器競爭을 새로운 次元으로 擴大하게

되었다. 蘇聯의 軍事費支出은 해마다 增加하였고, 따라서 蘇聯의 戰略的 戰術的 軍事力은 繼續 增強되었다. 美國의 軍事費支出은 베트남戰爭의 여파로 過去 數年동안 減少했었지만 1976年以後 다시 上昇하기 始作하였고 1981년에는 특히 括目할 上昇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蘇聯의 軍事力과 意圖에 대한 不確定때문에 美國의 恐怖는 深化되고 있다.

새로운 武器獲得은 상대방이 어떤 武器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도 자극되지만 또한 상대방이 그의 軍事力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의하여도 자극된다. 앙골라, 에디오피아, 그리고 餘他아프리카地域에서 蘇聯과 古巴의 마르크스主義政權에 대한 지원을 超強大國間의 緊張을 復活시켰던 것이다. 카터美國大統領이 軍事費를 增額하기로 한 決定을 내리게 된 이유는 蘇聯의 軍事力增加라는 단순한 事實보다는 蘇聯의 아프리카니스탄侵攻에서처럼 원래 共產國家가 아닌 이웃나라를 侵攻하는데 蘇聯의 軍事力을 利用했다는 事實에 依하여 刺戟받았다고 主張할 수 있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蘇聯은 第3世界의 原料供給源에 대한 西方의 接近을 直接 威脅할 수 있는 軍事力과 海軍力을 獲得했다. 아프리카니스탄이나 에디오피아 自体는 原料市場과는 無關하지만 이들 나라를 占領함으로써 蘇聯은 重要的 資源國을 威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런 意도를 表明했던 것이다. 아프리카니스탄과 에디오피아와 같이 戰略적으로 重要的 地域에 대한 蘇聯의 統制擴張은 蘇聯으로 하여금 이들 國家의 인접지역에 용이하게 軍事的 介入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오늘날에는 1914
年과 같은 帝國主義나 植民主義가 없으나 그대신 影響圈과 衛星
國家를 發見하게 된다. 끝으로 오늘날에도 1914年 當時와 마
찬가지로 國際的 威脅과 對決은 國內의 官僚階層과 經濟的 利益
이란 要因으로 말미암아 더욱 深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外部의 原料供給源에 대한 接近의 必要性이 西方世界에서 繼續
增加되고 蘇聯圈에서도 自國의 保有量이 下落하면서 그와같은 必
要性이 發生하고 있는 反面에, 強大國들의 經濟는 數年前이나 一
次大戰直前과 같이 急速度로 成長하고 있지 않다. 어떤 意味에
서는 이와같은 現象은 國際体制의 壓力을 조금은 解消해 준다고
할 수 있다. 例를들어 先進國家에서 外國原油도입의 下落은 世
界經濟成長의 鈍化에도 原因이 있다. 또한 이와같은 經濟成長의
鈍化는 軍事費增加에도 어느정도 制限을 加하고 있다. 軍事費支
出의 增加는 經濟成長의 惠沢이 늘어나지 않으며, 結局 民間部分
의 必要節減이 不可避하다는 것이 明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民間部分의 需要가 앞으로 軍事費支出의 效果的인 制約
要因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現在 美國의 軍
事費는 國民總生産量(GNP)의 6%以下이다. 그러나 韓國戰爭
當時에는 40%까지 이르렀었다. 英國의 경우에는 2次大戰當時의
國防費는 國民總生産量の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다. 이와같은
事實로 보아 明白한 國家安保에 대한 威脅이 있으면 國民들로
하여금 과중한 經濟的 댓가를 支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軍備競争은 消費者의 需要만으로 쉽사리 制限할 수 없다. 오히려 兩側은 모두 상당한 댓가를 支払해야 할 것이며 兩側은 軍事的인 對備가 必要하다는 名目으로 實質的인 犠牲을 하기가 쉽다. 戰爭과 같은 緊急한 事態가 없더라도 東西진영의 國家들은 "올바른" 政治的인 環境만 주어진다면 國民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犠牲을 要求할 수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政治的 環境이란 1970年代에 存在했던 것보다 훨씬 深刻한 國家的 危機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같은 危機感은 政治指導者들과 國民間의 持續的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深化되어야 할 것이다. 國民들의 恐怖感은 일단 惹起되고 나면 다시금 統制하기가 어렵다. 政治指導者들은 일단 敵의 威脅이 임박했다고 國民들의 警覺心을 불러일으킨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相互信賴에 立脚해야 하는 戰略武器의 制限에 關한 條約을 체결하기가 어렵게 되며, 또한 戰略的인 優勢를 維持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拋棄할 수 없게 된다.

長期的인 經濟沈滯는 또다른 意味에서 우려할 만한 것이다. 國民들은 生活條件의 持續的인 向上을 期待하게 되어있는데, 이와같은 期待를 充足시키지 못하면 共產國家나 資本主義國家는 모두 그 正統性의 威脅에 當面하게 된다. 國民들의 不滿이 高調되고 國民들의 분노가 自國의 政府에 向하면 政治的인 不安定을 惹起하고, 그와같은 政治的인 不安定은 慎重한 危機管理努力을 必然的으로 저해하기 마련이다. 이와같이 既存의 經濟的 沈滯와 政治的

不安은 必要한 原料供給源에 대한 接近問題를 더욱 重大한 關心
事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競争과 戰爭

지금까지는 대체로 "新重商主義"의 입장에서 論議를 展
開해왔으나 帝國主義 또는 그외의 膨脹主義的 行動에 대한 經濟
的 決定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홉슨의 理論과 레닌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理論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蘇聯
을 "國家資本主義"로 規定하고 西方의 資本主義國家와 별로 다
름이 없는 膨脹主義政策을 追求하고 있다고 보는 新마르크스主義
者들의 主張은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같은 經濟理論들은 심각하게 考慮해 본다면 그 結
果는 지금까지의 主張, 卽 原料의 騰貴현상이 주는 壓力에 關한
主張을 強化해줄 뿐이다. 例를 들어서 政治的 競争이 深化되고
있고 影響圈으로 分割되어 있는 世界에서는 지금까지 通用되었던
多國籍企業의 行動樣式이 금지될 것이다. 銀行과 生産業體는 모
두 活動의 自由를 必要로 한다. 投資의 選擇을 自由롭게 하고
만일 對象國의 制約이 지나치면 그들의 活動을 再配定할 수 있
는 自由를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大部分의 世界
各國에 依하여 排斥된다면 이들의 번영은 物論이거니와, 이들이
속해있는 나라의 繁榮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마르크
스主義者, 新마르크스主義者, 重商主義者, 그리고 新古典學派의 理論
들은 모두 國際的 葛藤이 지닌 危險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은 分析에 따르면 世界의 장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經驗했던 것보다 훨씬 더 危險할 것이다. 第3世界地域에 대한 葛藤은 누구의 影響圈이 보다 보편적으로 될 것인가에 連結될 것이다. 극히 重要的 原料供給源은 누군가의 影響圈內에 있게 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야만 그 에 대한 接近이 確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強大國間의 敵對感과 의구심은 더욱 첨예化되기가 쉽다. 또한 軍事的인 파괴력의 絶對的인 水準은 점점 더 向上 될 것이고 發展되고 있다. 그래서 暴力的인 事態가 發生하면 破壞의 危險도 그 만큼 커진다. 더욱 重大한 事實은 軍備競争이 과거와는 그 性格과 程度에 있어서 다르다는 點이다. 例를들어 軍事的인 均衡의 變化가 防禦에 有利하게 作用한다고 期待하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언젠가는 先制攻撃體制가 防禦體制보다 有利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攻撃받기전에 先制攻撃을 해야된다는 壓力이 深化될 것이다. 技術의 變化와 武器開發이 促進될수록 그와같은 不均衡이 發生할 危險은 더 커진다.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보아 軍備競争의 時代는 戰爭의 危險度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學者에 의하면 1815年以後 強大國들은 99個의 “심각한 紛争”을 經驗했다고 한다. 其中 71個의 紛争은 거의 戰爭으로 發展되지 않고 解決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8個의 경우는 이미 武器競争을 하고 있는 國家들사이

의 紛爭이었고, 其中 23 個의 紛爭이 結局 戰爭으로 發展했던 것이다. 最近의 여러가지 研究도 비록 그 方法에 있어서는 달랐지만 비슷한 結論에 到達하였다. 即 거의 均等한 힘을 保有하고 있는 主要敵對國間의 相對的인 힘의 變化가 發生하는 時期가 平和에 特히 危險스러운 時期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 힘의 移轉 " (power transition) 發生하는 時期는 特히 軍備競爭이 수반될 때에는 政策決定者에게 不確實性을 가지게 하면, 그것은 結局 自身の 힘과 相對方의 敵對感과 威脅에 대하여 誇張된 評價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不確實性, 恐怖, 그리고 誤判은 흔히 大規模의 戰爭을 誘發한다. (3) 이것은 軍備競爭이 必然的으로 戰爭의 原因이 된다고 主張하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軍備競爭이 戰爭으로 直接 連結되는 緊張과 不確實性을 造成한다는 것을 指摘했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軍備競爭을 이미 既存해 있는 國內的 緊張을 反映하는 것에 不過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軍備競爭과 戰爭은 이와같은 緊張에 依하여 超來되는 것이다. 正確한 原因이 무엇이든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急激한 軍備支出의 增加가 繼續되는 時期는 結局 戰爭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蘇聯과의 새로운 軍備戰爭은 不可避한 것인지도 모른다. 美國이 蘇聯과의 軍備競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侵略과 戰爭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論理가 美·蘇間의 軍備競爭이 歴史的인 判斷基準에 의해서 볼 때 커다란 危險을 수반하고 있다는 事實을 否認하지는 못한다.

(6) 葛藤의 廻避와 管理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같은 危險에 처치해야 하고 必然的인 緊張과 政治的인 對決이 核戰爭으로 擴大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豫防은 診斷보다 어렵다. 한가지 提示할 수 있는 것은 兩側이 모두 慎重한 危機管理能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兩側은 現在의 危機狀況에 內在한 危險을 알아야 할 것이다. 未來의 政策決定者들은 過去의 危機가 어떻게 戰爭을 거치지 않고 解決되었는지, 또는 왜 戰爭으로 發展했는지 理解함으로써 스스로 警戒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危機管理에만 依存할 수는 없다. 만일 危機가 자주 發生하면 거의 틀림없이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慎重한 戰略은 危機管理뿐만 아니라 危機廻避에의 努力도 包含되어야 한다.

危機廻避에는 發生할지도 모르는 利害關係의 對立의 頻度を 減少시키는 것도 重要하다. 利害關係의 葛藤을 廻避하기 爲해서, 強大國들은 世界의 어느 部分은 누구의 影響圈에 들어야 할지에 對하여 서로 事前에 協商하려고 努力할 수도 있다. 第三世界의 모든 地域이 資源을 追求하는 強大國들에게 重要한 것은 아니다. 많은 人口와 頻弱한 資源을 가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에 對하여 強大國들이 政治的인 影響力을 獲得한다고 해도, 그것이 強大國의 힘의 強化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反對로 強大國의 資源을 낭비하게 하여 結果的으로는 힘의 喪失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第三世界國家의 軍事力을 利

用하여 그 地域에의 強大國의 軍事力을 代理할 수 있는 경우와 地理的인 위치가 戰略的으로 重要한 나라의 경우는 예외이다.

強大國의 立場에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그 나라의 資源이 必要한데, 政權이 不安定한 國家의 경우이다. 그와같은 國家가 많고, 여러가지 資源이 연루되어 있다면 조심스러운 勢力均衡政策이 必要할 것이다. 어떻게 多量의 마그네슘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의 價值와 主要고무생산국의 價值를 比較할 수 있을까? 그것은 例를들어 各國의 關聯商品에 대한 世界市場占有率, 政治的인 不安定의 程度 그리고 그 原料에 대한 主要産業國家의 依存度等으로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強大國은 어떤 原料에 있어서는 自給自足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原料에 대하여는 輸入에 依存할지도 모른다. 다른 強大國은 自給自足할 수 있는 原料와 輸入해야 할 原料의 品目이 반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크로뮴과 같이 世界埋藏量의 거의 全部가 짐바브웨, 南아프리카, 蘇聯에 局限되어 있는 경우 西方世界는 아프리카의 크로뮴生産者에 대한 敵對的인 政權이나 勢力의 支配를 容納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어떤 特定한 나라에서 相對方勢力이 独占하여 接近을 배제하는 행위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이와같은 行爲는 單純한 自己保存의 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或은 우리가 必要한 資源에 대한 攻擊的인 威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自國의 需要, 相對方의 需要와 意圖, 原料供給源의 政治的 安定 등과 같이 數 많은 變數를 計算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와같은 計算이 可能하다면 그에 依拠하여 資源 競爭의 均衡을 어느정도 維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資源問題는 많은 産業國家들의 利害가 달린 問題이다. 어떤 나라들은 資源을 備蓄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同盟國內에서 資源備蓄을 위한 진지한 計劃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韓國도 새로 登場한 産業國家로서 이와같은 協力에 대하여 韓國의 利益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한가지 採択할 수 있는 戰略은 同盟國이 相互責任과 原料源에 대한 接近을 共有하는 同時에 不必要한 競爭에 휩쓸려 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西方의 同盟國들은 相互利益을 補完할 수 있는 方法이 많다. 蘇聯도 그 自身の 經濟的 戰略的 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西方의 産業國家와 協力할 수도 있다. 蘇聯은 항상 蘇聯의 辺方地域에 있는 第3世界國家들이 資本主義世界의 衛星國家가 되는 것을 防止하려고 努力해왔다. 이제 蘇聯은 그와같은 일이 發生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保有하였다. 또한 蘇聯의 世界市場에 대한 接近을 거부한다는 것도 想像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蘇聯과 美國은 다같이 그들과 第3世界의 同盟國들과의 關係에서 地域的 紛爭이 그나름대로 論理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即 第3世界, 例를들어 파키스탄이나 이디오피아 또는 이스라엘은 그 地域의 敵對的인 인도, 소말리아, 시리아등이 對峙하기 위해서 外部的인 支援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키스탄과 美國의 關係는 必然的으로 印度로 하여금 파키스탄의 強大國同盟

인 美国에 대하여 敵對的인 立場을 採하게 하며, 그 자신의 強
大國 後援者로서 蘇聯의 支援을 摸索하게 된다는 것이다.

第3世界를 影響圈으로 分割하고 原料源에 대한 接近을 確保하
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帝國主義政策이다. 帝國主義란 用語가
 좋지않은 것을 연상시키는 데에는 充分한 理由가 있다. 現代
의 脈絡에서 본다면 그것은 억압적이고 權威主義的인 政權과 同
盟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經濟條件의 不平等과 市民들
의 政治的 權利의 不平等을 조장하는 政權을 維持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카터大統領의 人權政策은 經濟的으로나 戰略的으로 美国
의 利益에 必要不可欠한 나라에 適用할 때에는 非效果的이었다.
앞으로 西方世界의 安保를 保障하려는 現實主義的인 政策에서는
아마도 그와같은 同盟關係를 完全히 清算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程度의 問題가 있고 選擇의 餘地는 있다.

權威主義的인 政權과 연루되어야 한다는 壓力을 減少시킬 수
있는 方法은 몇가지 있다. 사실 道德的이거나 人道主義的 것
이외의 方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모든 第3世界同盟國의 安
定은 單純히 保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同盟關係
를 가지는 그 行爲自体가 그 나라의 國民들에게서 그 政權의
正統性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第3世界의 政府
는 그의 強大國保護者에게서 억압적인 도구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면 바로 그런 行爲때문에 正統性을 喪失할 수도 있다.
그와같은 政權과 長期的인 同盟關係를 가진다는 것은 不安하다.

더우기 軍事力이 資源에 대한 持續的인 接近과 供給을 保障하는데 効果的인 手段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軍事的 占領이란 方法을 通해서 中東의 原油導入을 確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많은 第3世界國家들은 美國, 蘇聯, 프랑스에서 고도로 發達된 武器를 도입하여 武装하고 있다. MIG-25 或은 미사일로 武装된 나라에 대하여 戰艦外交(gun boat diplomacy)를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戰艦을 危機로 몰아넣을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蘇聯은 때때로 大規模의 軍事力을 動員하여 侵入하고 장기간 占領하려고 한다. 美國은 그와같은 意圖가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대신 西方國家는 大量的 食糧援助와 資本을 提供할 수 있다.

(7) 依存度の 減少

믿을 수 없는 商品源에 대한 依存度를 줄이고, 따라서 성급한 軍事的 介入의 危險性을 減少시키기 위한 적절한 方法中의 하나는 商品의 備蓄이다. 美國의 경우 韓國戰爭以後 여러가지 原料를 備蓄했던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60年代와 1970年代初에는 大部分의 原料源에 대한 美國의 接近은 安全한 것 같았다. 하여간 大量的 原料供給의 流通은 당시에 흔히 重要한 軍事的 危險이라고 보았던 短期戰의 경우는 그렇게 問題가 되지 않았다. 또한 戰略的인 備蓄은 國內生産者에게는 높은 價

格을 維持해야 하는 것이므로 政治的인 問題가 되었다. 또한 友好的인 國家의 生産者들도 美國이 原料備蓄을 利用하여 世界市場을 자기들에게 不利하게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資源問題가 심각해지는 事情때문에 原料의 축적은 다시금 必要하게 되었다. 레이건行政府는 이 問題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表明하였다. 美國은 戰時동안 生産確保에 더이상 關心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코트나 重要한 第3世界의 商品生産을 中斷시킬 지도 모르는 政治的 不安定때문에 發生하는 原料供給의 減少可能性에 대하여 어떻게 平和時의 生産力을 維持해 나가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政治적으로 脆弱한 第3世界地域에서 주로 獲得하는 物質에 대하여 戰略的인 備蓄을 재건하는 데 드는 費用은 대단히 높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결국 過去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 例를들어 1962년에 美國은 當時 非共產世界가 生産하는 量의 2.5倍以上의 주석을 備蓄해두고 있었다. 1970年代中半에도 美國이 備蓄한 텅스텐은 平和時 正常的인 美國의 消費量으로 보아 8年동안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 오늘날 美國은 주석과 텅스텐, 특히 銀의 超過備蓄量을 販賣하여 새로운 原料의 구입에 使用하려 하고 있다. 크로뮴, 코발트, 플라늄, 특히 石油은 대단히 重要하다. 其中 石油가 가장 비싸다. 現在 推進중인 10億배럴의 石油保有量은 美國이 5個月동안 輸入하는 石油量인데 그와같은 石油備蓄에 드는 經費는 배럴당

35弗로 計算하면 約 400億弗이 구입과 貯蓄에 必要하다.

가장 심각한 條約條件은 돈액수가 아니라, 豫算삭감과 인플레이션 抑制를 基本的인 目標로 삼고있는 동안 어떻게 資金을 繰출하느냐에 있다. 특히 이와같은 備蓄計劃이 별로 重要하지 않은 資源을 生産하는 国内生産者를 배부르게 할 우려마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方法의 摸索이 重要한 것이다. 過去의 戰略的 資源備蓄 活動은 政治的으로 影響力이 큰 国内利益集團에 의하여 왜곡된 적이 있었다. (4)

정말 問題가 되는 것은 戰略的인 備蓄이며, 그것을 國家安保의 正當한 手段으로 處理해야 한다는 것이다. 蘇聯의 指導者들은 이미 自國에 대한 類似한 威脅을 迴避하려는 조치를 取하기 시작했다. 最近에 蘇聯은 現在 国内的으로 供給이 모자라지 않는 非燃料資源을 大量으로 輸入하고 있다. 이것은 備蓄行爲인 것 같다. (5)

供給者의 多元化와 海底開發能力의 發展도 政治的으로 脆弱한 外國의 供給者에 대한 依存度를 줄이는 좋은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必要한 行動을 刺戟시키기 爲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現在 美國은 重商主義가 支配하는 世界에서 效果的으로 活動할 수 있는 制度와 信念이 缺如되어 있다. 아직도 支配的인 이데올로기는 自由貿易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美國은 또한 日本이나 불란서政府에서 찾아볼 수 있는 政府와 産業間의 緊密한 協助體制를 樹立하지 못하고 있다. 美國에서 重商主義的 政府機構

를 樹立하려려고 하면 強力한 反撥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信念体制의 變化가 오히려 더 쉽게 도래할 것이다. 第2次大戰末에 美國의 指導者들이 새로운 長期的인 威脅의 根源을 蘇聯이라고 생각했을 때, 指導者들과 一般國民들의 信念体系는 신속하게 變化되었다. 當時의 指導者들은 그 危險을 감지하고, 그것은 美國의 실질적인 安保에 대한 威脅일 뿐만 아니라 美國의 基本的인 文化와 價値에 대한 威脅이라고 보았고, 또 그렇게 國民들에게 傳達하였다. 그러자 거의 순식간에 蘇聯은 同盟者가 아니라 敵으로 보게 되었다. 美國의 孤立主義는 2次大戰前에는 존경받을 만한 知的인, 그리고 政治的인 傳統이었다. 많은 孤立主義 支持者들은 그와같은 傳統을 2次大戰以後 復活시키려고 努力하였으나 不過 數年內에 그 傳統은 完全히 破壞되었고 封鎖政策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指導者들이 편협한 國家安保觀을 벗어나서 外國의 生産者들의 裨덕에 견딜 수 있는 건전한 經濟의 維持를 國家利益이란 側面에서 再定立하게 된다면 現代의 信念体制에 비슷한 變化를 가져올 수 있다. 國民들의 믿음을 効果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産業國家의 脆弱性을 보여주는 어떤 劇的인 事件이 必要할런지도 모른다. 1973年의 油價쇼크와 그 後의 原油價格引上은 그와같은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原油價格引上이 준 經濟的인 打擊은 大衆의 意識狀態에 깊은 影響을 끼칠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 效果가 充分히 나타나려면 앞으로 더 많은

原油不足狀態와 그에 따른 經濟的인 곤란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와 같이 될 때에는 몇가지 政治的 同盟關係가 發生하게 될 것이다. 即 國內의 資源生産者 武器製造業者, 傳統的인 反共主義者, 南아프리카를 支持하는 사람들 사이에 重要한 共同利益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資源備蓄과 大的인 再武装, 그리고 軍事介入은 國家安保라는 立場에서 正當化하는 소위 強硬派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제창되고 있다. 이와같은 勢力을 그대로 둔다면, 그 結果는 대단히 危險스러운 冒險主義的 外交政策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式으로 본다면 環境保護論者와 國家安保에 대한 威脅에 대한 조심스러운 見解와의 同盟이 이루어질 機會도 있다. 自然保護와 再生産은 이런 의미에서 外交政策의 手段이 될 수 있고 資源의 自給自足を 保障하는 戰略의 主要要素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原料利用의 增加, 特히 供給이 不安定한 原料利用의 增加 없이도 전반적인 經濟成長이 維持될 수 있다는 點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重要한 것은 國民總生産量(GNP)의 근소한 增加率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完全한 成長의 政治를 目標로하는 政策을 主張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平衡의 原則과 特定한 集團이나 産業에 대한 沈滯의 影響을 緩化하는 것, 그리고 一般的으로 經濟的 低成長의 社会的, 政治的 結果를 中和시키는 것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려는 것이다. 戰前의 經驗에서 알다시피, 犧牲이 다소간 公平하게 分



Ⅲ . 新國際秩序와 共產圈의 將來

Ⅲ . 新國際秩序와 共產圈의 將來

1. 中蘇紛爭의 將來

中蘇紛爭은 1940年代後半의 冷戰의 발전과 1970年代의 美蘇의 대항트와 더불어 第2次大戰以後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事件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中國과 蘇聯 兩側이 지도층과 政策이 變化했음에도 불구하고 紛爭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中蘇紛爭은 永久化되고 硬直화된 느낌마저 든다. 事實 어떤 美國 學者는 최근의 中蘇紛爭을 “끊임 없는 葛藤 (the unending Conflict) 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1)

中蘇紛爭은 끝이 없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中國과 蘇聯의 關係는 1950年代 後半에 紛爭이 시작한 이래도 3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段階는 1959-60年の 中蘇紛爭의 촉발에서부터 1966年の 文化革命時까지이며, 이 때의 특징은 兩側이 경직된 論爭을 교환하였고 國際共產主義運動과 第3世界에서 이데오르기적인 影響力을 두고 相互 緊迫한 鬪爭을 벌였던 時期였다.

두번째 段階는 1966년부터 1970年代中盤까지이며 이 때에는 中國과 蘇聯의 國境線을 사이에 두고 兩國이 직접 軍事的 衝

맞을 하였다. 1969년의 심각한 國境衝突도 이 時期에 있었던 일이다.

세 번째 段階는 北京과 모스크바가 全世界에서 地政學的인 優勢를 點有하기 위하여 競争에 돌입한 時期이며, 이들의 競争은 특히 東南아시아와 西南아시아에서 더욱 치열하였다.

이와같은 3段階에서 每番 中國側은 蘇聯의 外交政策을 政治的인 側面에서가 아니라 体制的인 側面에서 分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蘇聯의 外交關係는 크레믈린과 蘇聯社會內的 政治的力學關係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蘇聯의 國際的 行爲가 蘇聯指導層內의 “독수리派와 비둘기派” 사이의 競争과 갈등의 所産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中共側의 分析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外交政策에 影響을 줄만큼 중요한 官僚階層이나 社會階層의 利益集團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蘇聯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外交政策은 그 나라의 社會, 政治的 性格에 의하여 設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行爲를 理解하기 爲해서는 蘇聯体制의 核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蘇聯의 体制性格에 대한 中國側의 分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게 변화했었다는 事實이다. 一般的으로 보아서 첫번째 時期에는 中國側은 蘇聯이 國內政治와 對外政治에 있어서 修正主義政策을 추구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의 段階에서 北京은 蘇聯을 國內政治的 側面에서 “國家獨點資本

主義”國家이고, 國際政治的인 側面에서는 “社會 帝國主義”라고 서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蘇聯에 대한 中國側의 記述은 그 前보다 具體的이지 못한 것이 눈에 띈다. 中國은 蘇聯을 가리켜 “霸權”(hegemonic)勢力 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膨脹政策을 산출하는 蘇聯의 社會 政治体制의 특징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1) 이데올로기적인 論爭

1959-66年의 中蘇紛爭 初期段階의 主要 특징은 中國과 蘇聯이 격렬한 論爭을 交換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中蘇紛爭의 主要原因이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데올로기는 中國과 蘇聯의 競爭이 벌어진 領域을 제공했을 뿐이다.

中蘇紛爭의 根源은 蘇聯의 經濟發展에 대한 政策, 中國과 西方世界에 대한 蘇聯의 政策에 中國側이 失望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中國側의 見解에서 본다면 蘇聯은 中國의 條件에는 適用할 수 없는 政治的, 經濟的 發展모형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中國에 輸出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전한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점은 中國은 蘇聯이 中國經濟와 軍事施設에 대하여 確固한 支配力을 구축하려 하고, 中國이 自身の 主權과

獨立性を 確保하려는 것에 報復을 하려고 한다는 結論에 到達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가장 重要的 것은 蘇聯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摸索하여, 蘇聯의 그와같은 目標를 爲하여 中國의 利益을 희생할 의도가 있다고 中國側이 生覺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中國이 모스크바에 對하여 幻滅을 느끼게 한 몇가지 蘇聯側의 政策이 있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첫째는, 1958年 Quemoy 海峡危機 當時 中國에 대한 蘇聯의 미온적인 態度에서 中國側은 蘇聯이 美國과의 衝突을 피하기 위하여 中國의 基本的인 國家利益까지도 妥協하려고 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1959年과 1962年의 中國과 印度의 國境紛爭에서 蘇聯은 中立的 立場을 取하다가 結局은 印度를 지지하는 立場을 取함으로써 中國의 의구심을 強化시켰다. 또한번 蘇聯은 非共產主義國家와의 關係改善을 爲하여 蘇聯의 聯合國인 中國의 利益을 拋棄하였다는 것을 証明한 셈이다.

둘째로, 蘇聯은 中國으로 하여금 蘇聯의 政策에 順從하게 하기 爲하여 中國에 對한 蘇聯의 軍事·經濟援助를 一方的으로 廢棄한 일이 있었다. 1959年 蘇聯은 核武器 建設을 爲하여 中國에게 技術提供을 하겠다는 約束을 破棄하고, 이것은 中國이 中蘇 兩國의 軍事力의 協力을 強化하려는 蘇聯側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點을 明白하게 밝혔다. 1960年에

蘇聯은 大躍進運動으로 말미암아 正常的인 作業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이유로 中國의 産業發展을 爲해 派遣되었던 蘇聯의 技術者와 高문단을 撤收시켰다.

셋째로 中國의 觀點에서 가장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은 1963년에 部分核實驗禁止條約을 모스크바가 認准했다는 것이다. 北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蘇聯이 美國과 協力하여 두 나라의 世界制覇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中國과 같이 核武器를 이용하여 美·蘇의 霸權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核武器를 發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相互不信에서 시작한 中·蘇紛爭은 初半期에는 妥協을 시도했으나 失敗하고 急擊하게 紛爭이 擴大되었다. 1961년과 1963년 사이에 兩國은 東歐共產主義政党的 全國大會를 利用하여 一種의 論爭을 하기 始作하였다. 이때 中國은 유고슬라비아의 外交政策과 國內政治를 批判함으로써 蘇聯을 間接적으로 批判하였고 蘇聯은 中國대신 알바니아를 非難하였다. 그러나, 1963년 中盤에 核實驗禁止條約의 비준당시에는 中蘇紛爭은 公開的 論爭으로 發展하였고, 兩國의 共產黨은 公式書翰과 論評을 交換하였다. 이때 兩側은 自己들만이 國際共產主義運動全般에 걸친 “正確한” 總路線을 代辯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時期에 蘇聯에 대한 中國의 見解는 蘇聯이 修正主義國家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指導下에서 蘇聯은 올바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修正하여 資本主義로 復歸할 危險性마저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中蘇紛爭이 公開되기 以前에도 中國側은 蘇聯의 이데올로기와 政策을 數年동안 批判해 온 것은 確實하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時代를 批判하는 秘密演說을 한 1956.2 蘇聯 共産黨 第20次 全党大會 以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失手를 지나치게 強調하였고, 社會主義社會에서 矛盾이 繼續 存在한다는 것을 否定하였으며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어로 “平和的 移轉”이 可能하다는 옳지 못한 見解를 闡發했다고 指適하였다. (2)

毛沢東 自身이 스탈린의 政治, 經濟에 對하여 広範圍한 批判을 하였다. 即 스탈린은 工業, 中央執權, 專門家, 幹部, 그리고 各觀的인 條件이 부여하는 條約을 強調한 반면에, 보다 大衆主義的이고 平等主義的 側面, 즉 農業, 地方의 창의성, 政治的 積極性, 大衆動員에 의한 發展可能性을 看過했다는 것이다. ③

이와같이 1960年代初盤에 毛의 直接指揮下에서 中國側은 蘇聯의 “修正主義”에 對하여 체계적인 批判을 가하였던 것이다.

1964년에 發表한 “후르시초프의 假共産主義와 世界에 對한 歷史的 教訓”이란 글에서 中國共産黨은 1956년의 20次全党大會 以後 후르시초프의 政策을 社會主義下에서 새로운 資産階級이 창조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였고, 社會主義에서 資本主義로 退行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였다.

中國側의 分析에 의하면 이와같은 政策에는 세가지 次元이 있다고 한다. 文化的인 領域에서 蘇聯은 非現實主義藝術實驗이라든

가, 西歐의 大衆音樂人같은 “브르조아” 文化를 復活,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經濟分野에서 1960年代 初盤의 蘇聯의 政策은 物質的 補償의 利用, 市場役割의 擴大, 利潤을 經濟活動의 指標로 삼는 것과 같은 “資本主義的” 經營方式을 強調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政治領域에서 후르시초프는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 라는 概念대신 “全人民의 國家”와 “全人民의 黨”이란 概念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르시초프는 蘇聯에서 階級 鬭爭이 終結됐다고 암암리에 宣言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실책은 蘇聯社會의 非敵對的 矛盾에 대하여 抑壓的이고 獨裁的인 手段을 使用하였다는 것인데 反하여 후르시초프는 그 반대의 過誤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社會에 殘存해 있는 敵對的 矛盾에 對하여 獨裁的인 方法을 使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中國側의 主張에 의하면 蘇聯社會는 經營階層과 黨幹部와 같은 새로운 엘리트 階層을 產出하는 經濟, 組織政策을 採択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價値觀에 信念을 弱化시키는 文化政策을 實施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에 對한 概念을 포기함으로써 후르시초프는 이와같은 새로운 “階級에 의한 蘇聯社會에 對한 制度的 榨取를 방지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이미 指適한 바가 있지만 中國側의 見解는 한 나라의 社會-政治的 特徵은 그 나라의 外交政策에 強力하게 影響을 주며, 때로는 거의 決定的인 影響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蘇聯과 같은

修正主義國家에 特徵的인 外交政策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1960年 初盤의 中國側의 見解에 의하면 蘇聯은 修正主義國家로서 基本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外交政策을 拋棄했다는 것이다. 國內政治에서 蘇聯은 프로레타리아트의 独裁原理를 拋棄하였고, 國際的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革命과 프로레타리아트의 國際主義를 또한 拋棄하고, 그대신 平和共存의 概念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은 美國과의 平和共存을 위해서 美帝國主義와의 對決政策을 拋棄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政策은 모두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國內政治에 있어서나 國際政治에 있어서 “被压迫民族과 人民의 革命鬪爭”을 拋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移轉하려고 하는” 努力은 中國側의 分析에 따르면, “革命鬪爭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5)

이외에도 中國과 蘇聯間의 論爭에 있어서 注目할 만한 側面이 있다. 蘇聯과 中國側은 자기들에게 有利하게 國際政治에 있어서 “主要矛盾”이 무엇인가를 定義내리려고 하였다. 蘇聯側 으로는 美國이 “指導하는 資本勢力과 蘇聯의 社會主義勢力의 矛盾이 “우리 世紀의 主要矛盾”이라는 것이다.(6) 反面에 中共의 立場에서는 1960年代 初半에 최소한 4가지의 矛盾이 이 세상에 있으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사이의 矛盾은 그 中の 하나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資本主義國家內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브로조아階級간의 矛盾, 資本主義國家間的 矛盾, 그리고 무엇보다도 被

壓迫民族과 帝國主義의 矛盾이 있다는 것이다. 事實 中共側은 國際政治의 主要矛盾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의 矛盾이 아니라 帝國主義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地域間의 矛盾이라는 것이다. (7)

이와같은 中共과 蘇聯은 國際政治의 主要矛盾을 자기가 主役을 할 수 있는 方向에서 定義를 내렸다. 만일 蘇聯이 주장한 것처럼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矛盾이 主要矛盾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強力한 社會主義國家인 蘇聯이 이와같은 矛盾을 解決하는 데 核心的인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主要矛盾이 帝國主義와 開發途上國間의 矛盾이라고 한다면 第3世界에서 가장 큰 社會主義國家인 中共이 당연히 그 解決을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占有하게 될 것이다.

1960年 初盤의 中國의 對蘇戰略은 中蘇紛爭을 “中共의 “正當한” 政策과 蘇聯의 “修正主義” 政策間의 鬭爭이라고 보는 觀點에서 유래하였고, 또한 國際政治의 主要舞台는 第3世界에 있다는 주장에 根拠를 두었다.

첫째로, 中共은 世界도처에서 雜多한 親中共分派를 만들어내어 共產主義運動內에서 親中共派를 形成하려고 하였다. 同時에 中共은 權威가 있는 國際共產黨代表者會議를 開催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總路線”을 決定함으로써 共產陣營의 “團結”을 창출하고 北京의 이데올로기적 改革을 非正統的인 것으로 宣言하려는 蘇聯의 시도를 방해하려 努力하였다.

둘째로, 中共은 여러 가지 形態의 第3世界指導者會議를 주선하려고 했다. 例를 들어 아프리카-아시아作家會議와 같은 既存組織을 利用하거나 또는 인도네시아가 제의한 新生國集團과 같은 새로운 組織體를 利用하여 第3世界問題에서 蘇聯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 結果 中共을 社會主義진영에서 逐出하려던 蘇聯의 努力은 失敗했지만, 蘇聯을 第3世界에서 除外하려는 中共의 努力은 보다 成功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軍事的 對決

1964年의 蘇聯內의 事態진척이라든가, 1965年의 인도지나 事態에도 불구하고 北京과 모스크바사이의 緊張이 緩和되거나 減少되지 않았다는 事實에서 中蘇紛爭의 傾直性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1964年 후르시초프의 沒落以後 크레믈린側은 中·蘇間의 論爭을 中斷할 것과 中共에 대한 經濟援助를 재개하겠다고 提案할 수 있었고, 그와같은 提案으로 周恩来首相은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후르시초프以後의 中·蘇關係에 關하여 討議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構成된 蘇聯指導層이 蘇聯의 國內政策을 變更할 의도가 없으며, 또한 國際共產黨會議를 開催하여 蘇聯의 指導力에 대한 中國의 挑戰問題를 討議하려던 当初의 計劃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明白히 하게 되자, 中共 當局은 蘇聯은 “후르시초프가 없는 후르시초프主義”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으며, 中蘇關係는 改善될 可能性이 전혀 없다고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1964年 후반과 1965年 初期에 美國이 곧 베트남 介入에 “피곤해져서” 撤收하게 될 것이라는 毛의 豫言과는 달리 오히려 美國의 介入이 擴大되었지만, 이와같은 美國의 확전에 中·蘇關係를 改善시킬만한 充分한 계기를 提供해 주지 못했다.

蘇聯側은 越盟에 대한 社會主義진영의 모든 援助計劃을 協議·調整할 것을 提議했던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蘇聯의 提議와 더불어 蘇聯은 中共의 領空을 通하여 베트남에 이르는 航路를 使用해야 하며, 中共南部地方에 있는 한 두개의 空港을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와같은 所見의 要求는 1958年 中·蘇聯合軍事命令体制에 관한 제의와 마찬가지로 中國側의 立場에서는 中國의 主權과 領土權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되었고, 따라서 즉각 그와같은 蘇聯의 제의는 거부되었다.

1960年代 中半의 中·蘇紛争의 特徵은 과거의 中·蘇紛争에 軍事的 차원이 添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兩國간의 國境紛争이 突出이 되었다는 것이다. 1960年代 初盤에 中·蘇間의 論争交換過程에서 北京側은 帝政러시아가 中國에게 強要했던 國境問題에 대한 不平等條約問題를 들고 나왔다. 레닌은 그와같은 不平等條約을 수정할 것이라고 約束했지만 蘇聯政府는 中·蘇國境問題에 관한 協商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1964年에야 外務省次官級의 會談이 始作되었으나 3個月간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進展이 없었다.

이와같은 國境問題에 대한 協商失敗와 文化革命의 反蘇的인 要

素로 말미암아 蘇聯은 中·蘇國境地域에서 軍事力을 大幅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1964 年에 蘇聯은 中國과의 國境地域에 約 15 個 師團을 配置하였다. 그러나 1969 年에 蘇聯의 軍事力은 거의 두 배가 되는 25 ~ 27 個 師團으로 增強되었고, 외몽고에서도 作戰行動을 하기에 이르렀다. 蘇聯側에서 본다면 이것은 文化革命期間동안 中共의 非理性的 行動과 極東地域의 蘇聯領土에 對한 中共의 領有權主張에 對한 反應이며, 自衛的인 配置라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側은 이와같은 蘇聯의 軍事移動은 中共과의 關係에서 더 큰 影響力을 確保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即, 國際社會에서 許容될 수 없는 中共의 行動에 對하여 北京을 응징할 수 있고 심지어 中共의 國內的 不安定을 틈타서 中共의 國內政治에 介入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비록 中共이 1968 年과 1969 年에 정말 어느정도로 蘇聯의 침공을 두려워했느냐는 問題에는 不確實한 점이 많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 對한 蘇聯의 介入으로 中共側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事實은 틀림없다. 蘇聯의 체코 침공直後 周恩来수상은 蘇聯에 對한 새로운 中國側의 評價를 發表하였다. 東歐地域에서의 蘇聯의 行爲로 보아 蘇聯은 레닌主義의 表現을 빌린다면 “社會-帝國主義” 勢力이라는 것이다. 1970 年代 中半까지 蘇聯에 對한 性格規定이 보다 자세하게 說明되었다.

첫째로, 蘇聯은 이제 단순한 修正主義國家가 아니라 美國과 같

은 資本主義國家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産業은 보다 자세히 기술하자면 國家独占資本主義라는 것이다.(8)

후르시초프아래서 始作되었던 資本主義의 復活이 이제 브레즈네프政權에 의해서 完成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國內的 特徵에 대한 再評價는 蘇聯의 國際行爲에 대한 中共의 分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修正主義國家로서 蘇聯은 후르시초프의 指導下에서 修正主義 外交政策을 實施하리라고 豫想할 수 있었다. 즉, 美國과 西方의 平和共存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轉”이란 구실아래서 革命運動에 대한 支援을 拋棄하는 것과 같은 政策을 推進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國家独占資本主義政權으로서 브레즈네프指導力은 보다 攻撃的이고 膨脹主義的인 政策을 扞하리라고 豫想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政治經濟學에 의하면 國家에 의하여 統制되거나 個人에 의해서 支配되거나 關係없이 独占資本主義政權은 必然적으로 帝國主義的 外交政策을 採扞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다른 資本主義國家에 대한 宥和政策뿐만 아니라 世界制覇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中共指導者들은 社會帝國主義國家인 蘇聯은 美國이나 다른 資本主義的 帝國主義國家보다도 世界平和와 安定에 보다 심각한 威脅을 주고 있다고 結論을 내렸다.(9)

後統帝國主義國家로서 蘇聯은 만드시 既存의 國際政治의 힘과

影響力の 配分을 破壞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世界問題에 있어서 攻撃的인 勢力이 될 것이다. 또한 蘇聯은 西歐유럽과 美帝國主義國家와 같은 經濟的, 文化的 影響力을 欠如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은 그 目標達成을 爲하여 依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軍事的 壓力과 對決을 外交政策의 手段으로 利用할 可能性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비록 蘇聯의 經濟的, 科學的 能力은 美國보다 덜 發展되었지만 蘇聯은 抑壓的인 政治構造를 利用하여 類例가 없는 높은 比率의 資源을 軍事發展을 爲하여 投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蘇聯은 “社會主義”라든가 또는 “革命”이란 이름으로 그의 攻撃的인 의도를 假裝할 수 있다는 것이다. 蘇聯은 美國보다 第3世界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中國이 蘇聯을 “社會帝國主義國家”로 規定하고, 蘇聯은 中共과의 國境地帶에 軍事力을 強化함으로써, 아시아의 두 共產主義大國間에 軍事對決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對決은 1969.3 蘇聯의 카바로브스크市南方에 있는 우수리江邊 (Ussuri River)에서의 武力衝突로 나타났다. 大部分의 美國專門家들은 中國側이 3月2日, 다만스키섬 (Damansky island)에서 최초의 衝突을 촉발시켰고, 3月15日 두번째의 大規模 衝突은 蘇聯側의 報復에서 始作되었다는 데에 意見의 一致를 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危機를 유발한 北京側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異見이 일고 있다. 어떤學者들은 國境紛爭을 中共指導層內에서의 權力鬭爭과 關係가 있다고 主張한다. 즉 中共指導層內의 어느 한 政派가 1969年4월에 開催된 第9次 全党大會直前に 自派의 입장을 強化하기 위하여 그와같은 國境衝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어떤 學者들은 中共의 決定은 指導層의 意見一致에 의하여 내려졌고, 中共指導層은 蘇聯側에 대하여 文化革命의 混亂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어떠한 蘇聯의 攻擊에도 効果적으로 自身을 방위할 準備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美國과 西方側에 대하여 蘇聯의 체코침공과 中蘇 國境地帶의 軍事化의 여파로 中蘇關係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段階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다.(11)

中共의 動機가 어떤 것이든간에 1969年의 國境紛爭은 中國과 美國, 中國과 蘇聯의 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로, 中·蘇紛爭으로 中國內에서 美·中共의 和解政策에 대한 반대가 減少되었고 美國側에게 두나라의 關係改善의 기회가 到來했다는 信號를 보내게 되었다.

둘째로, 國境紛爭은 中·蘇對決에 軍事的인 要素를 添加시킴으로서 兩國간의 關係를 더욱 複雜하게 만들었다.

이와같은 國境衝突은 短期的인 안목에서 보면 戰爭의 危險性을 고조시켰지만 逆說的 이긴 하지만, 國境紛爭으로 말미암아 長期的 안목에서 中蘇間의 緊張을 減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69年後半에 國境問題에 대한 協商이 마침내 再開되었고, 兩側의 對決을 緩和시킬 수 있는 對話의 廣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協商이 진행되는 동안에 中國의 對蘇戰略은 中共의 國內政治에서 論争點이 되었다.(12) 간단히 말하자면, 中共指導層의 一部는, 특히 中共의 外交部와 關聯이 있는 지도층은 中蘇間의 緊張이 度を 넘지않게 하기 위하여 蘇聯에 대하여 比較的 妥協的인 立場을 擇할것을 提案하였다.

이들 指導者들은 兩國間의 主要懸案問題에 있어서 妥協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蘇聯側에게 때때로 약간의 양보를 할 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中·蘇間의 對決을 惡化시킬 만한 事件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에 比하여 다른 中共指導者들은, 그중 여러가지 狀況으로 보아 急進派인 “四人幫”과 關聯되어 있는 指導層은 外交部의 對蘇政策은 “國家的 굴복”과 마찬가지로 非難하였다. 이와같은 急進派는 1974년에 蘇聯의 攻擊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기 위하여 中共의 國防力을 強化해야 한다고 제의하였고, 協商에 있어서 非妥協的인 立場을 扞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여러가지 事件을 利用 또는 造作하여 蘇聯의 社會帝國主義에 대항하는 中共의 결의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와같은 中共指導層內의 政策論争의 結果로 1969年의 國境衝突以後 4人幫이 沒落할 때까지 中共의 對蘇政策은 눈에 띄게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말해서 中·蘇關係의 基本的

인 改善을 위하여 中共側이 提示한 主要條件에는 變動이 없었다.

첫째로, 國境協商을 成功的으로 進行시키기 위한 前提條件으로 中共側은 중요한 蘇聯의 讓步를 要求하였다. 즉 兩國은 國境地域에서 現狀維持를 하겠다는 豫備的인 協定을 맺어야 하며 兩國軍隊들간의 충돌을 避할 것과 紛爭地域에서 兩國의 軍隊를 撤收시킬 것을 約束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側에 의하면 周恩来수상과 코시킨수상은 1969.9의 北京空港會談에서 이와같은 協定에 到達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蘇聯側은 그와같은 協定이 있었다는 것을 繼續 否認하였다)

둘째로, 中共側은 蘇聯이 먼저 中·蘇國境을 規定한 條約이 不平等條約이며, 再協商에 의하여 調整되어야 한다는 것을 認定해야 한다고 要求하였다. 北京當局은 그와같은 再調整을 通하여 中共側에게 讓渡해야 할 領土는 대단히 작은 部分에 불과할 것이라는 點을 約束하였다.

셋째로, 中·蘇國境地域에 配置된 蘇聯軍의 兵力을 1960年 初盤의 水準으로 減縮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最近에 北京側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蘇聯軍의 撤收와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단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主要問題에 대한 蘇聯側의 方針은 確固하였지만, 비교적 重要하지 않은 問題에 대하여는 妥協的인 태도를 表明하였다.

1969~1976年사이에 蘇聯側은 다양한 通路를 通하여 中共側

에게 여러가지 提案을 提示하였다. 즉 中共에 대하여 武力使用을 하지 않겠다는 協定에 應할 것이며, 北京当局과 相互攻擊禁止條約에 協商할 의도가 있으며, 各自의 國內問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側은 兩國間의 交易을 增進시키고 科學, 教育의 交流를 재개할 것과 兩國間의 主要問題를 討論하기 위하여 兩國間의 頂上會談을 開催할 것을 제의하였다. 심지어는 紛爭이 되고 있는 國境地域의 再調整을 위한 中國側의 提案의 一部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側은 兵力撤收에 대한 中共側의 提案을 거부하였다. 다시말해서 蘇聯은 中共에 대한 軍事壓力을 加할수 있는 能力을 拋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3) 地政學的 競争

1969年以來 中蘇國境에서 武力衝突의 사고는 가끔 繼續해서 發生하였다. 1974.3 中共領土內에 들어온 蘇聯의 헬리콥터 승무원의 체포와 같은 事件은 中·蘇間의 갈등을 심각할 정도로 擴散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年代初에 北京과 모스크바当局이 시작한 直接的, 間接的 協商을 통하여 그와같은 對決을 상당히 緩和시킬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1970年代 中半期에 이르러 中·蘇關係는 第3의局面에 돌입한 것이 分明하며, 이제는 兩國間의 軍事對決보다는 世

界的인 地政學的인 競争關係에 돌입하였다. 例를들어 이미 1973年初에 周恩来首相은 國境紛争에도 불구하고 蘇聯은 中共에 대하여 敵對感을 假裝하고 있으며, 蘇聯의 主要야심은 유럽을 向하고 있다고 宣言한 바 있다. 1974년에 中共의 外交部官吏들은 訪問中인 西方側 言論人들에게 中·蘇間의 戰爭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였다. 1978년에 이르러 우수리(Ussuri)江邊이나 신강성 또는 中央아시아地域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니스탄등의 第3世界の 여러 地域이 中共과 蘇聯의 對決場이 되었던 것이다.

毛沢東의 死亡과 四人幫의 숙청으로 中共의 國內政治는 놀라울 만큼 새로운 局面으로 發展하기 始作하였다. 文化革命동안 “修正主義”라고 비난받았던 政策과 指導者들이 復活復權되었다. 새로운 中共指導層은 1960年代初에는 역시 “修正主義的”이라고 배격되었던 유고슬로바키아를 포함한 東歐諸國의 政治的, 經濟的, 改革을 研究하기 시작하였다. 同時에 이들은 社會主義를 보다 広範圍하게 實踐하여 文化革命과 關聯된 政策과 制度를 拋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再評價의 一環으로 中共의 指導者들은 蘇聯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였다. 1978年末에 中共의 社會科學者들은 蘇聯의 國內政治를 보다 구체적으로 檢討하여 어떤 部分이 “社會主義的”이고, 어떤 部分이 “修正主義的”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點을 認定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外交關係에 대한 그와같

은 再評價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⑬

蘇聯은 아직도 世界制霸를 추구하는 帝國主義國家라고 기술하고 있다. (14)

그러나 1977年 이래 中共側은 蘇聯의 戰略과 戰術에 대하여 以前보다 더 상세하게 分析하고 있다. 北京側의 評價에 의하면 蘇聯의 膨脹主義政策의 窮極的인 目標은 西歐, 日本, 中國, 美國과 같은 強大國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이들 強大國을 直接 상대할 만큼 強大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보다 間接的인 戰略에 의하여 霸權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第3世界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擴大함으로써 蘇聯은 西方世界에 絶對적으로 必要한 原料供給에 危脅을 줄 수 있는 地政學的 位直를 擴保하여, 西歐와 日本의 목을 칠수 있고, 또한 美國에 대하여 더욱 큰 影響力을 行使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戰略에 中共은 勿論 西歐와 日本보다 比較的 安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中共의 周邊地域에서 軍事的, 政治的 關係網을 구축하여 北京에 대한 蘇聯의 立場을 改善하려고 企圖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側은 蘇聯의 이와같은 政策에 처한 分析가운데, 두가지 보다 구체적인 要素를 指摘하였다. 蘇聯은 陸路를 통하여 아프리카, 中東, 西南아시아와 東南아시아에로 進出하는 소위 “南下政策”(Southward thrusts)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年 中盤期の 蘇聯의 앙골라 介入, 1980年代의 아프카니스탄 侵攻, 1978年後盤期 以後 베트남의 캄보디아 占領에 대한 蘇聯의 支援 등은 이와같은 蘇聯의 陸路戰略의 主宗이라는 것이다.

海上을 통하여 蘇聯은 “아령戰略”(dumbell strategy)을 發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蘇聯은 인도洋과 西太平洋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擴張시키려고 하며, 말라카해협은 이 두地域을 連結하는 중추적인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中共側에 의하면 第3世界에서 蘇聯의 侵略은 과거에 비하여 더 攻撃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은 以前과 같은 手法을 使用하고 있다고 한다. 즉 西方世界에 대하여 蘇聯은 '데탕트'를 利用하여 第2次大戰 直前の 英國의 對獨政策과 같은, 西方國家에 宥和政策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第3世界에서 蘇聯은 外交, 經濟援助, 軍事援助와 같은 正常的인 方法을 使用하여 影響力의 增大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年代 中盤期以後 蘇聯은 보다 強制力이 있는 方法을 使用하기 시작했다. 즉 非友好的 政權의 전복, 큐바와 베트남과 같은 “傭兵”을 使用하여 第3世界에서 軍事的인 介入을 하기도 하고, 아프카니스탄의 侵攻과 같이 蘇聯의 兵力을 直接動員하여 開發途上國에 대한 蘇聯의 政策目標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究明해야

이와같이 蘇聯의 意圖, 戰略, 戰術에 대하여 中共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分析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같은 蘇聯의 國際的인 行爲에 대한 國內的 原因에 대하여는 애매한 태도를 取하였다. 毛澤東의 死亡과 四人幫肅清以後 中共의 國內政策의 變化로 말미암아, 中共側은 더이상 蘇聯을 一括的으로 “修正主義” 國家라고 規定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그와같이 한다면 앞으로 中共이 蘇聯과 같은 經濟政策이나 政治制度를 採擇할 수 있는 可能性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蘇聯은 “國家独占資本主義”의 標本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事實 一部の 中共學者들 가운데에는 蘇聯을 아직도 “基本的으로 社會主義國家”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15)

그렇다고 해서 中共側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대한 根拠를 더 以上 分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中共側에 의하면 蘇聯의 外交政策은 蘇聯의 体制의 基本性格에서 規定되는 것이지, 결코 크레믈린의 政治的 功別作用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社會帝國主義”라는 概念은 結局 蘇聯과 같은 事實上으로는 帝國主義國家이며, 다만 名目上으로만 “社會主義”國家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어떤 나라가 社會主義的인 國家라고 주장하면서, 同時에 霸權的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理論的인 중대한 問題點이 내포되어 있다. 어떻게 社會主義政權이 착취的인 外交政策을 遂行할 수 있겠는가?

1980年2月頃에 人民日報의 高位層編輯者는 한 인터뷰에서 中共指導者들은 蘇聯을 社會主義國家로 認定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면서 그 이유는 理論적으로 社會主義國家가 霸權的인 政策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指摘하였다.(16)

따라서 中共側은 蘇聯의 外交政策의 原因分析에 있어서 다시금 애매한 태도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共의 어떤 學者는 歷史的인 觀點에서 蘇聯의 霸權主義는 帝政러시아 膨脹主義의 近代的인 유산이라고 主張하기도 하였다. 보다 現代的인 社會·政治的인 觀點에서 어떤 學者들은 蘇聯社會에 남아있는 “反動的 民族主義”가 繼續 存在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原因을 찾으려고 하였다. 中共의 國內政治上的 많은 問題點이 中國의 封建的인 歷史에 그 原因이 있는 것처럼, 蘇聯의 膨脹主義的 政策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以前의 帝政러시아文化의 影響力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指導層은 中·蘇國境地域에서 蘇聯의 直接的인 攻擊의 危險性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中共을 포위하려는 蘇聯의 企圖와 같은 間接的인 위협이 시베리아의 蘇聯軍의 直接的인 위협보다도 더욱 중요한 問題라고 中共指導層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은 一見 一貫性이 없는 듯한 中共의 政策을 說明해 준다. 즉 中共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들의 軍事力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中共自身の 軍近代化에는 왜 消極的인 입장을 取하는지를 理解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共의 軍事指導者中에는

蘇聯의 기습공격의 危險성을 경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는 中共의 軍事력을 強化하기 위한 緊急한 措置를 取할 必要는 없다는 意見에 동조하고 있다.

現段階에서 蘇聯에 대한 中共의 戰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素가 있다.

첫째, 中共側은 蘇聯에 대하여 냉정하지만 도발적이 아닌 政策을 繼續 取한다는 것이다. 中共側은 아직도 中·蘇關係를 大幅 改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前提條件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中共側은 兩國關係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惡化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것도 事實이다. 1979年 봄에 中共이 베트남을 侵攻했을 때라든가 1950년에 締結한 中·蘇同盟條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와 같이 中·蘇의 緊張이 고조될 때에는 中共側은 蘇聯을 무마하기 위한 方面으로 協商再開를 提議하였다. 또한 中共이 美國과의 보다 緊密한 軍事協力을 推進할 때에는 北京當局은 모스크바에 대하여 妥協적인 태도를 取하고는 하였다.

둘째, 中共側은 第3世界에서 蘇聯의 影響力擴張을 저지하려고 努力한다.

이와같은 目的에서 中共側은 아프카니스탄과 캄보디아의 武装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西方國家에게도 이들에게 中共과 같이 支援하라고 促求하였다. 北京當局은 蘇聯이 第3世界의 地域紛争에 介入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地域紛争을 解

決하기 위한 協商에 蘇聯이 介入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또한 中共은 이집트와 소말리아와 같이 한때 蘇聯과 親交를 맺었던 나라들로 하여금 蘇聯의 影響力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蘇聯과의 國交斷絶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그와같은 나라에 대한 軍事·經濟援助를 增加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7)

그러나 과거에 比하여 中共側은 蘇聯의 膨脹을 저지하기 위한 第3世界各國에 대한 努力보다는 유럽 日本, 美國, 中共의 對蘇聯合의 구축을 보다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위하여 中共當局은 日本, NATO, 美國의 軍事力強化와 現代化政策을 지지하였다. 이제 中共은 大部分의 地域에서 美國軍隊의 주둔에 대하여 反蘇的인 立場에서 正當化할 수 있으면 지지할 수 있다는 태도를 取하고 있다. 中共은 德탕트라든가, 감축과 같은 政策에 대해서는 強力하게 批判하는 立場을 표명하였다.

또한 美國과의 軍事關係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軍事的으로 重要하기보다는 상징적인 關係에 불과할지라도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데에 찬동하고 있다. 中共의 對蘇政策은 世界的인 範圍에서 蘇聯과의 影響力競争이라는 觀點에서 1950年代에 美國이 採擇했던 封鎖政策에 비유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中共의 對蘇政策과 1950年代의 美國의 封鎖政策에는 중요한 類似點이 있다. 특히 蘇聯은 本質的으로 膨脹主義勢力이라는 것, 또한 蘇聯指導層은 世界制霸를 위한 포괄적인 戰略을 가지고 있다는 것, 蘇聯의 이와같은 政策은 蘇聯의 政治體制와 經濟體制의

本質에 그 原因이 있다는 것, 그리고 大部分의 國際問題는 蘇聯과 餘他國家와의 對決이라고 주장하는 點에서 類似性을 찾을 수 있다.(18)

그러나 1950年代의 美國의 封鎖政策과 오늘날의 中共의 對蘇政策사이에는 중요한 差異點이 있다.

1950年代의 美國과 蘇聯關係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中共과 蘇聯의 國境紛爭은 兩國이 직접적인 軍事對決에 捲입할 수 있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國과는 달리 中共은 國力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蘇聯의 攻擊에 對항할 수 있는 友邦國家들과의 公式的인 同盟關係를 구축하지 못하고, 또한 海外에 軍隊를 주둔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點이다. 그와같은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기보다는 中共의 立場의 경우, 蘇聯의 膨脹을 저지할 能力이 있는 나라가 보다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役割은 實質的인 참여자라기 보다는 應援隊長과 같은 것이다.

(4) 展 望

앞으로 中·蘇關係가 눈에 띄게 改善될 展望이 있는가? 여기서 筆者는 中共과 蘇聯의 直接的인 軍事對決의 可能性이 적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中·蘇關係의 改善에 대한 展望을 論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와같은 對決의 可能性은 이미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筆者는 1969年以來 繼續되어온 中共과 蘇聯사이의 協商의 展望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筆者가 뜻하는 中蘇關係의 展望이란 1970年代初의 美國과 中共의 關係改善과

같은 展望이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즉 兩國의 高位政策立案者들의 交流, 무역과 科學文化의 交流의 大幅的인 增加, 兩國의 懸案問題의 解決을 위한 努力과 같은 國際問題에 대하여 兩國의 相互協力關係의 대두와 같은 狀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中共側의 觀點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關係改善이 이루어 지려면, 다음과 같은 여건中에 어느하나라도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中共의 國內政治의 變動으로 中共의 國際的 立場의 再定立이 있게 되는 경우

(2) 中蘇兩國關係의 發展, 특히 中國에 대한 蘇聯政策의 變化

(3) 中·蘇關係의 調整이 바람직하거나 또는 必要하게 하는 世界的 勢力均衡의 變化

國內的인 次元에서 最近의 中共의 指導層改編과 政策轉換으로 본래 中·蘇紛爭을 正當化했던 이데올로기적인 要素가 除去되었다는 점이 흔히 지적되기도 한다. 사실 中共指導層은 더이상 蘇聯을 “修正主義者”라고 언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蘇聯이 아직도 “社會主義”國家일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 중요한 事實은 中共指導者들이 東歐는 勿論이거니와, 蘇聯에서도 計劃經濟와 國有經濟의 改革方案의 例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의 國內政治的인 맥락에서도 과거 1960年代初에 毛澤東이 宣言했던 것처럼 蘇聯을 修正主義的인 發展이나 資本主義에로 復歸한 “否定的인 實例”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이미지에 대한 變化는 앞으로 中·蘇關係의

改善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主張은 어느정도 事實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點을 간과하고 있다. 대체로 國際的인 紛糾나 論爭은 처음 그와같은 紛爭이나 論爭을 유발했던 事態가 제거된 後에도 흔히 그 自体의 論理를 가지고 繼續된다는 事實을看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指導層은 蘇聯을 더이상 修正主義國家로 보고 있지않다는 點은 事實이다. 그러나 北京側은 現在 蘇聯을 世界制霸을 노리는 霸權勢力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1960 年代初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指導層의 評價로 말미암아 蘇聯에 대한 조심스러운 政策은 아직도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中蘇紛爭을 유발했던 이데올로기적 要素는 이제 단순한 歷史的 事實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中·蘇紛爭의 理論的 根拠는 두 強大國間의 보다 뿌리 깊은 地政學的 위치를 위한 競爭으로 대치되었다.

毛澤東의 死亡以後 中共에서 發生한 國內政治의 變化는 中共의 蘇聯에 대한 政策보다도 中共과 西方과의 關係에 보다 많은 影響을 주었다.

經濟的, 政治的 自由化實驗을 촉진하고, 急速度의 現代化를 達成하고자 하는 慾望에서 中共指導層은 前例없는 西歐, 日本 美國과의 새로운 經濟關係와 科學技術의 協力關係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1980 年代의 中共國內政治의 變化는 蘇聯과의

關係에 보다는 中共과 西歐世界の 關係改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鄧少平, 胡耀邦, 趙紫陽등이 企圖한 “自由化”改革이 政治的인 問題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國內政治의 左傾化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中·蘇關係의 改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中共의 近代化에 대한 어떠한 外國의 介入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對外貿易의 減少, 中國內에서 外國人의 活動에 대한 規制와 外國人에 의한 投資에 대한 냉담한 분위기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일 中共에 대한 蘇聯의 政策變化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中共의 國內政治의 變化보다 오히려 中·蘇關係改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中國側은 과거 10여년동안 中·蘇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一連의 조치를 要求한 바 있다. 즉 外蒙古에서의 蘇聯軍 撤收, 東아시아에서의 蘇聯兵力의 減少, 베트남에 대한 蘇聯의 援助중지, 中國과 帝政러시아의 國境條約의 不平等인정과, 中·蘇兩國의 紛争地域에 대한 非武装地帶設定등과 같은 中共側의 要求는 蘇聯이 받아들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點에서 中共에 대한 蘇聯의 当面狀況은 1960年代 後半에 美國이 当面했던 狀況과 유사한 點이 있다. 아이젠하우어, 케네디, 존슨行政府當時 美國側이 取했던 것처럼 蘇聯當局은, 北京에 대하여 一連의 協商提案을 하였다. 그러나 中共側의 基本的

인 要求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中共에 대한 蘇聯의 經濟協力을 再開할 용의가 있다는 式의 蘇聯側提案은 中共에게 食糧을 販賣하겠다는 케네디 行政政府의 提案이나, 中共과 美國의 言論人의 交流를 제의했던 존슨 大統領의 提案처럼 中共當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브레즈네프나 그의 후계자들은 中·蘇關係의 實質的 改善을 도모하려면, 美國의 닉슨 大統領이 대만에 대한 美國의 立場을 再定立할 의도를 표명했던 것처럼, 中·蘇關係의 基本問題를 고려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蘇聯의 指導層은 고도의 妥協性을 發揮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完全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現在로서는 바라기 힘들 것이다.

더 큰 關心거리는 北京指導層이 國際的인 勢力均衡의 變化로 蘇聯과의 關係를 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結論을 내릴 可能性이 없느냐는 것이다.

現在로는 그와같은 事態發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變化가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단계 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北京指導層이 美國은 信賴할 수 없거나, 抑壓的인 相對者라고 結論을 내리게 되거나 또는 美國이 아직도 第3世界에 대하여 霸權政策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中共指導層은 다시금 두개의 戰線戰略을 擇하여

두 超強大國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政策을 取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中·蘇關係의 실질적인 改善이 있을수 있기 위해서는 그 前에 中央指導層의 觀点의 變化가 있어야할 것이다. 즉 美國이 蘇聯을 대리하여 世界平和와 進歩의 主要위협이 되어, 따라서 美國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國際的 統一戰線을 구축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中·蘇關係를 改善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現在로는 첫번째 言及한 与件이 두번째의 條件보다 發生할 여지가 더 많다. 中共指導層은 이미 레이건行政府의 台灣政策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美國의 對中政策도 信賴性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北京當局은 美國은 第3世界에 對하여 아직도 “霸權的”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비난은 카터行政府의 後盤期에는 제기되지 않았었다. 中央아메리카, 南아프리카, 中東에 대한 레이건行政府의 냉담한 反應이 發展途上國에 대한 美國의 착취적 또는 非協助的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中共側은 주장하고 있다. 事實 中共指導層은 台灣에 대한 美國의 政策은 美國의 보다 넓은 政策變化의 實例에 不過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進歩的인 變化를 바라는 正當한 要求에 反하여 第3世界에서 美國의 利益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美國의 慾求의 발로라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指導層은 美國이 英國이나 仏蘭西와 같이 第2世界의 國家가 되었다는 主張에 袞기를 박고, 美國은 아직도 超強大

國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態發展의 論理的인 帰結은 中共側으로 하여금 中·美國交正常化 以前인 1970年代 中半期の 外交政策으로 復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當時 中共은 “世界 三等分 理論”에 따라서 美國과 蘇聯 모두를 “世界人民의 敵.”이라고 公式的으로 간주하였다. (19)

그러나 中共에게 보다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 蘇聯에 對항하는 統一戰線을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中共의 現代化에 必要한 美國의 技術을 獲得하기 위하여 戰術的인 次元에서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圖謀할 必要가 있었다.

이외에도 中·蘇關係의 改善이 있기 위해서는 北京의 指導者들이 蘇聯의 世界制霸를 위한 努力은 이미 그 절정을 지났으며, 蘇聯의 國際的인 勢力擴大는 스스로 統制할 수 없는 程度에 이르렀고, 蘇聯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수동적인 立場에 處하게 되었다고 結論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中共指導層들이 보기에 蘇聯은 아프카니스탄의 介入으로 손발이 묶이게 되었고, 폴란드에서 自由化의 壓力으로 난처한 立場에 빠지게 되었으며 인도차이나半島에서 蘇聯이 그의 同盟國인 베트남에게 決定的인 勝利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可能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結論은 1960年代末에 “美帝國主義”에 對한 中共側의 再評價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中共의 外交政

策에 대단히 중요한 變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蘇聯이 더이상 主要霸權勢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中共側은 美國과 蘇聯에 대하여 보다 等距離 外交政策을 擇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이던 北京과 美國의 關係는 惡化될 것이며, 蘇聯과의 關係는 改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態發展은 現在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中·蘇關係의 가장 그럴듯한 展望은 現狀維持라는 것이다. 中共에 대한 蘇聯側의 組織的인 攻擊은 그것이 制限攻擊이든 全面攻擊이든간에 現在로는 거의 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國境紛爭이 擴大되거나 또는 第3의 地域에서 相對國이 取한 行動에 대한 보복을 하려다 中蘇紛爭이 대규모 戰爭으로 擴大될 수 있는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中·蘇關係의 特徵은 國內政治問題의 論爭은 점점 저하될 것이며, 中·蘇國境地域에서 直接的인 緊張狀態는 緩和될 것이지만, 兩側은 繼續 相對方의 國際的 行動과 外交政策의 目標을 批判하면서, 第3世界, 特히 아시아에서 影響力の 擴大를 위하여 치열한 競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하여 協商提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根本적으로 敵對的이지만 그런대로 安定된 關係의 一環으로 결코 兩國關係의 根本的인 改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分明히 認識해야 할 것이다.

<註>

- (1) Steven I. Levine, "The Unending Sino-Soviet Conflict", *Current History*, 79:459 (October, 1980), pp70-74
- (2) 蘇聯共產黨 第20次 全党大會에 제시된 "잘못된 제안"에 對한 中共側의 批判에 對하여는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aders of the CPSU and Ourselves-Comment on the Open Let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I)", September 6, 1963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3)
- (3) 毛澤東 "On the Ten Major Relationships", April 25, 1956, in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V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7), pp284-307; and "Critique of Stalin's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Soviet Union", 1959, in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No. 61269-11 (February 20, 1974) pp191-99
- (4) "On Khrushchov's Phoney Communism and Its Historical Lessons for the World - Comment on the Open Letter of the CPSU (IX)", July 14, 1964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4)
- (5) "A Proposal Concerning the General Lin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June 14, 1963, in William E. Griffith (ed.)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4) pp.XXX

- (6) "The Letter from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to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CP," March 30, 1963, in Ibid, pp241-58
- (7) "A Proposal Concerning the General Line.....," op.cit.
- (8) 蘇聯에 對한 이와같은 評價에 對하여는
Liang Xiao "The Economic Root Cause of The Soviet Hegemonists'. Quest for World Hegemony," Honggi, No, 10 (1975),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after FBIS), October 15, 1975. pp.A4-9; and "Soviet Social-Imperialism-Most Dangerous Source of the World War," by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ociences, Honggi, No.7 (1977), in Peking Review, July 15, 1977, pp.4-10, 21
- (9) 이것은 원래 中共의 政治局内の 急進派와 알바니아의 指導層에 依해 批判되었던 論爭이었다. 이에 對하여는 Harding, "The Domestic Politics of China's Global Posture, 1973-1978," in Thomas Fingar et al. (eds.).
China's Quest for Independence: Policy Evolution in the 1970s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93-146
- (10) See, inter alia, Thomas W. Robinson, The Sino-Soviet

Dispute: Background, Development, and the March 1969

Clashes, RM-6171-PR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August 1970); Roger Glenn Brown, "Chinese Politics and

American Policy," *Foreign*, No.23 (Summer 1976), pp.2-

23; and Harvey Nelsen, "The Sino-Soviet Clashes of

March 1969: A Comment," *Contemporary China*, 1:3 (Decem-

ber 1976), p.12

(11) Richard Wich, *Sino-Soviet Crisis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12) See Harding, "The Politics of China's Global Posture."

(13) 毛澤東以後 中蘇關係에 對하여는 Robert C. Horn, "China

and Russia in 1977: Maoism Without Mao," *Asian Survey*,

XVII: 10 (October 1977), pp.919-30; and Jeffery B.

Goldman, "Chinese Policy Toward the Soviet Union After

the Death of Chairman Mao Tse-tung," *Contemporary China*,

2:2 (Summer 1978), pp 3-10

(14) 例를들어 鄧小平의 論評은 Beijing Review, May 19, 1980

P.5을 参照할 것.

(15) Wan-yi Bai-chia, December 20, 1979, in FBIS, April 14,

1980, pp.c1-2

(16) Der Spiegel, February 18, 1980, in FBIS, February 22,

1980, pp.A1-9.

- (17) 中共의 第3世界에 對한 政策에 對하여는 筆者의 "China and the Third World - From Revolution to Containment," in Richard H. Solomon (ed.), The China Fact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1) pp 257-95
- (18) 例를 들어 Pei Monong의 論文을 참조, in Renmin Ribao, July 9, 1981 pp.c1-3
- (19) 毛澤東의 世界三等分理論에 對하여는 Peking Review, Nov. 4, 1977, pp 10-41 을 참조

2. 中共의 外交政策의 變化

毛沢東은 1976年9월에 死亡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指導層問題, 政策路線問題는 그後 數年동안 決定되지 못했다. “四人幫”이 신속하게 除去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鄧小平과 그의 보다 實用主義的인 黨指導者들이 中共政治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때에는 毛沢東主義者들과 수년동안 激烈한 權力鬭爭을 하고나서인 것이다.

故毛沢東의 地位와 그의 思想에 대한 評價問題에 關한 主要한 鬭爭에서 鄧小平勢力의 勝利가 確定된 것은 1978年11月の 中國共產黨 第11次 3中全會에서 였고, ①鄧小平, 胡輝邦, 趙紫陽의 三頭體制가 公式的인 支持를 獲得한 것을 1981年6월에 開催된 第6中全會에서 였다. ②華國鋒과 그 支持勢力은 現在 弱화된 狀態이다. 그러나 앞으로 省單位와 地方單位의 肅清作業을 推進하려면 더 많은 時間이 걸릴 것이다.

1976 - 81年 사이의 毛沢東以後 中共의 外交政策은 國內政治에서와 같이 이와같은 과도기적인 性格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는 鄧-胡-趙의 外交政策路線과 國際社會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하겠다.

毛沢東以後 中共의 外交政策의 主題는 毛沢東의 “革命外交路線”에서 “現代化”外交로 代置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路線에 따라서 中共 指導層은 더이상 第3世界를 代表하는 指導者로 자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中共의 国力에 대하여 보다 現實的인 評價를 하고 世界問題에 대하여 보다 理性的인 接近方法을 摸索하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化外交”는 中共의 国内的인 必要와 發展과 보다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霸權主義에 對抗하고 同時에 技術과 資本을 獲得하기 爲하여 西歐와 日本과 같은 高度로 發展된 國家에 더욱 依存하는 것을 意味하며, 또한 外交政策을 追求하면서 보다 公開的이고 實用主義的인 立場을 取한다는 것이다.

(1) 現代化外交 (Modernization Diplomacy)

毛沢東主義者들의 外交政策에서 鄧-胡-趙의 三頭體制의 現代化外交政策에로의 變化는 1978年中의 新年社說과 1980年の 新年 論說에 反映되었다. 人民日報, 紅旗, 解放年報는 1978年の 新年社說에서 다음과 같은 毛沢東主義者들의 外交政策路線을 淸명했다.

<……對外關係에 있어서 우리는 世界를 三等分한 毛主席의 戰略概念을 踐지하고 毛主席의 路線, 思想, 政策을 遂行해 왔다.

우리는 帝國主義, 植民主義, 그리고 霸權主義에 對抗하는 世界人民의 正當한 鬪爭을 強力히 支持하며 超強大國들의 侵略과 戰爭政策을 反對하는 各國의 人民을 支援할 것이며, 모든 革命勢力과 進歩的 鬪爭을 견고하게 支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增強되는 國際的인 위신을 향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世界 各處에서 친구를 가지고 있다. >

(Beijing Review, Vol. 21, No. 1 Jan. 6. 1978, P8) 이에 比하여 鄧-胡-趙三頭體制의 外交路線은 1980年 人民日報의 新年社說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現在 戰爭의 威脅下에서 四大現代化를 推進하고 있다. 三個의 世界에 關한 黨의 戰略概念과 外交政策을 견지하면서, 우리는 다른 社會主義國家와 世界의 勞動階級과 進歩的인 勢力, 그리고 第三世界의 여러나라와 보다 密接하게 聯合할 것이다. 우리는 霸權主義에 對抗하고 世界大戰을 지연시키며, 世界平和를 保持하기 爲하여 聯合할 수 있는 世界의 모든 勢力과 協力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나라와 科學과 技術의 交流, 貿易關係를 擴大하고 外國의 先進的인 것은 모두 學習할 것이다. 自力更生과 勤苦奔鬪의 革命精神을 珍惜하는 同時에 우리는 先進的인 技術을 繼續 輸入할 것이며, 外國의 資本을 利用하여 四大現代化를 促進할 것이다. (Beijing Review Vol, 23. No. 1, Jan. 7, 1980 P.6) 이와같이 두개의 社說에 나타난 毛澤東主義者들의 外交政策과 鄧-胡-趙의 三頭體制의 外交政策을 보다 구체적으로 比較, 分析하여 아래와 같은 <圖式1>을 만들었다.

北京의 새로운 指導層이 毛澤東主義者들이 主張했던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를 拋棄했다고 단정을 내리기에는 時期尚早이다. 또한 毛澤東의 革命外交路線을 全적으로 否定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中共指導層은 “現代化外交”를 採択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것은 現實的이고, 점진적인 方法을 通하여

中国을 強大化하기 위하여 国内外의 모든 中国人들의 努力을 要求하고 있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圖式 1> 毛沢東 死亡以後와 以前의 中共外交政策의 特徵

	毛沢東主義 外交政策	鄧-胡-趙의 外交路線
国内政治의 主要 矛盾	人民 对 人民의 敵	人民의 점증하는 物質的 文化的 要求, 社会的 生産의 後進性
国际政治의 主要 矛盾	被压迫民族 对 帝国主義 와 社会, 帝国主義	蘇聯의 霸權主義 对 餘他 世界各國
世 界 觀	毛沢東의 世界三等分 理論	世界三等分理論을 原則的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美国과 第二世界에 보다 友好的임. 三等分理論에 대한 言及이 적고, 그것도 第三世界の 持導者에 게만 국한
바람직한 国际 狀況	革命을 초래할 수 있는 混難과 變化	中共의 現代化에 有利한 長期的인 安定
戰爭과 平和	世界大戰이 不可避하다	反霸權主義에 의하여 世界平和를 維持할 수 있다.
外交政策路線	毛沢東의 革命外交路線	現代化外交

目標, 優先順位	國家安保 國際的인 社會主義革命 現代化 대만의 統合	現代化 國家安保 대만의 統合 國際的 社會主義革命
外交政策의 수행 方法	一群의 指導層의 所望 이 우세함.	黨과 政府機關의 機能과 권한의 分명한 關係
宣 伝	두 超強大國 모두 反對 “世界도처에 친구가 있다”고 一방적으로 宣言	蘇聯의 霸權主義에 反對 : 친구와 敵에 대한 보다 現實的인 区分
外交政策路線	統一戰線을 強調 : 國力보다 意志를 強調	同盟體制의 強調 : 能力을 意志보다 強調
外交스타일	戰鬪的	온건로선

(2) 國內外政策의 새로운 現實主義

中共의 새로운 “近代化外交”에는 鄧小平의 實用主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現實主義가 反映되어 있다. 그와같은 現實主義를 보다 구체적으로 體系化한 것은 <實踐만이 真理檢證의 唯一한 基準이다>라는 哲學的인 言句이며, 이에 따라 鄧小平 勢力은 政治, 文芸, 經濟等 모든 分野에서 毛沢東主義者들과 論爭을 展開하였다. (4) 1978年 11月 以前에는 소위 “汎是派”와 “實用主義派”의 論爭이 있었다. 汎是派는 過去 10여年間 文化革命 期間동안 權力에 오른 指導者들이 中心이 되어 毛沢東과 毛의 路

線을 堅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實用主義派는 當대의 改革派로서 中國大陸을 毛의 路線에서 解放시킬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면서 毛思想 자체도 實踐的인 檢證을 거쳐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論爭에서 實用主義派는 여러가지 中共政治의 大失手, 이를테면 大運動이라든가 保山鉄鋼کم플렉스 問題, 過度한 經濟發展計劃등에 대한 責任을 汎是派가 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事實 華國鋒과 그의 支持勢力이 繼續 革命路線을 고집하는 한 그와같은 失策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또한 事實과 客觀的인 經濟法則에 입각한 金利的인 政策을 推求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다. (5) 따라서 革命路線을 主張하는 汎是派를 敗北시킴으로써 實用主義派는 中共의 새로운 時代를 開幕할 수 있었다.

鄧-胡-趙의 새로운 現實主義的 路線은 國內政策의 變化를 가져왔다. 즉 政治意識보다는 知識을 活用하게 되었고, 革命性보다는 專門性을, 命令主義보다는 法에 의한 統治를 主觀的이고 集團主義的인 努力보다는 客觀的인 經濟法則을 強調하게 되었다. 또한 毛路線으로부터 마음을 解放시키려고 努力해야 한다고 하였고 教育政策에 있어서도 入試制度를 復活시켰으며, 各級 政府機關의 再整備와 地方單位에서의 選舉 實施, 企業에로의 權限移讓과 같은 措置를 取하였고, 農村地域에서는 自留地와 利益分配制度를 再導入하였다. 또한 非現實的인 大規模의 工業發展計劃을 縮小·調整하고 統計 숫자를 發表하며, 文學과 藝術分野에서도 조심스럽게 自由

化改革을 실시하였다.

外交政策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새로운 現實主義的인 立場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變化를 초래하였다. 過去의 失策과 短点을 認定하고, 中共의 外交政策의 目標를 보다 現實的으로 定立하는가 하면, 外交政策은 四大現代化에 대한 对内政策과 보다 緊密하게 連結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毛沢東의 外交政策路線이 全的으로 否定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毛沢東의 戰鬪的인 外交政策方法과 스타일이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中共의 外交스타일은 보다 公開的이고, 유연성을 띠게 되었고 國際的인 慣例를 더욱 尊重하는 方向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中共의 새로운 指導層은 毛의 外交路線에 대하여 정말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는 姬鵬飛의 演說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中共政府의 副總理兼 中國共產黨의 對外部長인 姬鵬飛는 1979年6月에 開催된 第5期 全人代 第2次會議中에 中共의 外交官들 모아놓고, 過去의 中共外交政策路線은 “大多數의 國家가 받아들일 수 없는 理論”과 “잘못된 口號”를 내세움으로써 外國人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다고 宣言하였다. 例를들어 姬는 “世界는 大亂에 빠져 있으며 混亂이 加重되면 그럴수록 더욱 좋다”는 口號나 或은 “現在 世界는 社會主義革命 段階에 돌입하고 있다”는 理解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毛沢東이 내린 指示에 따른 것이며, 姬는 그 모두를 철저하게 批判했던 것이다. 姬에 의하면 過去 10여年

内の 過誤는 蘇聯의 世界戰略을 事實상 強化해주었으며 많은 西方國家들로 하여금 中共에 대하여 警戒와 恐怖를 가지게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姬는 “實踐에 의한 檢証”의 重要性을 再次 強調하면서, 모든 理論,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그리고 毛沢東의 理論을 實踐을 通하여 檢証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指導者들의 演說은 그와같은 演說을 하게 된 時代的, 狀況的 條件을 考慮하지 않고 그대로 適用하려 한다는 過誤를 犯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中共의 外交政策이 國內政治와 보다 密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다. 例를들어 1978年 12月에 開催된 第3中 全会에서 陳雲은 政治局에 復權되었고, 이때 陳은 現代化야 말로 党的 中心政策이라고 宣言한 바 있었다. 1981年의 6中全会는 “1949年 以來의 党歷史의 약간의 問題에 관한 決議”를 採択하고 “社會主義的 改造가 基本的으로 完成된 以後” 党和 國家의 業務를 階級鬭爭에서 社會主義現代化에로 轉換시키지 못한 것 에 대하여 自我批判을 하였다. 이 決議에 따르면 中共은 앞으로 “外國으로부터 大規模의 侵略을 당하지 않는 한 社會主義現代化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하면서 “戰爭狀態에서도 여건이 許容하는 한 經濟發展을 主要政策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그러기 爲해서는 “모든 党幹部들, 특히 經濟分野에 종사하는 幹部들은 科學과 技術은 물론이거니와, 經濟理論과 經濟的 實踐을 부지런히 學習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와같은 觀点에서 볼 때, 1978年12月の 3中全会가 開催되
기 2個月半前에 中·日友好平和条約이 해결되었고, 3中全会가 開
催되기 2個月前에 1979年1月1日을 期하여 美国과의 国交 正
常化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宣言하게 된 것은 흥미로운 사
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979年1月1日에 中共 当局은 대
만과의 統一을 위하여 包括的인 協商案을 제시한 것도 重要한
事件中的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세계의 事件은 그하
나하나가 中共外交政策의 分水嶺이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보아 中
共의 새로운 指導層은 現代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一括的인 變化
를 企圖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같은 觀点에서 본다면 1978年12月 以後 中共의 對外關係
의 變化를 쉽게 理解할 수 있다. 즉 1979年1月 以後 새로
운 表紙를 가지고 登場한 北京週報와 같은 對外宣傳出版物은 現
代化와 關聯된 問題를 다루는 紙面을 增大하였고, 中共内外에서
科学과 技術關係의 活動이 增加되었고, 中共과 西歐의 先進国, 특
히 日本과의 往来가 頻繁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數千名의 中共學生이 海外留學을 가게 되었고, 廣東과
福建省은 特別經濟地區로 設定되었는가 하면, 1979年7月1日에는
中国과 外国間의 合作投資에 관한 法이 制定되었으며, 外国人投資
管理委員會가 設立되기도 하였다. 또한 中共의 對外交易量이 增
加하고 世界銀行과 國際通貨基金(IMF)에 加入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것은 모두 “現代化外交”의 實踐을 證明해 주는 것

이다. 여기서 한가지 케이스는 특별히 考察해 볼 만하다. 즉 保山の 鋼鐵工業團地에 關하여는 언급한 바가 있다. 원래 그것은 上海近郊에다가 年間 6億屯의 高級質의 鋼鐵을 生産해 낼 수 있는, 고도로 정밀한 工場團地를 建設할 計劃이었다.

이를 위하여 1978年 後半期에 日本鋼鐵会社들과 巨額의 建設 契約을 締結했었다. 그러나 陳雲이 權座에 들어선 直後 保山の 工業團地의 計劃은 다른 大規模事業과 마찬가지로 中斷되었다.

保山工業團地의 計劃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결함이 많다고, 특히 場所選擇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明白했다. 이에 따라서 國際的인 損害賠償請求가 있게 되었고, 日本과 中共은 協商을 通하여 妥結하고자 하였다. 결국 第一段階의 計劃은 再確認되었으나 第二段階計劃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서 中共側은 契約違反으로 發生한 損害를 賠償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約 22個의 부수적인 建設事業은 그대로 推進하기로 하였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에 의하면 中共의 保山鋼鐵工場團地計劃은 처음부터 잘못 計劃된 것이며, 中共當局은 不必要한 事業에 대하여 資金을 낭비하는 오류를 犯했다고 지적하였다.(8)

鄧小平과 陳雲은 中共의 國際的인 信用과 威信이 상실될지도 모르는 危險性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와같은 失策을 中止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決定은 根本的으로는 中共의 全般的인 調整政策과 保山에 關한 구체적인 資料에 입각하여 내린 것이며, 그 結果는 그

런대로 滿足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中共이 國際的인 慣例에 따라서 契約條件을 준수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現代化外交의 將來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証拠이기도 하다.

(3) 貧弱한 巨人과 役割의 縮少

한때 “아시아의 病者”라고 불리우던 中國은 過去 30年 동안 強大해졌다. 中·蘇紛爭以後 北京當局은 自主的인 外交政策을 追求해왔고, 獨自的인 核武裝을 開發했으며, 美·日등을 비롯한 世界各國과 公式的인 友好關係를 樹立했다. 이와같은 中共의 發展과 또한 人民戰爭論이나 “중이호랑이”理論과 같은 毛澤東主義者들의 宣傳으로 말미암아, 中共을 世界問題에 直接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巨人國家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9)

그러나 中共의 새로운 指導者들이 毛澤東의 革命口號로 장식된 假面을 던져 버리고 文化大革命의 傷痕을 公開함에 따라서 實제의 中國의 면모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강도의 世界”에서 皮압박 民族을 代辯한다고 스스로 自勉하던 그런 挑戰的이고, 強大한 中國이 아니라 스스로의 問題를 많이 안고 있고, 그다지 發展되지도 않은 그런 中國이었다.

中國이 美·蘇의 超強大國과 도저히 比較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明白하다. 中國은 물론 人口와 天然資源이 豊富하다. 그러나 中國의 人口는 여러모로 資產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中國의

發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中国의 天然資源은 대체로 開發되지 못하고 있으며, 農業을 除外하고는 充分히 利用하지 못하고 있다. 中国의 軍事力은 現在 世界 3位이지만, 그것은 貧弱한 3位이며, 中共軍事力은 地域的 重要性은 있어도 世界的 次元에서는 별다른 影響力이 없다. 中共은 産業能力, 經濟發展, 그리고 科学과 技術의 水準이란 側面에서는 分明히 弱한 나라이다.

John Franklin Cooper의 1980年 研究結果는 이와같은 中共의 弱勢를 보여주고 있다. (11)

다음의 圖表 2와 3은 이와같은 中共의 位置를 더욱 分明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附加할 수 있는 것은 1979年의 베트남전쟁과 1979年 以来의 經濟政策의 조정과 改革은 中共의 軍事的 經濟的 弱點을 公開했다는 点이다. (12)

圖表 2 主要 強大國의 基本的인 指標

	美 國	蘇 聯	中 共	日 本
領土 (1,000 km ²)	9,363	22,402	9,597	372
人口 (1,000) 1979年 中盤期 推산	219,773	263,206	965,279	115,835
GNP(US\$ million) 1978年	2,135,010	967,820	219,010	884,500
1人當 GNP (US\$ dollar)1978年	9,590	3,710	230	7,700
1人當 에너지 소비 (석탄 kg:1978年)	11,374	5,500	805	3,825

※ 1980年 World Bank Atlas
World Development Report, 1980

圖表 3

美·蘇·中共의 軍事力

	美 国	蘇 聯	中 共
현역兵力	2 million	3.7 million	3.6 million
核 武 器	9,200	5,000	350
장거리미사일	1,710	2,426	2
戰 鬪 機	6,015	5,879	5,500
탱 크	12,675	50,000	11,000
항 공 모 함	13	2	0
主 要 戰 艦	167	273	25
潛 水 艦	73 nuclear 7 diesel	87 nuclear 162 diesel	1 nuclear 91 diesel

※ Newsweek, June 9, 1980, P.4

제럴드 세갈 (Gerald Segal) 에 의하면 北京当局은 強大国政治라는 “게임” 을 잘 理解하고 있지만, 中共의 融通性없는 反蘇外交政策은 中共에게 利得보다는 損失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하였다. “妥協的인 側面과 對立的 側面을 적절하게 配合하지 못함으로써” 中共은 美·中·蘇 三角關係를 有利하게 利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갈」에 의하면 中共은 中·蘇關係의 「데탕트」를 發展시키는 것이 有利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세갈」은 中·蘇紛爭의 結果로 兩極體制는 美·中·蘇의 三角關係가 發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中共은 美國과 蘇聯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했다”는 것이다.

1961年의 라오스危機 以後 中共은 이러한 三角關係의 参与者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中共자신도 美·蘇兩大國에 關하여 그 나름대로의 政策을 發展시켜왔다. 처음에는 蘇聯側에 가담하여 韓國에서 美國과 戰爭을 하였다. 그다음 蘇聯에 失望하고는 美國과 蘇聯을 모두 敵으로 하고 대담하게도 中共을 中心으로 하는 “革命的인 聯合戰線”의 結成을 主張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蘇의 兩大國을 모두 敵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不安感을 느끼고 美國과 聯合하여 反蘇戰線을 構築하는 새로운 “革命路線”으로 轉換했던 것이다.

둘째로, 「세갈」에 의하면 “이와같은 三角關係에서는 各國은 兩極體制와 같이 한 나라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同時에 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反蘇外交政策만을 고집함으로써 그와같은 三角關係에서 融通性 있는 役割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갈」의 理論에 의하면 中共도 美·蘇兩大國과의 孤立政策”으로부터 美·蘇兩大國과의 和解政策으로 轉換하여 美國과 蘇聯을 各各 利用하여 中共의 利益을 追求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美·中·蘇의 三角關係에서 美国과 蘇聯이 中樞的인 役割을 번갈아 해왔다는 「세갈」의 分析은 洞察力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国도 美国과 蘇聯과 같이 三角關係에서 中樞勢力이 될 수 있으며, 美国과 蘇聯과 같은 役割을 해야한다는 「세갈」의 主張은 說得力이 없는 것이었다. 「세갈」은 基本的으로 對立均衡을 바탕으로 한 三角關係의 均衡모형을 美·中·蘇의 三角關係에 適用하기 前에 우선 美国과 蘇聯의 国力에 比較하여 中共의 国力을 考慮했어야 한다. 中共의 国力과 그 限界를 考慮할 때, 中共이 과연 美国이나 蘇聯과 對等한 立場에서 三角關係를 自國에 有利하게 利用할 能力이 있을지가 의문이며, 따라서 中·蘇關係의 데탕트가 반드시 中共에게 有利하게 作用하리라는 保障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美·中·蘇의 三角關係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中共은 三國中에서 가장 国力이 弱한 나라이며, 따라서 三角關係에서 被動的인 立場에 있다는 것을 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毛沢東과 그의 추종자들은 意志가 能力을 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고, 따라서 中共은 国力에 있어서는 弱하지만, 國際的인 統一戰線을 通하여 長期的인 革命鬪爭을 展開할 意志만 있다면 中共보다 強力한 敵을 敗北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5)

이와같은 생각은 中国内戰當時 우세한 国民党에 대하여 共產黨이 勝利할 수 있었다는 中共의 革命經驗에서 추출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두가지 側面에서 이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지

적할 수 있다.

첫째로, 오늘날의 蘇聯을 中国国民党 (KMT) 와 比較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中共의 國際的인 敵國에 對抗하는 統一戰線의 결성은 共産黨이 国民党에 對抗하는 統一戰線을 결성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같은 國際的인 統一戰線이 組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中共이 指導的인 立場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毛沢東路線의 아이로니는 中共이 第3世界에 속하는 가난한 發展途上國이라고 主張하는 反面에, 또 한편으로는 美·蘇·中의 三角關係에의 第3의 強大國처럼 行動하려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16) 사실, 中共은 第3世界의 大多數의 國家들과 共通點보다는 差異點이 많으며, 또한 三角關係에 있어도 美·蘇보다 훨씬 制限된 役割밖에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必要가 있다. 中共은 中共과 美國의 利益이 일치하는 한 「美國카드」를 對蘇關係에 利用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와 反對로 「蘇聯카드」를 對美關係에 利用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中共은 第3世界의 몇 나라를 中共側으로 끌어들이고, 第3世界의 問題에 대하여 世界舞臺에서 發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中共을 第3世界의 一員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中共은 蘇聯이나 美國의 支援에 依存하는 立場이지, 결코 美國이나 蘇聯에 대하여 中共이 支援할 수 있는

立場은 아닌 것이다. 이와같은 여건은 1949 年の 中共政權의 樹立以來 繼續될 것이다. 따라서 自力更生이란 蘇聯이나 美國의 支配, 또는 지나친 影響力으로부터 自由로와지려는 中共의 決意를 意味하는 것이지, 결코 蘇聯이나 美國을 中共이 생각하는 方向으로 물고 갈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17)

中共은 經驗을 통하여 蘇聯을 모방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結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한때 蘇聯은 中共에 대하여 相當한 支援을 提供했었지만 中共이 支払한 댓가는 너무 비쌌다는 것이 判명되었다. (18)

中共의 經驗으로는 蘇聯과 蘇聯의 위성국가나 同盟國間의 關係에서 公平한 關係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은 蘇聯과의 그와같은 關係를 다시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외에도 生産增大를 위하여는 西方의 技術과 商品이 훨씬 더 우수하고 必要하다는 것을 中共은 알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蘇聯과 같지 않으며, 蘇聯은 美國과 같지 않다. 中共과 美國의 問題는 國家利益의 衝突에서 발생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인, 葛藤에 그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만일 中共에 대한 美國의 威脅이 아직도 存在한다면 그것은 領土問題는 아니다.

그러나 歷史적으로 蘇聯의 中共에 대한 威脅은 領土問題를 수반한 것이었다. (19) 따라서 中·蘇間의 國家利益의 差異는 보다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根本的인 国家利益의 対立이 없
는 美·中間의 關係는 兩國이 이데올로기적인 差異를 두고 兩國의
共通的인 国家利益을 追求하는 方向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蘇關係의 和解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共通的인 이데
올로기를 爲하여 国家利益을 犧牲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點을 考慮하면 中·蘇關係의 改善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可能하
지도 않다는 點을 理解할 수 있다.

現在 中共의 外交政策은 보다 現實的인 觀點에서 樹立·執行되고
있고, 이것은 國際的인 安定과 平和維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
다. 北京當局은 자주 “中共은 威脅的인 強大國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言明해 왔다. 아마 中共의 指導層들은 中共의 国力
의 限界를 認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미 言及
한 바 있는 姬鵬飛의 1979年 演說은 흥미로운 變化를 시사해
주고 있다. 姬는 一部 海外에 派遣된 中共의 外交官 가운데는
中共內亂當時 자신들의 軍人으로서의 個人的인 榮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와같은 자랑은 外國人들의 尊敬
心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中共은 왜 그와같은 軍人을
外交官으로 派遣했을까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主張하였
다. 따라서 그는 李先念副首相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海
外에 派遣된 外交官과 高位官僚들중에서 大國主義의 傾向을 보이
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20)

(4) 安定追求와 反霸權主義

中共이 現代化外交를 展開하면서 世界 各國과의 關係에서 變化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中共의 對外關係의 變化를 다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中共과 美·蘇關係, 中共과 아시아諸國, 특히, 日本, 아시아共同體國家(ASEAN) 인도네시아와의 關係에 초점을 맞추어 中共의 外交活動을 살펴보고자 한다.

(A) 中共의 反蘇運動

1980年9月 鄧小平은 이탈리아의 新聞記者인 오리아나 파라시(Oriana Fallaci)와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第2次大戰以來, 특히 韓國戰爭과 베트남戰爭以後, 美國의 勢力은 急激히 退潮했고, 美國은 後退를 繼續해 왔다. 오늘날 美國은 수세에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美國은 蘇聯을 두려워하고 있다. >

鄧小平은 繼續해서 蘇聯의 戰略目標은 유럽이고, 戰爭이 發生한다면 반드시 유럽에서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럽問題 때문에 戰爭이 發生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심지어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이나, 페르시아灣을 지배할 수 있는 蘇聯의 인도양 進出政策도 유럽을 包圍攻略하려는 蘇聯의 戰略에 속한다고 한다. (21)

이와 같은 鄧小平의 主張은 世界的인 次元에서 蘇聯의 戰略을 評價하려는 中共當局의 見解를 代辯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中共의 反蘇霸權主義의 基本論理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論理에서 中共은 蘇聯에 對抗하는 広範圍한 나라들의 統一戰線을 구축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鄧小平은 中共에 대한 蘇聯의 威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言及하지 않았으나 암암리에 蘇聯의 威脅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國家安保와 國際平和라는 次元에서 反蘇 反霸權主義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22)

이와 같은 中共의 強力한 反蘇路線은 蘇聯의 체코侵攻과 中·蘇 國境地域에서 武力衝突이 發生한 以後로 繼續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事態로 말미암아 中共은 有名한 「핑퐁外交」를 通하여 1972年에는 마침내 中·美關係의 轉換點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毛沢東이 死亡한 後 蘇聯側은 中·蘇關係의 改善을 위하여 毛의 後繼者와 接觸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蘇聯側의 제의에 대하여 北京當局은 냉담한 反應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은 鄧-胡-趙의 三頭體制下에서도 基本的으로 變化되지 않았다. 오히려 現代化外交를 推進하려는 中共의 努力은 中共의 反蘇立場을 더욱 強化시키고 合理化시켜 주었다.

中共과 蘇聯사이의 國境問題에 關한 協商은 1976年 11月과 1977年 12月, 1978年 4-6月에 있었으나 별다른 進展이 없었다. (23)

1978年 11月에 蘇聯은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을 締結하였고, 同年 12月에 베트남軍은 캄보디아를 侵攻했다.

1979年1月 폴포트(Pol Pot)政權은 헝삼린(Heng Samrin)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의 傀儡政權으로 대치되었다. 1979.2中共은 베트남戰爭을 遂行하였다. 蘇聯과 베트남의 同盟關係와 베트남의 膨脹主義政策은 中共의 南部地域의 安保問題에 대하여 中共의 警戒心を 가중시켰다. (24)

1979年4월에 中共側은 30年동안 繼續되어온 中·蘇友好協力條約을 廢棄하기로 決定하였고, 同時에 中共과 蘇聯사이의 諸問題에 關하여 協商할 것을 蘇聯側에 제의하였다. 그와 같은 會談은 1979年9월에 開催될 예정이었으나,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1980년에는 中共은 美國에 同調하여 모스크바올림픽경기에 不參하였다. (25)

또 한편으로 中共은 다른나라, 특히 日本과 美國과의 條約에서 反霸權條項을 挿入할 것을 要求하였다. 이와같이 中共의 反蘇運動은 加速化되어 왔다.

(B) 中·美關係의 改善

鄧小平勢力이 国内政治分野에서 決定的인 勝利를 거둔 第3中全会直後인, 1979年1月1일에 中共과 美國은 公式的인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었다는 點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當時 美國의 駐中大使였던 레오나르드·우드코크(Leonard Woodcock)에 의하여 여러가지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을 섰다고 한다.

이와같은 中·美關係改善은 中國의 利害關係에 중대한 것이었다. 鄧小平은 對外的으로 孤立된 中國에게 必要한 것은 美國이나 日

本같은 勢力을 利用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強化시키는 것이란 點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美國에서 鄧은 蘇聯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強力한 事實상의 同盟者를 찾았으며, 또한 資本과 科學技術 및 經營技術 등의 供給源을 찾았던 것이다. 적절한 過程을 거쳐서 中國은 美國으로부터 高度로 發達된 軍事裝備을 供給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였다.

1979年1月以後 中國과 美國사이의 交換協力關係는 급속도로 增加되었다. 現在 中共의 副首相이며 國家科學技術委員會主任인 方毅와 美國大統領 科學技術特別補佐官인 프랭크 프레스 博士(Frank Press)를 共同議長으로 하는 合同科學技術委員會가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하여 1979年1月 鄧小平의 美國訪問前에 締結된 美·中科學技術協力에 관한 14個條項에 달하는 協定을 管理하고 있다. 그외에도 中共과 美國을 文化交流, 國際的 크레임에 관한 約定, 受惠國 대우에 관한 協定과 交易協定, 民間航空協定 등을 締結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26)

1972年과 1978年사이 美·中雙方交易量은 美貨로 40億弗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9년에만 20億弗이 되었고, 1980년에는 48億弗이었으며, 그중 37億54萬弗은 美國의 輸出量이었다.

1981년에는 美·中の 交易量은 約 60億弗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까지 美國의 輸出品은 대체로 米과 農産物, 纖維製品이었고, 最近에 機械類와 運輸産業에 關聯된 品目이 增加되고 있다.

現在 中共은 美國의 海外輸出入銀行 (EXIM Bank) 와 海外民間 投資協會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의 信用借款을 얻을 수 있는 資格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또한 美國과 中國간의 貿易 및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美·中合同 經濟委員會가 樹立되었다.

1980년에는 約 100 명의 中國代表들이 每月 美國을 訪問하였고 約 100,000 명의 美國인들이 中國을 訪問하였다. 1981年初에는 約 6,000 명의 中共學生들이 美國留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의 商務省長官인 말콤 볼드리지 (Malcolm Baldrige) 에 의하면, 새로운 中國과의 交易으로 말미암아 約 150,000-200,000 個의 職業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1981年1월에 實施한 輿論 調查結果, 中共은 캐나다 다음으로 美國인들이 關係發展을 바라는 나라이라고 보고하였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以後 美國의 國防長官 헤롤드 브라운 (Harold Brown) 이 1980年1월에 中共을 訪問하고, “美國과 中共의 協力增進은 世界平和維持에, 必要한 要因”이라고 宣言하였다. 브라운의 中國訪問은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品目에 대한 美國側의 輸出統制를 自由化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中共에 대하여 방어용 軍事裝備를 販賣할 수 있는 길을 트게 하였다. 또한 美國과 中共은 西南아시아의 問題와 그 보다 더 広範圍한 國際 問題에 대하여 正규적으로 協議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樹立 하게 되었다.

1980年5月末에 中共의 耿飈副首相과 中共軍高位官吏들이 美国을 訪問하였다. 이때 美国의 國務省 東아시아, 太平洋地域 担当 次官補 리차드 홀브르크(Richard Holbrooke)는 1980年6月4日에 開催된 美·中貿易全國大會에서 美国의 中國政策에 關하여 演說하였다. 홀브르크는 美·中關係는 단순히 美国과 蘇聯의 關係라는 次元에서 理解될 것이 아니며, 美国의 利害는 中國이 強力하고 平和로우며 安定된 國家로 성장하는데 있다고 宣言하였다.

또한 그는 브라운 長官과 耿飈副首相의 交換訪問으로 美国과 中共은 相互國防體制에 關한 정규적인 接觸과 對話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홀브르크의 演說을 듣고 많은 關係者들도 카터行政府는 中共과 蘇聯에 대하여 더이상 等距離外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推測을 하게 되었다.

1981年6月 美国은 中國과 協力하여 蘇聯의 미사일 實驗을 探知하고자 中共의 西部地域에 극비의 電子情報蒐集所를 設置運營하고 있다는 사실이 公布되었다. (28)

그러나 1980年 後半期에 들어와 美·中關係는 레이건의 對臺灣政策으로 말미암아 마찰을 내기 시작하였다. 1979年에 通過된 臺灣關係法(The Taiwan Relations Act)을 준수하겠다는 레이건의 選舉公約, 특히 臺灣에 대하여 방어용 武器를 販賣하고 사실상 臺灣政府를 認定한다는 政策에 대하여 北京當局은 強力하게 항의하였다. (29)

中共側의 견해로는 이와같은 美国의 행위는 中國의 國內問題에

대한 内政干渉이며, 1978年12月18日의 共同声明의 위배라는 것이다. 中共의 態度를 더욱 分明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北京當局은 臺灣에 두대의 潛水艦을 販賣한 네델란드政府의 措置에 항의하여 中國과 네델란드 外交關係를 格下시키고 네델란드의 大使를 出国시켰던 것이다.

1981年6월에 레이건大統領은 알렉산더 헤이그 國務長官을 中共에 派遣하여, 美國은 臺灣과 中共에게 모두 방어용 武器를 販賣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헤이그가 제안한 販賣目錄에는 탱크攻擊用 로켓트地對空미사일등이 包含되어 있었고, 高度로 정교한 戰鬥機의 販賣도 可能하다고 시사하였다.

헤이그는 또한 中共軍의 副參謀總長 劉華清이 곧 美國을 訪問하여 武器購入을 위한 商談을 하게 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31)

그러나 中共이 레이건의 中共과 臺灣에 同時에 武器를 販賣하는 政策을 受諾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問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鄧小平은 이와같은 問題가 다른 分野에서 中國과 美國의 協力關係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美國과의 和解를 通하여 많은 利得을 얻는 것은 中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臺灣問題는 그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鄧小平은 臺灣問題를 美國과의 關係와는 別途取扱하려고 하는 것이다.

(C) 中·日 友好關係

中·日友好關係를 推進하는 中共의 속셈은 中·美關係에서

와 마찬가지로 日本을 反蘇統一戰線에 가담시키고, 日本으로부터 中共에게 必要的 資本, 科學技術등을 吸收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과 中共의 關係는 中·美關係보다도 훨씬 더 發展되었다.

日本과는 軍事的인 關係가 없지만 그외의 分野에서는 美國과의 交流보다도 훨씬 더 깊은 交易關係를 가지게 되었다. 臺灣問題도 比較的 兩國이 滿足할 수 있는 側面에서 妥結되었다. 保山 工業團地때문에 發生했던 中國과 日本間의 마찰은 그런대로 相互利益과 互惠의 原則에서 해결되었다.

日本과 中共의 貿易量은 급속도로 增加되었다. 1978年 日本에 대한 中共의 輸入額은 美貨로 31億弗이었고 輸出額은 19億弗이었다. 1979년에는 輸入이 37億弗, 輸出은 28億, 1980년에는 各各 53億弗과 44億弗로 增加되었다. 中共이 輸入하는 品目은 半이상이 機械裝備類이며, 輸出品은 대체로 기름과 석탄이다. 한때 中共 原油의 日本輸出이 減少된다는 憂慮가 있었지만, 日本財務省의 최신 報告書에 의하면 1981年度 前半期에 中共의 對日 原油輸出은 繼續 增加되고 있다. 中共은 現在 4번째로 큰 日本의 輸出市場인 것이다. (32)

사실 中共과 日本의 關係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1978年 8월에 中·日平和友好條約이 締結되고 난 다음부터이다.

이와같은 條約을 締結하는 過程에서 中·美關係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難點이 있었다. 제일 어려운 問題點은 反霸權條項이었다. 新聞報道에 의하면 鄧小平은 1978年 3月 中共을 訪問

中인 日本指導者들에게 “霸權主義에 反對하는 것이 共同行動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特定한 나라를 지칭할 必要도 없다”고 確約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中·日平和友好條約이 “兩國의 다른 나라와의 關係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條項을 添加하게 되었다. 中·日條約의 締結로 말미암아 영성하게 나마 美·日·中의 三国同盟關係가 實現되었던 것이다. (33).

그後 中共과 日本은 모든 分野에서 頻繁한 交流를 發展시켜 왔다. 1980年12月에는 中共과 日本은 閣僚會談까지 가지게 되었다. 日本側으로 보아서는 巨大한 潛在力이 있는 市場을 얻게 되었고, 中共의 立場에서는 中·日交易을 財政的 뒷받침할 수 있는 巨額의 신용차관을 받게 되었다. 때때로 中共側은 日本의 北海島地域의 島嶼地方에 대한 日本과 蘇聯사이의 論争에 關心을 表明하여, 日本側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이와같은 內政干涉에 대한 日本의 예민한 反應을 感知하고 中共側은 自重하는 것 같다.

이와같은 側面에서 본다면 現代化外交를 繼續하는 한 더욱 發展할 것이다.

(D) 中共과 아세안國家

한때 中共은 東南아시아에서 일종의 中共影響圈을 형성하 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中共은 AS- EAN 國家들이 安定되고 團結하여 反共과 反中共政策이 아니라 反 蘇政策을 推進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中共의 새로운 東南아시아政策은 ASEAN 國家들에 의하여 그다지 歡迎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東南아시아에서 中共이 問題點에 當면하게 된 背後에는 여러가지 要素가 있다.

中国華僑問題라든가, 中共이 이 地域의 共產集團과의 關係를 斷切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크메르루즈 (Khmer Rouge)에 관한 中共의 支持立場이라든가, 南支那海의 領有權主張과 같은 要素가 中共과 東南아시아諸國과의 關係發展을 沮害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海外華僑問題를 다루기 위하여 1980年9月10日 새로운 國籍法을 採択하고 종전의 二重國籍을 認定하는 政策을 拋棄하였던 것이다. (34)

海外에 居住하는 華僑는 그 나라의 國籍을 取得하도록 하고 자기가 選択한 나라에 대하여 忠誠을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華僑는 中共의 南部地域에 있는 친척들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大部分의 華僑들의 生活樣式은 ASEAN 諸國의 原住民들과 다른 점이 많아서 問題點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華僑들이 居住地域의 生活樣式에 適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 地域의 民族主義者들의 攻撃의 目標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는 感情이 介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解決될 수 없는 狀態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45歲以下の 華僑들의 中共訪問을 嚴格하게 統制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中共과의 外交關係를 正常化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中共의

出版物이 自国内에 搬入되는 것을 嚴格하게 禁止하고 있는 実情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中国華僑에 대하여 公開的인 差別政策을 取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처형된 華僑를 위하여 中共이 항의하는 것이나, 또는 海外華僑들의 投資를 誘置하려는 中共의 努力은 이 地域의 華僑問題를 더욱 惡化시켰다. (35)

東南아시아諸国에서 共産党和 共産主義 運動에 대한 中共의 支援은 오래前부터 아세안諸国の 指導者들의 反感을 사왔었다.

北京当局은 가끔 政府側面과 党側面의 政策이 서로 다른 二重關係政策을 실시해왔다. 中共에서 急進派가 우세할 때면 国家对 国家的 關係는 党和 党的 關係보다 下位에 있게 되었다. 中共当局이 아세안諸国에 있는 共産主義集團을 繼續 支持하는 한, 언제 다시 党和 党的 關係로 돌아갈지 모른다. 따라서 ASEAN 国家는 中共의 東南아政策에 대하여 회의적 態度를 取하고 있다.

中共의 새로운 指導層은 이와같은 아세안 国家指導者들의 疑懼心을 除去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우선 共産集團에 대하여 中共은 物質的인 支持보다는 道德的인 支持만으로 滿足하고, 国家的 關係를 強調하였다. 1979年6月 姬鵬飛는 中共의 새로운 政策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36)

<以前の 方法은 한편으로는 友好關係를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나라의 既存指導體制를 비난하는 것이었고, 그와같은 方法만이 團結과 鬪争이라고 할 수 있는 듯이 생각했다.

그와같은 方法이 오늘날에도 좋은 것인가? 우리는 말레이시아와 協力하여 ASEAN의 平和地域案을 支持하면서, 말레이시아의 共産黨과 말레이시아 民族解放戰線은 아직도 北京에 半公式的인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이것은 中共과 말레이시아의 關係에 影響을 주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지닌 國際主義者로서의 의무를 完遂하기 위해서 許容한 것이다……>

이와같이 中共側은 새로운 立場을 理解시키려고 努力하였으나, 東南아시아諸國들의 反應은 別로 好轉되지 않았다. 이들은 中共이 말보다는 行動으로 政策의 變化를 보여주기를 要求하는 것이었다.

1981年1월에 말레이시아의 不法化된 共産黨의 가장 重要한 指導者인 무사아마드 (Musa Ahmad)는 25年の 中共亡命을 清算하고 쿠아라룸푸에 나타나 말레이시아當局에 自首하였다.

北京側은 政治的 亡命者에게 귀국하여 사면을 받으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37)

1981年7月에는 中共領土에 있는 말레이시아革命放送이 中斷되었다. 趙紫陽, 黃華와 같은 巨物級中共指導者들의 ASEAN諸國의 訪問이 있었고, ASEAN國家의 指導者들을 北京으로 招請하여 東南아시아諸國의 理解와 協力을 獲得하려고 努力하였다.

1981年8月 ASEAN 4個國 巡訪過程의 첫 訪問地인 마닐라에서 趙紫陽首相은 그 地域에 있는 共産集團에 대한 中共의 새로

은 立場을 상세히 說明하였다. (38)

東南아시아의 共産黨과 中共의 關係는 中共이 東南아시아諸國과 公式的인 關係를 가지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歷史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中共은 最近에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들 共産集團에 대한 中共의 支援은 “단지 政治的이고 道德的인 것”이라고 하면서 趙紫陽은 東南아시아諸國을 安心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그는 中共의 그와 같은 關係를 모두 斷切해 버리면 이들 共産集團은 蘇聯과 베트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여간 中共은 ASEAN 諸國이 安定, 繁榮, 團結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中共은 이들 國家의 國內問題에 干涉하지 않겠다고 約束하였다.

그러나 ASEAN 諸國의 指導者들은 中共의 立場이 불투명하며, 納得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는 베트남이 ASEAN 諸國의 最大의 危險이 아니라고 지적함으로써 物議를 惹起했었다. (39)

싱가포르의 李光耀首相은 趙紫陽을 歡迎하는 만찬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0)

<ASEAN 諸國中에서 더 좋은 社會, 더 살기 좋은 經濟生活을 이룩하기 위하여 共産主義나 共産黨이 必要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모든 ASEAN의 政府는 그들의 共産主義者들을 外部로부터의 援助와 干涉때문에 威脅的인 存在가 되고 있다고 確信하는 것이다>

1981年9月末 李光耀는 멜버른에서 開催된 40個國의 英聯邦會

議에서 東南아시아諸國은 中共과 美國의 同盟關係와 現代化된 強力한 中共이 登場할 경우 그 長期的인 影響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疑懼心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1)

이와같은 警戒심 의 배후에는 南支那海의 스프라트리群島 (Spratly Islands)에 대한 中共의 領土的 野心과 캄보디아問題로 中共과 ASEAN 諸國의 UN에서의 對立등이 있다. 스프라트리群島에 관하여 中共은 조심스러운 態度를 取하고 있지만, 完全히 拋棄한 것은 아니다. (42)

캄보디아問題에 關하여 中共의 크메르루즈 (Khmer Rouge) 武裝論은 東南아시아의 中立化에 대한 中共의 立場을 의심하게 하는 主張이었다. 現在 中共은 妥協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으나 ASEAN 國家들과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지 못했다.

(E) 中共과 베트남

鄧小平은 왜 베트남이 中共을 배반했는지 理由를 모르겠다고 托로한 적이 있다.

<우리 中國人들은 베트남이 왜 中共에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 理由를 전혀 알수 없다. 베트남의 오랜 民族獨立鬪爭 過程에서 베트남은 中共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원조를 받았다.

그것은 犧牲的인 원조였다 거의 200 億弗에 달하는 것이었다. 中國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게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와같은 背信感과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은 마침내 中共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대하여 懲罰을 決行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나 鄧小平 自身이 認定하였듯이, 越베트남戰은 “많은 나라들이 中共의 行動에 贊成하기 않았기 때문에” 別다른 效果를 보지 못했다. ④

現在 베트남은 COMECON의 一員이 되었고 蘇聯의 同盟國 되어 坎란 (Kam Ranh) 灣의 港灣施設을 包含하여 別개의 軍事基地를 蘇聯에 提供하고 있다. 中共이 베트남을 “東方의 쿠바”로 規定하고 “大小의 霸權國家와 鬪爭할 것”을 要求하는 것은 當然하다.

鄧小平의 베트남政策은 가장 非妥協的이다. 심지어는 反蘇政策보다도 더 非妥協的인 一面이 있다. 이와같은 強硬政策의 原因中의 하나는 中共의 캄보디아政策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에 中共이 시아누크公의 亡命을 許容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中共은 캄보디아問題를 가지고 하노이側과 미묘한 對立를 繼續해 왔다. 하노이側은 처음부터 中共이 인도차이나半島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싫어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中共側의 立場에서 본다면 蘇聯이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中共의 影響力을 確保해둘 必要가 있다고 判斷했던 것이다. 이것은 蘇聯과 인도의 同盟關係가 必然的으로 中共과 파키스탄의 同盟關係로 번져나가게 된 狀況과도 같다.

따라서 베트남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占領은 中共側에게 대단히 當혹스러운 問題를 제기하였고, 中共은 삼린 (Samrin)의 베트남傀儡政權을 反對하고자 온갖 努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81年7월에 뉴욕에서 開催된 캄보디아問題에 関한 國際聯合會議에서 中共은 ASEAN 5個국이 準備한 解決案과 別途로 自身の 캄보디아問題에 関한 解決策을 提示한 바가 있다.

ASEAN 國家들은 캄보디아의 4個政派, 즉 손산의 KPNLP, 시아누크의 NUF, 펜소반派, 그리고 헝삼린의 PRP를 모두 招請하자고 主張했던 반면에, 中共은 두개의 当事者, 즉 캄푸치아의 크메르루즈와 베트남만을 招請할 것을 제의하였다.

中共은 모든 当事者들의 武装해제와 베트남의 撤収以後 自由選舉를 실시하자는 ASEAN의 제의에 반대하였다. 中共側의 立場은 現段階에서는 當分間 베트남에 對한 저항을 繼續하기 위하여 크메르루즈는 武装해제에 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中共의 提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SEAN의 提案이 우세했다. (44)

1981年9月末에 크메르루즈의 民主캄보디아는 國際聯合總會에서 ASEAN 國家들과 中共 및 美國의 協力으로 過去 2年동안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信任投票를 獲得하였다. 그러자 中共은 ASEAN 國家가 마련한 시아누크公, 손산, 크메르루즈의 名目上的 指導者 三頭聯合을 지지하였다. (45)

그後 캄보디아問題에 對한 中共의 立場은 약간 緩和되었는데 그것이 中共의 베트남政策을 보다 融通性있게 해 줄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F) 中共과 臺灣, 홍콩, 韓國問題

1979年1月以後 中共은 臺灣側에게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한 相互交流와 協商을 통한 平和統一政策을 제의하고 있다. 1981年10月10日에 北京政府는 대대적인 辛亥革命30周年 記念式을 거행하고 孫文등 辛亥革命關係人士에 대하여 讚揚하였다. (46)

臺灣政府는 이와같은 中共의 제의를 일축하고 이와같은 中共政府의 의도는 美國政府로 하여금 臺灣에게 戰鬥機를 販賣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연극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動機가 무엇이든 또 結果가 어떻게 나타나든, 한가지 分명한 사실은 臺灣海峽의 분위기는 이 地域의 平和維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問題에 대하여 鄧小平과 中共指導者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홍콩에 投資하는 사람들은 홍콩의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損失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질 必要가 없다고 확약하였다.

홍콩에 대한 租借權이 滿了되는 1997년에 대하여 北京의 新聞은 거의 言及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北京當局의 의도가 무엇인지 不分明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中共이 홍콩에 대한 中共自身の 利益을 威脅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믿고 있다.

北京當局은 中國의 主權과 홍콩의 現在의 資產을 모두 確保할 수 있는 平和的인 解決方法을 摸索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간 鄧小平政權은 中共의 近代化에 있어서 홍콩의 價值를 充分히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中共, 英国, 홍콩当局의 緊密한 關係로 보아서 홍콩問題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鄧小平의 의도와 計劃이 아닌 것만을 들림없다. 韓國問題에 있어서 中共의 立場은 北韓을 韓國의 合法政府로 認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北韓에 대하여 蘇聯과 競爭關係에 있으며, 中共의 韓國政策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中共을 支持하게 하거나, 최소한 蘇聯側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北韓과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하고 經濟協力과 軍事援助를 提供할 것을 約束하며 高位官吏의 相互交換을 推進하고 있다.

1978年9월에 鄧小平自身이 平壤을 訪問하여 中·日平和友好條約에 대한 金日成의 不滿을 해소하려고 努力하였다. 1979年7월에 黃華와 姬鵬飛는 美國이 제의한 와싱턴-平壤-서울의 三國會議를 拒否한 北韓을 公開發적으로 支持하였고 金日成의 와싱턴과 平壤의 兩者會議를 支持하였다.

그러나 中共과 日本, 中共과 美國의 關係가 改善되면서 中共은 南·北韓과의 關係도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 같다. 아직도 駐韓美軍의 撤収를 要求하고 民主的 運動에 대한 南韓政府의 彈壓을 비난하면서도 中共은 南·北韓에 대한 새로운 政策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80年5月 鄧小平은 日·中友好協會의 會長인 우토미아 토쿠바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47)

<金日成이 蘇聯을 訪問한지가 20年이 되었다. 우리는 北韓

問題를 가장 明白하게 알고 있다. 北韓은 南韓을 侵攻할 의도가 없다. 金日成은 聯邦制와 自治에 입각한 合理的인 統一方案을 提案하였다. 問題는 美軍이 아직 南韓에 駐屯하고 있고………레이건 行政府는 심지어 南韓에 大量의 武器를 提供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이 南韓을 侵攻할 의도가 없다는 이와같은 確約은 當時 日本을 訪問中인 華國鋒도 하였다. 華國鋒은 韓國에서의 緊張狀態는 中共과 西方世界의 關係에 障礙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現在 中共의 公式的인 立場은 南北韓間의 高位層의 直接協商을 통한 平和的인 統一을 贊成하고 있다. 韓國國民들이 그들의 問題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臺灣問題에 대한 中共의 立場과 같다.

그러나 北京當局은 南韓과의 貿易關係를 가지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1981年의 여러 方面에서 나오는 報道에 의하면 香港을 中繼로 하여 南韓과 中共의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大量의 中共産 석탄을 南韓이 輸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과 南韓의 關係는 金日成이 사라진 이후에는 더욱 活潑해질 것으로 豫상된다.(48)

(5) 結 論

中共의 새로운 指導者들은 中共의 外交政策을 이데오르거적인 次元에서 現實政治的인 次元으로 轉換시켰다. 따라서 中共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에 對抗하는 世界的인 階級鬭爭보다는

反霸權主義를 強調하고 있다.

反蘇主義를 強調하고 美國을 包含한 広範圍한 世界諸國의 反蘇 統一戰線을 提唱함으로써 中共은 世界政治의 東·西區分을 拋棄하였다. 또한 中共은 第3世界와의 關係보다도 西歐의 先進國家와의 關係에 더 많은 比重을 둠으로써 中共은 南·北問題보다는 中共自身の 現代化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中共의 이러한 外交政策은 1970年 中盤期以後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와같은 中共의 變化는 中共의 大衆生活의 向上을 위해서도 有益할 뿐 아니라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와 安定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註>

- (1) "Communique of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eking Review, Vol.21, No. 52 (December 29, 1978), pp.6-16
- (2) "Communique of the Sixty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CPC," Beijing Review, Vol.24, No.27 (July 6, 1981), pp.6-8
Byron S.J. Weng, "Limited Openess, Cautions Expectations;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ixth Plenum of the 11th CC," Qishi Niandai, No.139 (August 1981), pp.8-16
- (3) 中共外交政策의 變化에 對한 畢者의 見解 "Chiness Foreign Policy and the Achievements and Errors of Mao Zedong," Mingbao Monthly, Vol.15, No.11 (November 1980), pp.22-31
를 참조할 것.
- (4) 人民日報, 1978.6.6.
- (5) Hu Qiao mu, "Observe Economic Laws, Speed up the Four Modernizations," Peking Review, Vol.21, No.45, 46, 47 (Nov. 10, 17, 24, 1978)
- (6) Zhong Bao, March 10, 1980, p.2.
- (7) Resolution on certain Questions in the History of Our

party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Review, Vol.24, No.27 (July 6, 1981), p.36

- (8) Robert Delfs, "Bailing Out Bao Sh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13, No. 38 (Sep. 11, 1981), pp.65-66.
- (9) Harold C. Hinton, Three and a half Powers: The New Balance of Powers in A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 China: Inside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Bantam Book, 1972)
- (10) Edward Friedmann, "On Maoist Conceptualizations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China Quarterly, No.80 (Dec. 1979), pp.806-837
- (11) John Franklin Cooper, China's Global Role: An Analysis of Peking's National Power Capabilities in the Context of an Evolving International System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0)
- (12) Daniel Tretiak,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China Quarterly, No.80 (December 1979), pp.740-767
- (13) Gerald Segal, "China and the Great Power Triangle," China Quarterly, No. 83 (September 1980), pp.490-509.

- (14) Joseph Camilleri, Chinese Foreign Policy; the Maoist Era and its Aftermath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especially pp.157 ff., and 187 ff.; Robert G. Sutter,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Cultural Revolution, 1966-1977 (Boulder: Westview Press, 1978), pp.85-104
- (15) J.D. Armstrong, "Revolutionary Diplomacy: Chinese Foreign Policy and the United Front Doctrin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16) King C. Chen, ed., China and the three Worlds; A Foreign Policy Reader (White Plains: M.E. Sharpe, 1979), Chapters I and III
- (17) Lin Piao, Long Live the Victory of People's War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 (18) 中共外交 與 對外關係 (台北, 1973, 第2部中 一章)
- (19) John W. Garver, "The Sino-Soviet Territorial Dispute in the Pamir Mountains Region," China Quarterly, No.85 (March 1981), pp.107-108.
- (20) Zhong Bao, March 15, 1980, p.2
- (21) The Guardian, Sep. 21, 1981, pp.17-18 and Sep. 28, 1980, pp.17-18.
- (22) June T. Dreyer, "The Role of Ethnicity in the Sino-Soviet Dispute," in F.Gilbert Chan Ka-che Yip, eds.,

- op. cit., pp.8-37)
- (23) Chiang Tao,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ino-Soviet Relations," 中共研究 Vol. 13, No. 9 (Sep. 1979), pp.83-98
- (24) 人民日報社論 "Soviet and Vietnamese Hegemonists' True Colours, Dec. 16, 1978, English Version in Peking Review, Vol.21, No.51 (Dec. 22, 1978), pp.16-19; and "Social-Imperialist Strategy in Asia," Beijing Review, Vol.22, No.3 (Jan. 19, 1979), pp.13-16
- (25) 中共이 國際올림픽委員會에 再加入된 것은 1979年11月 26日이었다. 그 以後 1個月만에 中共은 1980年 모스크바올림픽에 참가하기를 拒否하였던 것이다.
- (26) "Two Years of U.S.-China Relations," Washington, D.C., Jan. 1981,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Reprint)
- (27) "US seeks Economic Partnership with China," USICA, Foreign Policy Background, FP-81-59
- (28) Newsweek International, Jun. 29, 1981, p.8
- (29) "US 'Taiwan Relations Act'," Beijing Review, Vol.24, No.2 (Jan. 12, 1981), pp.9-11
- (30) "China Asks for Lower-Level Sino-Dutch Diplomatic Relations," and "Safeguard Chinese National Dignity," Beijing Review, Vol. 24, No. 4 (Jan. 26, 1981), pp. 9,

- and 10-11; and "Dutch Government's Bad Decision," Beijing Review, Vol.24, No.9 (March 2, 1981), p.22
- (31) Newsweek International, Jun. 29, 1981, pp.8-11; and "China Won't Accept U.S. 'Balanced Arms Sale'," Beijing Review, Vol. 24, No. 25 (Jun. 22, 1981), pp.11-12
- (32) "China-Japan Trade Continues to Expand," Autumn Canton Trade Fair Supplement, to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8, 1981, p.5.
- (33) "New Stage in Sino-Japanese Relations," Beijing Review, Vol. 24, No. 50 (Dec. 15, 1980), pp.7-8 and 9-10)
- (34) C.Y. Chang, "The Nationality Law of the PRC-A Plain Discussion," Qishi Niandai, No.129 (Oct. 1980), pp. 17-18.
- (35) C.Y. Chang, "Overseas Chinese in China's Policy," China Quarterly, No.82 (Jun. 1980), pp.281-303.
- (36) Zhong Bao, March 15, 1980, p.2
- (3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III, No.3 (Jan. 9, 1981), p.11
- (38) "Premier Zhao at Press Conference," Beijing Review, Vol.24, No.33 (Aug. 17, 1981), p.8.
- (39) K. Das, "Threat? What Threat?" Far Eastern Economic

- Review, Vol. 113, No. 35 (Aug. 21, 1981), pp 13-14
- (40) Susumu Awanohara, "Zhao's Testing Time," Ibid.,
pp.11-13
- (41)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2, 1981, p.28
- (42) "China's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Xisha and
Nansha Islands," Beijing Review, Vol.23, No.7 (Feb.
18, 1980), pp.15-24
- (43) "Correct Approach for Solving Sino-Vietnamese Disputes,"
Beijing Review, Vol. 22, No. 18 (May 4, 1979),
pp.18-19, 28
- (44) Nayan Chanda and Michael Richardson, "First Round to
ASE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13, No. 30
(Jul. 17, 1981), pp. 13-14.
- (45) Paul Quinn-Judge, "An Arranged Marriag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13, No. 38 (Sep. 11, 1981),
pp. 8-9
- (46) David Bonavia, "Deng's Double Tenth Due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13, No. 39 (Sep. 18, 1981),
pp. 10-11
- (47) "Deng Xiao Ping and Zhao Ziyang Talk to Foreign Guests,"
Zhen Xiang (The Truth), No. 33 (n.d.; ca sep. 1981),
pp. 11-13.

(48) Asia 1980 Year book (Hong Ko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0, p.23.

3. 東歐共產圈의 經濟危機

1980年代初에 東歐의 相互經濟協力機構(CMEA or COMECON)에 속한 共產國家들은 深刻한 經濟危機에 當面하고 있다. 經濟分野의 모든 領域에 經濟危機는 波及되고 있는 實情이다. 工業生産의 成長이 低下되었는가 하면 頻繁한 穀物生産의 失敗는 農業分野에도 深刻한 打擊을 주고있으며 經濟內的 構造는 低開發狀態로 남아있는 形便이다. 投資가 鈍化되고, 實質所得이 低下하는가 하면, 항상 西方産業國家들의 商品에 比하면 低質인 消費商品의 供給이 더욱 惡化되고 있다. 雪上加霜으로 대부분의 COMECON 國家들은 對外經濟關係에서 深刻한 貿易赤子を 안고 있으며 不利한 國際収支問題로 말미암아 外國에 對한 負債가 增加하고 있는 形便이다. 폴란드와 같은 나라는 이미 支払能力의 限界點에 到達하여 負債償還計劃을 再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東歐共產圈의 經濟危機의 조짐은 이미 1960年代 上半期에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經濟危機는 그前보다 더욱 顯著해진 것이다.

(1) 社會主義 經濟의 순환발전 理論에 對하여

이와같이 頻繁한 東歐圈의 經濟不況은 다음과 같은 疑問을 提起한다. 즉 中央에 依하여 統制되는 計劃經濟體制도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마찬가지로 經濟危機에 當面하게 되는가? 社會主義 經濟의 景氣變動 사이클과 어떻게 다른가?

東歐 共產主義國家의 經濟學者들은 過去에는 이러한 質問을 모두 無視하였다. 景氣變動은 資本主義의 生産樣式과 無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景氣變動의 原因과 그 展開過程에 대한 論理를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無分別하게 適用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1) 이들에 依하면 資本主義經濟의 景氣變動사이클에는 絶對적인 經濟活動의 下落이 있지만 社會主義國家의 計劃經濟에서는 經濟成長을 促進하거나 鈍化할 수는 있어도 退步的인 發展 (regressive developments)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와같은 理論에 對하여 두가지 側面에서 異論을 提起할 수 있다. 즉 / COMECON 國家中에서 몇몇 나라들은 이미 1962年과 1963年에 마이너스 成長率을 記錄하였으며, 最近에는 또 다시 그와같은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第二次大戰이후 西歐의 市場經濟에 있어서도 政府의 經濟政策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沮止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點이다.

그러나 西歐의 市場經濟와 東歐의 計劃經濟內에서 다같이 찾아볼 수 있는 經濟變動의 原因은 서로 다르다는 點을 指摘해야 한다. 東歐圈의 經濟變動은 經濟的 潛在力에 對한 지나친 壓迫, 즉 供給과 能力의 制退에 依하여 招來되는 것이지만, 西方經濟의 循環은 大體로 需要則面의 問題로 發生하는 것이다. (3)

그러나 中央에 依한 計劃經濟를 實施하는 社會主義國家에서 經濟成長의 變動은 주로 反復되는 資源의 過多壓力으로 發生되는

것이고 需要則面의 問題點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充分히 納待할 수 있지만, 그 反對의 論理를 資本主義經濟에 適用하는데에는 조심하여야 한다. 1970年代와 1980年代에 西歐産業國家의 經濟不況은 원래 에너지, 供給의 制約에 依하여 觸發되었고, 그것은 에너지쪽의 價格暴發에 依하여 인플레이션과 商品과 서어비스의 均衡을 破壞했으며, 結局은 安定爲主의 디플레이션 政策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經濟成長 變動의 메카니즘은 著名한 經濟學者에 依하여 分析, 說明되고 있다. 例를들어 카레키(Kalecki)와 같은 學者는 計劃經濟體制에서 計劃된 成長率이 適正線을 넘게 되면 어떤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證明하였다. (4) 특히 規模가 작고 보다 産業化 되어있는 社會主義經濟에서 基本産業의 成長은 製造業의 必要를 充足시킬 만큼 發展하지 못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經濟成長의 目標을 너무 높게 策定하기 때문에 鉅産業에 對한 生産과 投資計劃은 대부분 達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製造産業部門의 投入장애(input bottlenecks)를 誘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料의 障壁은 原料가 不足한 나라에서는 對外貿易의 障壁과 連結되게 된다는 것이다. 高度成長 政策은 輸出成長의 可能性 以上으로 輸入을 增加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巨額의 海外貿易欠損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農業의 低成長可能性도 비슷한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産業勞動力과 非農業生産分野의 貨幣所得이 高度成長政策의 結果로 急激

하게 上昇하는데 反하여 特히 投資가 集中되는 産業分野에서는 더욱 急激한 所得上昇을 가져오는데, 그에 따를 만큼 食糧生産의 增加가 없을 때는 問題가 深刻해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適正生産率以上の 高度成長政策으로 發生하는 不均衡과 장애는 經濟成長의 速度를 強制로 減少시킴으로써 겨우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政策은 새로운 能力, 特히 原料産業分野에서 새로운 生産增加가 이루어질 때까지 繼續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生産과 投資活動의 減速化政策을 維持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能力의 開發을 推進하면서 結局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回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段階에 가서는 또 다시 樂觀的인 計劃目標을 設定하려는 傾向이 대두할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資源에 對한 過多한 圧迫은 計劃樹立 當時의 지나친 期待感과같은 主觀的인 要素에 依하여 觸發되는 것이며, 그 후의 減速化政策은 既存能力에 對한 調整의 必要때문에 不可避하므로 이러한 現象을 보고, 골드맨과 쿠포바(Goldmann and Kouba)의 表現을 빌린다면 社會主義經濟는 類似循環(quasi cycle)을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그러나 골드맨과 쿠포바와같은 체코 슬로바키아의 經濟學者들은 어떤 特定한 環境에서는 計劃樹立이 作動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投資사이클과 在庫品蓄積사이클을 보다 嚴格하게 分析하였다. 適正線을 超過하는 經濟成長의 加速化現象은 野心的인 投資計劃과 그로 因한 投資의 過熱化現象과 一致한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여러가지 投資計劃을

同時에 始作함으로써 그러한 事業을 計劃된 時間내에 完遂
할수 없게되며, 그 結果 未完成된 事業으로 資金과 原料와 中間生産
品과 勞動力이 묶이게 되어 經濟成長에 阻與하지 못하게 된 뿐
만 아니라, 이와같은 資本, 勞動力, 製品의 蓄積은 繼續되며, 그
동안 貨幣所得은 增加했음에도 不拘하고 消費率이 下落된다고 하
였다. (6)

따라서 投資活動의 全般的인 鈍化가 不可避하게 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生産의 減速成長과 低投資政策이 實施된 때에는 그
以前에 始作된 投資의 目標가 드디어 作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特히 鉅産業과 基本産業分野에서 投資目標가 達成되면서
漸次로 原料장애의 問題가 解決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低成長政策에 依하여 原料와 半製品에 대한 輸入必要가 減少되므
로 貿易의 均衡도 回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成
長産業의 加速화와 投資活動의 與件이 다시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골드먼과 코오바에 依하면 이와같은 社會主義 經濟의 成長變動
은 在庫品蓄積의 싸이클에 依하여 더욱 促進된다는 것이다. 社
會主義經濟体制의 企業들은 原料나 半製品 投入上의 問題點이 發
生하면, 그에 対処하기 爲하여 이미 그들의 在庫品蓄積을 增加시
킨다는 것이며, 이와같은 企業의 反應은 이미 눈에 띄기 始作한
供給上의 緊張을 加速化시킨다는 것이다. 그 反對로 低成長政策으
로 그와같은 問題가 사라지게 되면 現金需給을 改善하기 爲해서
在庫品을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가지 境遇에 모두 企業의

反應은 어느정도 遲延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企業은 그 瞬間의 實際狀況에 對하여 反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리라는 期待感에 바탕을 두고 反應을 한다는 것이다.

카레키나 골드만 또는 코우바는 이와같이 適正線을 超過하는 成長率을 目標로 삼게되는 自發主義(Voluntarism)의 反復行爲가 왜 있게 되는지에 對하여는 詳細한 研究를 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研究不足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前述한 經濟成長의 變動을 “政治的인. 「싸이클(Political cycle)」이라고 하는 皮相的인 結論에 到達하였다. 經濟成長의 減速化는 客觀的인 原因이 있다고 認定하면서도, 經濟成長을 加速化시키는 要因을 지나친 動員計劃(Mobilizing Plan)의 設定과같은 主觀的인 要因에 있다고 하는 것은 政治家들이 結局은 過去의 經驗으로부터 教訓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論理는 政治家들이 지나간 失策을 繼續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것을 頻繁히 約束함으로써 結局에는 經濟危機를 繼續 招來한다고 假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結論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社會主義의 計劃經濟의 經濟政策에는 政治家와 經濟機能官僚사이의 갈등이 潛在하고 있다고 結論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經濟政策을 經濟官僚에게 맡겨버린다면 經濟危機는 回避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野心的인 計劃을 樹立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經濟의 過熱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經濟危機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解釋은 例를들어 카레키의 다음과같은 主張에서 도출할 수도 있다. “國民經濟의 年平均成長率은 当期 計劃을 樹立하는데 가장 重要한 指標라고도 生覺할 수 있다. 그러므로 正確한 計劃變數를 選擇한다는 것은 事實上 國民所待에 適切한 成長率을 選擇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7) 그러나 카레키는 黨指導層이 왜 高度成長率을 選擇하는지에 對하여는 仔細하게 言及하지 않았다. 골드먼과 코우바는 이보다는 한발 더 나가, 成長率의 極大化를 指向하는 主觀主義的인 傾向이 항상 있었다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計劃樹立과 經濟政策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自發主義가 아무런 制約없이 通用될 수 있는 것은 特定한 環境에서만 그랬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加速的 過程이 비록 個人的이고 主觀主義的인 判斷에 依하여 惹起되었지만, 또한 特殊한 客觀的인 根柢가 있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다른 研究에서 이들은 “經濟計劃과 統制의 傳統的인 모델에 그와같은 主觀主義的인 傾向이 內在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8) 그러나 大體로 이들은 行政的으로 統制되는 計劃經濟에서 實質的인 經濟變動에 對하여는 別다른 注意를 기울이지 않았다.

2) 소비에트 類型의 經濟体制와 非適正 成長計劃 樹立의 原因

카레키나 골드먼이 폴란드의 改革經濟學者인 부르스(W. Brusse)가 指摘한 “社會主義 經濟의 作用”(the functioning of

the social economy)에 대하여 或은 헝가리의 改善主義者들이 指摘한 소위 “經濟的 메카니즘”(Economic mechanism)의 問題에 대하여 徹底하게 파괴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카레키는 經濟決定權의 分權化와 같은 經濟改革에 대하여 별로 神經을 쓰지않았다. 그리고 골드만은 체코슬라바키아의 經濟改革에 關한 理論的인 立場이 發展되었던 1960年代 中半期에 오타시크(Ota Sik)의 追從者라기 보다는 그의 敵對者라고 認定되었다. 따라서 앞서 指摘한 問題에 解答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부르스(Bruss)이거나, (9) 或은 分明하게 말하자면 시크(Sik)와 같은 經濟學者들이다. (10) 傳統的인 計劃經濟와 統制經濟의 모델에 潛在되어 있으며, 機會가 약간만 있으면 항상 適正線以上の 成長率을 賦與하려는 그런 主觀的인 傾向의 出處는 무엇인가? Sik는 社會主義 經濟에서 計劃指針書에 依하여 運營하고, 企業의 成功與否에 따라서 報償과 刑罰을 주는 過程에서 企業內에 集團利益이 登場하게 되었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市場經濟에서는 利益이 企業의 成功與否를 가리는 基準이 되고 있으며, 不實한 經營에 對한 刑罰로는 損失이 있거나 破産이 있다. 그러나 中央에 의해 統制되는 소비에트式 計劃經濟體制에서는 報償이 뒤따르는 成功의 判斷基準은 計劃의 完遂 또는 超過達成에 있으며, 反面에 計劃을 達成하지 못하면 處罰을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企業經營에 對해서 企業內의 真正한 集團利益이 存在한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定해진 計劃目標을 達成하거나

超過達成하면 프리미엄과 稱讚을 받는 것은 經營者뿐만이 아니라 企業全体가 利得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賃金引上이 許容되고 企業内の 人間關係, 即 勞動分困氣가 向上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計劃을 達成하지 못하면 賃金の 引下措置가 있을지도 모르고 勞動規則이 強化되며, 때로는 더많은 生産量을 同一한 賃金を 받으면서 生産해 내지않을 수 없는 狀態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같은 事情으로 各 企業은 經濟計劃을 樹立하는 段階에서나 또는 그것을 執行하는 段階에서 特殊한 行動樣式을 取하게 된다. 즉, 經濟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上級機關이 各 企業의 生産增加可能性과 必要한 投入量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는데; 이때 企業의 主場은 可能하다면 自身이 가진 生産潛在力을 最小化하고, 그 反面에 에너지, 原料, 勞動力, 投資金등 必要한 投入에 對해서는 最大化하는 傾向이 있다. 이렇게 해서 企業은 餘裕가 있게 計劃分担을 策定받아서 別다른 危險負擔이나 努力을 들이지 않고 計劃을 達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企業이 주는 잘못된 情報가 累積되면, 經濟計劃은 實際로 必要한 것보다 더많은 投入을 前提하는 結果가 나타나게 된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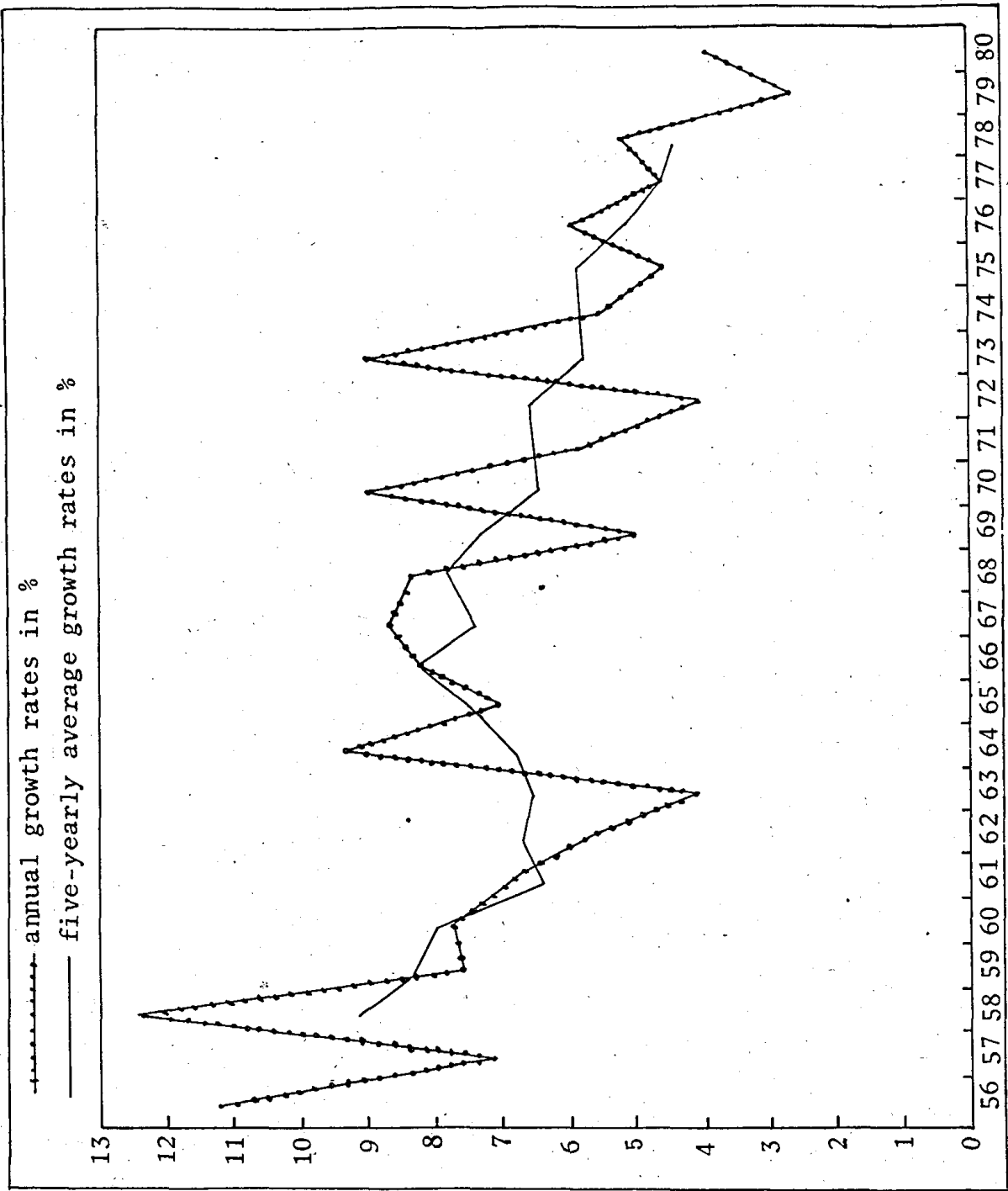
이段階에서 投資, 에너지, 勞動力, 原料등의 均衡狀態를 維持하려는 過程이 始作된다. 보통 그것은 企業이 要求하는 投入量을 減少시키고 企業이 提案한 것보다 生産目標를 增加시킬 必要가 있게 된다. 企業은 이와같은 過程을 알고 있으므로 그 自信의 生産計劃을 提案할 때에 어디인가에 餘分の 備蓄을 남겨서 스스

로防禦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企業의 行動樣式으로 말미암아 計劃經濟는 항상 定期的으로 投資過剩의 狀態가 일어나며, 長期的으로는 基本産業과 重工業分野가 消費財産業보다 重要親되는 經濟構造를 發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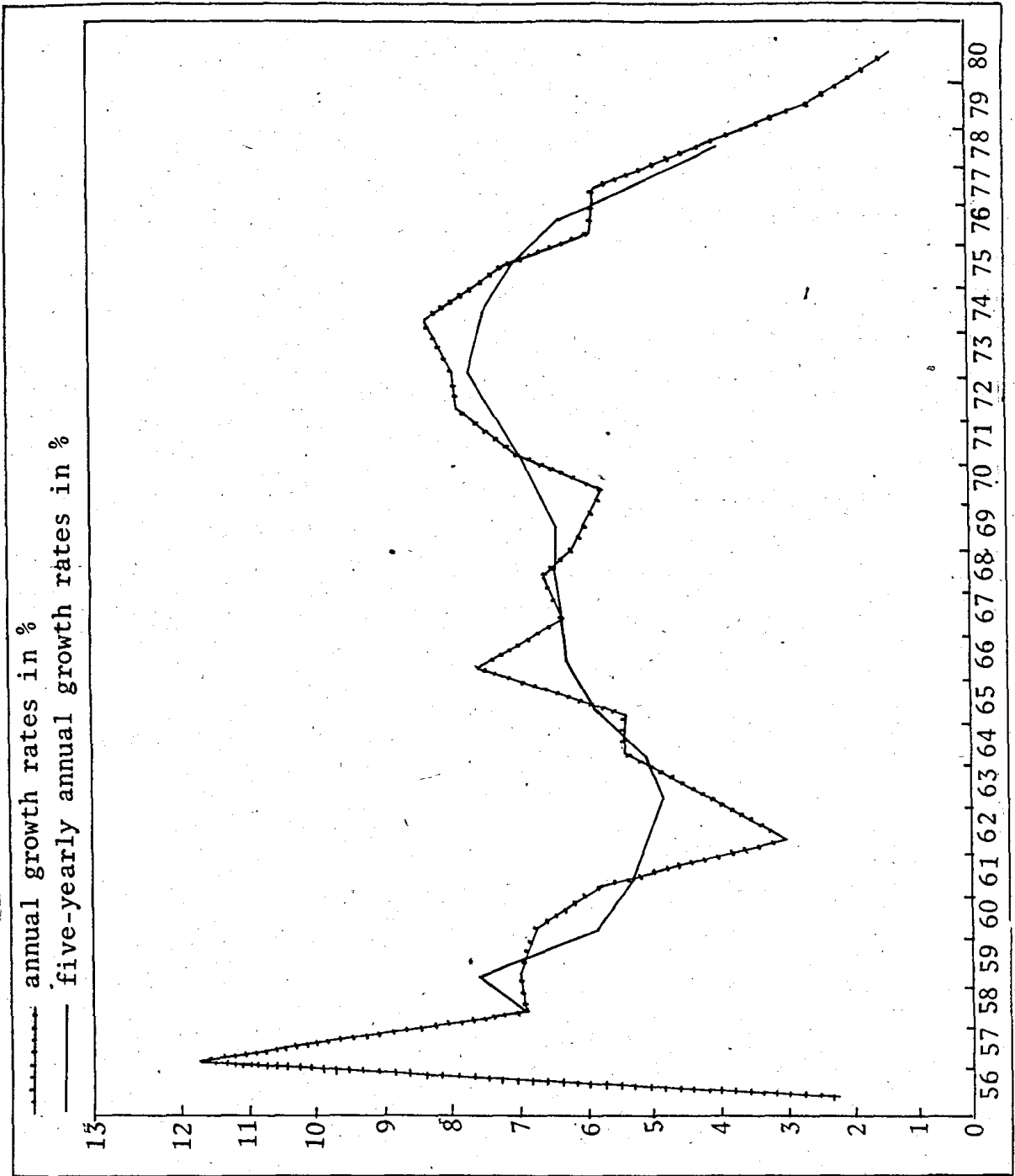
(3) 經濟發展을 阻害하는 內在的인 要素

統制計劃經濟가 企業의 行動에 주는 影響은 計劃樹立段階에 局限된 것이 아니다. 그와같은 企業의 行動은, 計劃을 執行하는 段階에서도 繼續된다. 計劃의 執行過程에서 企業의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始作한다면 上級機關은 곧 企業이 計劃目標를 設定할때 不法的으로 保有量을 숨겨두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上級機關은 計劃의 執行過程에서 投入量을 削減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段階에서는 그와같은 保有量을 控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投資가 始作된다. 비록 그것이 實際로 不必要하고, 제대로 作用하게 될런지 모르더라도, 그와같은 投資事業을 着手하는 것이다. 境遇에 따라서는 機械生産을 할 때에 必要한 量 이상의 鋼鉄을 使用하기도 하고 勞動力을 숨기기 爲해서 賃金を 주면서도 實際로는 作業을 시키지 않을 境遇도 있다. 自己들의 計劃上 指標를 威脅하지 않기 爲해서 技術改革을 等한시 하기도 한다. 特히 이와같이 計劃執行段階에서는 體制가 지니는 非融通性, 需要와 關聯이 없는 生産, 技術的側面의 保守主義, 傾向, 그리고 一般的인 資源浪費問題 等

Figure 1 Development of the produced national product in the USSR in the years 1956-1980



in the years 1956-1980



이 더욱 惡化되는 傾向이 있다.

이와같이 体制內에 內在하는 問題가 蓄積되면 1980年代 CO-MECON 國家의 經濟事情을 把握하는데 重要한 새로운 疑問을 우리에게 提起한다. 즉 東歐圈國家들은 단지 經濟循環의 싸이클에서 下落局面에 到達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앞서 強調했던 “類似싸이클”(quasi cycle)의 밑바닥에 到達한 狀態인지, 或은 이것이 長期的인 沈滯局面으로 가게 하는 体制 自体에 內在한 傾向인지가 重要한 關心거리다. 앞의 函表1과 函表2에 나타난 바에 依하면 現在 우리는 共產國家의 計劃經濟体制의 作動이 잘못됨으로써 經濟成長이 長期間 沈滯하고 있다는 傾向을 보여 주고있다.

이와같은 事實로 보아 COMECON 國家들의 經濟發展의 將來는 体制內部에 內在한 問題點과 構造的인 問題, 그리고 世界經濟에 內在하고 있는 장애요소등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假定할 수 있다. 이와같은 複合的인 要素를 考慮해 보면 經濟回復을 達成하기 爲해서 이들 國家가 行政的이고 計劃經濟의 統制的인 要素를 全的으로 除去해야 할지, 或은 外部的인 條件이 좋아진다는 假定하에서 보다 根本的인 改革을 하여 平衡狀態를 維持해야 할런지 쉽게 判斷이 가지 않는다.

(4) 1980年代의 東歐經濟 : 內外的 制約

우선 東歐經濟体制의 內外的 構造的인 要因을 分析하여 1980年代 東歐의 經濟事情을 考察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蘇聯

과 東歐를 区分할 必要가 있다. 蘇聯의 境遇에는 國內的인 要因이 더욱 重要한 反面에 對外貿易分野에 있어서 比較的 有利한 條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東歐의 境遇는 그와는 反對로 對外貿易의 要因이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國內的인 要因中에서 모든 東歐國家에 가장 重要한 問題는 에너지分野의 成長潛在力이 鈍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決定的으로 重要한 事實은 蘇聯의 에너지發展이 鈍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東歐國家들이 必要한 大部分의 燃料와 에너지를 供給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領土中에 유럽大陸에 位置하여 손쉽게 運搬할 수 있었던 에너지源은 大部分 枯竭되었고 現在의 技術과 運送手段으로는 시베리아地域에 있는 에너지源의 開發은 그렇게 쉽지않은 狀態이다. 시베리아의 에너지源이 開發되더라도 過去보다는 그 費用이 훨씬 더들게 될 것이며, 따라서 비싸게 될 것이다. 또 다른 要因은 資本生産의 持續的인 下落이다. 1976年에서 1980年 사이에 모든 東歐圈國家들의 限界資本率(Marginal Capital Coefficients)은 惡化되고 있다. 즉, 每 1%의 國民生産의 成長을 이룩하려면 過去보다 더 많은 資本投資가 必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生産에서 消費가 차지하는 부분을 더이상 制約할 수 없기 때문에 資本投資를 實際로 더이상 增加시킬 수도 없는 實情이다. 또한 1950年代 後半期와 1960年代 初盤동안 東歐國家들의 人口成長의 減少는 現在의 勞動力沈滯, 또는 勞動力의 不足現象의 原因이 되고있다.

그래서 過去에 重要했던 經濟發展의 要因이 그 重要性을 喪失해
가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東歐圈國家들은 世界經濟에서 派生
되는 問題點 특히 經濟不況, 인플레이션, 西方世界의 高金利政策등
에 蘇聯보다 더 影響을 받으며, 이와같은 外的인 要因이 內的인
要因보다 더 重要하다 이들은 過去 10年동안에 걸쳐 莫大한
負債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負債에 對한 利子와 負
債償還은 1980年代의 經濟發展에 深刻한 影響을 주고있다. 過
去 2,3年동안에 大部分의 東歐圈國家들은 貿易을 줄이고 現在
西方産業國家와의 貿易赤字를 減少시킴으로써 더이상 負債를 增加
시키지 않으려고 努力했다. 그러기 爲해서는 嚴格한 輸入制限政
策을 實施해야 하며 同時에 總力을 기울여서 輸出增加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方策은 모두 이들 國家의 經濟成長을 阻害하는
것이며 利待이 없는 輸出產品을 提供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貿易
條件의 惡化를 甘受하지 않고서는 達成할 수 없는 方策이었다.

東歐의 經濟는 西方과의 關係에서 오는 問題點 以外에도, 蘇聯과
의 貿易關係에서 派生하는 損失로 打擊을 받고 있다. 東歐國家들
이 蘇聯으로부터 原油와 原料等を 世界市場價格보다 싼값으로 사
들이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에 輸出하는 製品의
價格은 變動이 없는 反面에 이들이 蘇聯으로부터 輸入하는 燃料
와 原料의 價格은 每年 引上되고 있다. 앞으로의 問題는 이와
같은 貿易損失 以外에도 蘇聯이 提供하는 燃料와 原料의 量的인
制約이라는 것이다. 蘇聯은 1985年까지 東歐圈에 對한 에너지

輸出을 現在 水準以上으로 增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世界市場에서 價格의 變化와 外貨의 不足을 考慮할 때 東歐國家들이 不足한 原油를 OPEC 國家로부터 輸入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려운 東歐國家들의 財政에 큰 負擔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對內外的 不均衡狀態를 더욱 惡化시키지 않으려면 經濟成長을 더욱 減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히 國民에게 돌아가는 商品과 用役의 量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國內生産에서 增加된 것중에서 大部分을 輸出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蘇聯의 立場은 東歐와는 反對로 對外貿易은 比較助 좋은 條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은 原油와 天然가스의 主要供給者이기 때문에 最近에는 貿易黒子를 이룩하였고, 이와 같은 條件을 利用하여 西方에 對한 貿易赤子와 負債를 減少할 수 있었다. 1980年에 蘇聯은 全體的으로 黒子를 達成하였다. 現在 蘇聯의 金買売, 運送業과 武器販賣등은 蘇聯이 黒子를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蘇聯에서 生産成長의 減少는 前述한 바와 같이 純全히 体制的인 要因에 基因한다고 하겠다. 그외에 蘇聯經濟와 經濟成長潛在力은 지나친 國防費支出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蘇聯의 介入으로 惡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內外的 要因을 살펴보면 COMECON 國家의 經濟發展은 1980年代에 더욱 鈍化될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評價는 지금까지 發表된 이들의 經濟計劃 5個年計劃에서 나타났다.

대체로 이들 東歐諸國은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過去보다 1~2% 줄이겠다고 發表하였다. (12)

(5) 經濟改革

이와같은 東歐圈國家의 經濟事情에 對한 悲觀的인 評價를 하고 난 다음 우리의 問題는 經濟改革을 通하여 經濟事情을 改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같은 經濟改革이 實施될 可能性이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現在의 不均衡과 東歐諸國의 不利한 對外貿易關係가 持統的인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重大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點을 優先 指摘해야 한다. 이런 點에서는 蘇聯이 東歐보다 有利한 立場에 있다는 것이 確實하다. 그러나 蘇聯은 어떠한 經濟改革도 深刻하게 考慮하고 있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經濟改革은 特定한 政治的인 條件이 全제되며 政治的인 結果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根本的인 經濟改革은 討論의 분위에서만 開發될 수 있는 것이지, 抑壓的인 분위에서는 결코 發展할 수 없는 것이다. 經濟改革을 하려면 決定權이 中央政府에서 企業水準으로 移轉되어야 하며, 同時에 여러가지 雜多한 黨의 統制를 緩和해야 한다. 헝가리를 除外한 다른 東歐國家에서 經營体制의 基本的인 變化를 이룩하는데 必要한 條件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經營과 統制에 關한 모든 資料는 一部官吏들의 手中에 있으며, 이들은 既存体制의 “改善과 補完”이란 口號를 내걸고 根本的인 變化를 回避하고 있다. 蘇聯이나

- 8) J. Goldmann, K. Kouba, op. cit., p. 43.
- 9) W. Brus: Funktionsprobleme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Frankfurt 1971.
- 10) O. Sik: Ökonomie-Interessen-Politik, Berlin (GDR) 1966; and "Die ökonomische Krise des 'realen' Sozialismus",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1981, pp. 1928, Vienna.
- 11) T. Bauer: "Investment Cycles in Planned Economies", in Acta Oeconomica, Vol. 21(3), pp. 243-260 (1978).
- 12) Cf. B. Askanas, "Die Wirtschaft der RGW-Länder an der Schwelle der Achtziger Jahre", Wifo-Monatsbericht 4/1981, pp. 231-244.

IV . 世界經濟問題와 國際政治

IV. 世界經濟問題와 國際政治

1. 第三世界와 新國際政治秩序

오늘날 새로운 국제질서를 보는 視角은 대체로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南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規範的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北의 産業國家들의 發展이데올로기가 있다. 또 이와같은 南의 유토피아와 北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對立되어 교착된 狀態를 타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現實主義的 政治”(Real Politic)의 시각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제 3의 시각은 南과 北의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를 포용하는 開放的인 概念이며, 점진적으로 南과 北을 統合하고 융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南의 國家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創造하기 위하여는 우선 世界的인 不平等性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은 南北의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深刻해지는 傾向마저도 있다. 예를 들어서 10年前에 미국은 發達도상 國家에 대하여 美國의 國民總生産量(GNP)中에서 0.56%가 移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GNP의 0.26%만이 發展途上國에 移轉되고 있는 實情이다.

1950年代에 南北問題는 교황 바오로 6세의 “進歩를 위한 計劃”(Populorum Progressio)과 케네디大統領 當時의 “進歩를 위한 同盟”(The Alliance for Progress)과 같은 정책을 擧げ하였으며, 이와같은 프로그램은 “世界的 共存”이라는 유토피아적

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1950年代의 樂觀主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1960年代에는 南의 국가들은 人權과 基本的 必要에 대한 요구를 그들의 최저강령으로 採擇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要求를 바탕으로 南의 국가들은 새로운 國際秩序의 理想이 탄생시켰고, 이들은 現狀維持를 정당화하는 價値를 否定하고 새로운 價値와 基本的인 改革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발전할 수 있는 權利, 平和의 權利등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要求에 대하여 北의 反應은 냉담하였고, 南北間의 對話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世界銀行의 맥나마라總裁의 마지막 報告書는 이와같은 南北間의 교착상태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같은 國際組織은 다같이 繁榮할 수 있는 戰略을 摸索하는 대신에 世界的 “絶對貧困”(Ultimate Poverty)에 관한 대단히 複雜한 지표를 發展시켜서 低開發國家中에서 第3世界の 밑바닥에 位置한 나라가 제4의世界로 등장하는 樣相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南의 規範的인 接近方法으로 등장한 것은 “自力更生”에 의한 發展이란 概念이다. 이것은 南의 國家들이 지니고 있는 自信感의 表現이며, 그들이 지닌 絶對貧困이란 狀況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發展戰略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北의 發展戰略, 특히 1960年代에 開發된 發展과 變化에 대한 北의 戰略提示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면

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No man's land)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北의 發展을 위한 同化理論과 南의 拒否(Cooptions and rejections)의 교착상태는 最近에 들어서 世界秩序에 對한 “現實主義的 政治”로 말미암아 變化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關稅貿易協定(GATT)에 관한 協商過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南北對決에서 北의 國家들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南의 所得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開催되었던 東京會議은 南北의 交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비록 동경회의에서 約束한 것에 대하여 美國議會는 反對를 하였지만 美國이 새로운 融通性을 보이기 始作했다는 점에서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國際的 不平等에 대한 어떠한 수식어보다도 重要한 實質的인 진전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南北問題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南의 國家에 대한 偏見이 弱化되었다는 事實도 指摘될 수 있다. 즉 南의 國家들이 지닌 그들 自信의 内部的인 모순과 利害關係의 對立은 南과 北의 問題보다도 더 深刻하기 때문에 단결과 연합은 쉽지 않으며 오래가지 못한다는 見解가 있었다. 그러나 77 그룹은 그와같은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分열되지 않았으며, 그런대로 國際的인 공동보조를 取할 수 있다는 事實을 보여 주었다. 이와같은 南의 단결과 연합은 北의 國家로 하여금 南北

問題를 再考하게 하였고 結局은 北의 國家로 하여금 南의 要求를 조금씩 수락하게 하였다. 1980年代에도 이와같은 現實政治的 立場에서 南北間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보다 完熟한 南의 단결과 연합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2. 日本의 外交政策과 資源問題

1980年代에 들어와 日本内에서는 1980年代의 日本外交의 基調에 關하여 얼뎡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레이건 美國 大統領의 日本의 防衛努力增加 要求는 日本의 무장을 制限하는 憲法 論爭을 復活시켰으며 日本의 “綜合安保”論에 對한 討論을 불러 일으켰다. 憲法論爭은 잘 알려진 바와같이 日本으로 하여금 戰前의 軍國主義的 性格을 完全히 拂拭시키기 위한 日本의 재무장 금지조항에 關한 것이다. 日本의 平和憲法은 大多數의 日本國民들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自民党内에서는 이와같은 憲法の 再武裝禁止條項을 改正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否定할 수 없다.

“綜合安保”論은, 한 나라의 安保는 그 나라의 軍事力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 政治, 外交 등 綜合的인 國力에 依存한다는 主張이다. 이와같은 綜合安保論을 主張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日本은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經濟的 役割을 強調하는 側面에서 日本의 安保政策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

이 나오게 된 배경은 日本의 戰後外交가 美國安保條約에 依存하여 國防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反面에 日本은 주로 經濟外交에 치중해 왔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筆者는 戰後 日本의 經濟外交의 發展經路를 추적하고 1980 年代의 日本外交에 대한 豫測을 하고자 한다.

(1) 日本 戰後外交의 出發點

1945 年에 日本은 第二次大戰에서의 敗戰과 더불어 美軍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日本에서 軍國主義를 뿌리뽑기 위해서 점령당국은 여러가지 과격한 改革政策을 實施하였다. 土地改革과 財閥의 해체, 教育制度의 改編, 地方政府組織의 改革, 勞動運動에 대한 목시적인 支援, 그리고 政治制度의 民主化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점령당국의 政策을 執行하는 手段인 官僚制度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2 次大戰이 終結되면서 美國과 蘇聯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들의 影響圈問題를 놓고 對立하게 되었으며 冷戰이 始作되었다. 따라서 美國政府의 日本에 대한 占領政策은 日本을 “反共陳營의 보루”로 만들려는 方向으로 바뀌어졌다. 이와같은 占領政策의 方向선회는 共產勢力의 括目할 만한 擴張, 特히 中國과 한반도, 東南아시아에서 共產勢力의 擴大로 말미암아 더욱 촉진되었다.

1948 年 1 月 1 日, 當時 聯合軍 總司令官이던 맥아더將軍은 “自由經濟야말로 日本의 窮極的인 理想”이라고 宣言하고 日本을 “아시아의 工場”으로 再建하기 위한 方針을 천명하였다. 이와같은

占領当局의 政策에 따라서 美國政府는 日本에 대하여 原料提供과 같은 援助를 增加시켜 日本의 産業再建을 支援하기 始作했으며 同時에 東南아시아와 南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貿易을 再開할 수 있도록 後援하여 주었다.

1948年 9月9日에 맥아더將軍은 “日本과 南韓, 그리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自由世界の 보루가 될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1949年 10月1日 中華人民共和國의 誕生은 美國政府로 하여금 戰爭으로 破壞된 日本의 再建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同年 11月에 美國政府는 日本이 獨立할 수 있도록 平和條約을 기초하기 始作하였고, 이 憲法은 2年동안의 討議를 거쳐서 1951年 9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開催된 平和會議에서 조인되었다.

이 當時 日本内에서는 平和條約 締結에 反對하는 大衆運動이 強力하게 展開되었는데, 반대론자들의 主張은 蘇聯과 中共의 參與 없이 平和協商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不充分하다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인도와 버마는 平和會談에서 기권을 하였으며, 平和條約에 同意한 필리핀은 日本의 再建이 將來에 아시아의 安保에 위협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表明하였다.

1952年 4月28日에 平和條約이 발효되면서 日本은 占領狀態에서 해방되었고 日本의 獨立을 다시 獲得하였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美·日安保條約과 台灣政府와의 條約이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두개의 條約에 의하여 日本은 日本의 安保에 대하여는 美

國의 軍事力에 依存하게 되었고 또한 中華人民共和國과의 外交關係를 斷絶하고 그대신 台灣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日本 雜誌 “世界”의 1951年 12月號에 게재된 “東南아시아와 日本”이란 특집란은 當時의 日本内の 事情을 잘 反映해주었다. 이 特집에서 히로미 아리사와教授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平和條約의 체결을 分岐点으로 하여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경제關係를 復舊할 수 있는 展望은 더욱 더 멀어졌다. 論者에 따라서는 中共과의 外交關係가 없지만, 日本에 必要한 資源은 美國과 다른 나라에서 獲得할 수 있다고 主張할지 모른다. 만일 日本이 美國이나 다른 地域에서 輸入한 原料를 가공하여 商品을 生産해야 한다면, 日本의 重工業과 化學工業 商品의 價格은 外國生産品보다 훨씬 높게 될 것이다. 結局은 日本의 重工業과 化學工業에 必要한 原料의 主要供給源은 아시아, 특히 東南아시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事實 日本이 自給自足の 經濟를 이룩하려면 日本과 東南아시아諸國과의 關係는 더욱 日本에게 重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은 資本投資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들 東南아시아 諸國의 經濟發展을 위하여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結論이다.”

이와같은 主張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아리사와教授는 戰後 日本의 經濟外交가 나가야 할 길을 適切하게 豫言한 셈이다. 日本은 美國으로부터 技術 經濟援助를 받아서 놀랄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며, 東南아시아 諸國은 日本의 經濟發展에 必要한 原料

의 供給地로서 그리고 日本 商品의 主要 輸出市場으로서 기여를 했다. 이점에 關하여 도호루야노教授는 “日本의 南進과 東南아시아”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아시아에서 冷戰의 發展과 이 地域에 대한 美國의 과중한 방위는 이 地域에 대한 2차대전 동안의 日本 侵略에도 불구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이 地域에서 自由롭게 活動해 줄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해 주었다. 同時에 이것은 日本이 恒久的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始發點이 되기도 하였다. 美日安保條約이 比較的 적은 부담을 가지게 됨으로써, 日本은 成功的으로 東南아시아에로 進出하여 冷戰의 受惠者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은 1980年代初에 日本이 當面하고 있는 基本的인 問題點을 提示하였다.

2. 日本 經濟外交의 發展

日本과의 平和條約에 關한 論爭이 進行되고 있었던 1950年 6월에 發生한 韓國戰爭은 日本으로 하여금 美軍에 대하여 979,000 \$의 軍輸物資와 용역을 供給함으로써 經濟回復의 契機를 가지게 하였다. 그 當時 日本經濟는 1949年以後 긴축재정 政策의 結果로 최하락의 局面에 있었는데, 韓國戰爭으로 말미암아 急速度로 回復할 수 있었다. 군수물자에 대한 特需에서 始作하여 방직, 강철, 기계, 트럭製造業 등이 되살아 나게 되었고, 廣産業과 製造産業의 生産指標도 1950年 10月에는 戰前의 水準, 즉 1934-1936年의 平均値를 상회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日

本經濟가 韓國戰爭이란 特殊狀況으로 인하여 回復할 수 있었다는 事實은 어느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은 冷戰의 受惠者라는 것을 証明하고 있다.

하여간 韓國戰爭을 계기로 回復의 국면에 접어든 日本經濟는 그後 美國政府와 世界銀行의 財政援助를 받아서 動力産業의 복구, 강철, 알미늄, 肥料, 機械工具 製造業의 成長을 이룩함으로써 完全히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平和協定과 同時에 進行되고 있었던 배상협상은 급속도로 進展되었다. 日本의 支拂能力과 배상청구국의 要求가 엄청나게 달라서 그동안 담보상태에 있었던 배상문제는 1955年과 1960年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타결되었다.

日本은 美貨 80億弗을 要求한 필리핀에 대하여 5억 5천불에 相当하는 배상금을 支拂하기로 하였고 2억불을 요구하는 월남에게는 3,900萬弗을, 172億弗을 要求한 인도네시아에는 2億2千3百萬弗을 그리고 버마에게는 2億弗을 支拂하기로 하였다.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에게는 각각 54億弗, 10億弗, 15億弗을 賠償金 名目으로 支拂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賠償金은 戰爭으로 破壞된 이들 아시아國家들의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했으며 同時에 日本의 商品輸出 擴大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日本은 이들로부터 必要的 原料를 輸入할 수 있었고, 이와같은 過程은 日本과 東南아시아 諸國의 分業關係를 創造했던 것이다. 1951年 9월 10日字 아사히新聞은 뉴욕타임스紙 記者의 다음과 같은 豫言을 보도한 바

있다. 즉 “賠償請求國들은 日本으로부터 賠償金を 받기 위해서는 日本人들의 용역을 要求하거나, 혹은 日本에 原料를 보내서 가공해야 한다. 이와같은 過程은 結局에는 日本과의 끊을 수 없는 強力한 經濟的 유대관계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關係가 더욱 發展하면 日本은 戰爭이란 手段으로는 不可能했던 ‘東아시아 大共榮圈’을 平和的인 수단을 통하여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이 地域의 事態發展을 보면 이와같은 豫見이 的中된 것 같다. 그러나 日本과 東南아시아諸國의 關係가 수직적인 分業關係로만 남아있는 한 그것이 真正한 共榮關係라고 할 수 없다는 點은 말할 必要가 없다.

1960年代에 들어와 日本은 技術改革을 바탕으로 重工業과 化工業을 強力하게 發展시키고 輸出의 급격한 擴大와 더불어 所得倍加計劃에 의한 國內伸張을 擴充하였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日本은 低廉한 에너지 資源, 즉 原料工業에 대하여는 主要石油會社에 거의 全적으로 依存하였고, 스스로 海外의 原油資源을 開發하려고 별로 努力하지 않았다. 이것은 日本과 美國의 友好的인 關係로 말미암아 日本이 에너지 資源의 供給問題에서 얼마나 運이 좋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50年代 後半에서 1960年代 初盤에 이르는 동안에 日本은 1951년에 建立된 日本 輸出入銀行으로부터 輸出金融支援을 받아서 輸出分野를 擴充하였다. 또한 日本은 1958年 2月 인도에 대하여 信用借款을 준 이후 繼續 開發途上國에 對하여 信用借款

의 範圍를 擴大해 갔다. 이와같은 輸出金融과 信用借款은 日本으로 하여금 開發途上國에 對하여 産業商品과 폴란드輸出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同時에 이들 開發途上國으로부터 原料 輸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처음으로 信用 借款을 인도에게 許容한 理由는 당시 日本은 錫광을 인도의 高 亞地域에서 輸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後 日本은 鐵 鉍輸入을 인도에서 말레이시아로 變更시키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 아로 다시 바꾸었다. 이와같은 日本의 輸入相對國을 바꾸는 行 爲를 보고 日本의 利己主義的인 態度를 批判하는 사람들이 있었 다. 日本은 단지 自身の 經濟的 利害關係라는 側面에서만 原料 供給源을 選擇하고, 反對로 原料를 供給하는 國家의 利益은 無視 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1960年代初에 日本의 企業들은 原料공급원을 確保하고, 그들의 商品市場과 값싼 勞動力을 確保하기 위해서 海外投資를 始作하였 다. 오늘날에는 日本企業의 海外投資는 世界全域으로 擴大되었다. 日本이 海外投資를 하고 있는 나라는 先進國中에서는 주로 美國 과 歐洲共同市場國家들 그리고 開發途上國家中에서는 東아시아와 東南아시아諸國들이다. 이와같은 合作投資가 여러나라의 經濟發展 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으나 주로 日本企業 의 閉鎖性 때문에 經營과 技術利權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合作 投資는 아직도 不完全하고 不充分하며,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合作 投資는 항상 批判받고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 現在까

지의 日本經濟外交는 海外에서 값싼 에너지나 原料를 輸入하고 日本商品을 美國과 西歐諸國과 같은 先進國家와 아시아諸國에 輸出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여 왔다고 要約할 수 있다. 日本國民들은 이와같은 方法이 資源이 不足한 日本이 生存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이 이와같은 經濟外交를 遂行할 수 있었던 國際的 環境을 보다 深刻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한다.

(3) “經濟大國”으로 向한 過程

1965年 6月 16日의 日本과 韓國의 外交關係 正常化와 東南아시아經濟開發閣僚會議 그리고 1966年의 아시아開發銀行의 設立 등은 日本이 東아시아와 東南아시아에서 指導的인 役割을 하기 始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事件이다. 日本과 韓國의 關係 正常化는 이 두나라간에 있었던 긴장관계가 終結되었고, 日本으로부터 財政援助를 받아 南韓의 經濟發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東南아시아 經濟開發 閣僚會議와 아시아開發銀行의 設立 意圖는 日本의 主導하에서 이들 나라의 努力을 通하여 經濟發展을 자극시키려던 것이었다. 그러던 때에 1965年 2月에 美國空軍에 의한 越盟暴擊과 美國의 越南戰 介入 增加로 形便이 變化되었고, 日本은 美國을 代身하여 東南아시아 經濟發展을 위하여 中心의 役割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戰爭으로 日本은 有利한 貿易關係를 利用하여 고도의 經濟成長을 持續할 수 있었다. 1967年에는 드디어 日本은 結局 西獨을

人

追越하여 自由世界에서는 國民總生産額이 美國 다음가는 國家가 되었다. 그때에 日本은 造船工業, 강철, 自動車, 電機器具, 化學肥料와 다른 産業分野에서 世界 第1位 또는 2位를 차지하는 經濟強大國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기적같은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데에는 日本人들의 努力이 큰 役割을 한 것이 事實이지만, 그와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값싼 에너지資源을 항상 供給받을 수 있게 하였고 日本의 商品市場을 安定시켜준 國際的 環境의 惠澤을 받았다는 事實도 重要的 것이다. 이와같이 世界の 焦點이 經濟大國인 日本에 集中되기 始作하자, 日本은 두가지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즉 1960年代 後半에서 1970年代 後半에 美國 貨幣에 대한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國際的 通貨危機가 그것이다. 또한 1973年末에서 1974年初에 世界를 휩쓸었던 오일위기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위기의 影響으로 日本은 三重苦 즉 高度의 인플레이션, 收支均衡의 惡化, 그리고 經濟的 不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그 結果 1974년에는 全体的으로 100億弗의 赤字를 감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技術개혁과 製造過程의 自動化 등을 통하여 原油價格의 引上을 어느 程度 吸收 소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70年代 後半期에 日本 經濟는 다시 安定成長의 局面으로 되돌아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강철製品, 自動車, 電子電氣製品의 輸出이 擴大되었다. 오늘날의 제2오일 위기에 當面하여 日本은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原油供給의 安定性을 確保하는 조치와, 에너지 節約의 促進政

策과 核에너지, 석탄, 수력발전, 太陽發電, 太陽熱 등 代替에너지 資源의 開發을 推進하고 있다.

國際通貨危機와 오일위기 등으로 대타격을 받은 1970年代에 日本은 先進諸國으로부터 日本의 輸出을 抑制하라는 強力한 壓力을 받게 되었다. 또한 商品이 이웃 아시아諸國으로부터 日本市場에 유입되어 오는 現象에 直面하게 되었다. 現在의 問題는 1980年代에 아시아와 太平洋地域에서 어떤 形態로 國際分業을 達成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와같은 問題에 当面하고 있는 동안에 日本은 1972年 9월 4日 中共과의 外交關係를 強化하여 中共의 “4大現代化”計劃에 대한 經濟支援의 幅을 넓히고 있다. 이때문에 日本은 아시아諸國과의 經濟協力을 擴大해야 하는 立場을 取하게 되었으며, 中共과 韓國, 그리고 아세안國家들과의 關係에 대하여 適切한 均衡政策을 擇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時点에서 日本은 또한 北韓과 인도차이나地域의 3個國과의 關係를 改善할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는 問題點에 当面하고 있다. 따라서 1970年代에 經濟大國의 地位를 차지한 日本은 이제 美國과 西歐共同市場의 國家들을 包含한 先進國家들에 대하여, 그리고 아시아의 開發途上國家에 대하여 새로운 役割을 創造해 내야 하는 立場에 處하게 되었다.

(4) 日本의 戰前外交政策과의 比較에서 본 戰後外交의 特徵

前述한 바와 같이 戰後 日本外交의 骨格은 第2次大戰이 終了된 1945年 8月 15日부터 平和條約이 조인된 1952年 9월 9

日 동안 美國의 占領政策에 依하여 形成되었다. 美國占領政策의 基調는 冷戰의 渦中에서 日本을 資本主義와 民主主義의 核心으로 再建한다는 것이며, 日本의 軍國主義의 復活을 防止하기 爲하여 美日安保條約의 바탕에서 日本에게 軍事的 保護를 提供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基本骨格內에서 日本의 政治, 經濟分野는 거의 全적으로 自民黨에 依하여 統治되어 왔으며, 처음부터 美日安保條約에 반대한 社會黨과 共産黨의 頻繁한 反政府運動이 있었다.

經濟政策을 實施하는 過程에서 自民黨 政權은 항상 財界와 密接한 接觸을 가지면서 經濟發展을 自民黨의 主要 政治目標로 推進하여 왔다. 自民黨의 外交政策의 目標은 (1) 많은 國家들과의 多角的인 外交關係의 維持 (2) 世界各國과의 經濟的 유대강화 (3) 原料의 安定供給과 日本商品의 市場의 安定性 確保라는 데에 두었다. 그러나 日本外交政策의 基本에 影響을 준 東西對決로 말미암아 日本의 蘇聯과 中共과의 外交關係는 美蘇, 美中關係가 改善된 1956年과 1972年에야 각각 正常化되었으며, 日本과 北韓의 關係는 아직도 正常化되지 못했다는 점이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은 日本의 外交政策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美·蘇對立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態度를 견지하였다. 日本과 蘇聯과의 關係는 1950年代 후반기에서 1960年代에 현저하게 改善되었으며, 日本과 中共과의 關係는 1970年代에 改善되었다. 비록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으로 日·蘇關係가 약간 냉각기에

들어섰지만, 日本과 蘇聯이 經濟問題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할 可能性은 아직도 많다고 하겠다.

中共과의 關係에 對하여 日本政府는 中共의 産業化와 資源開發, 交通網의 改善 등에 對한 經濟援助를 擴大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日本의 戰後外交政策의 重點은 日本과 東南아시아諸國, 특히 ASEAN 國家들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日本이 最近 캄보디아問題에 關하여 ASEAN 國家들과 協力하였다는 事實에서도 分明하게 드러났다. 또한 日本은 1960年代에 高度經濟成長段階에 들어서면서 原油供給의 安定化라는 必要때문에 中東地域의 國家들과의 關係를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이란과 日本의 合作石油化工事業은 이란과의 友好關係를 促進하려는 日本의 努力의 본보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中東國家에 對한 日本의 經濟支援은 이들 國家의 社會階層間的 不均衡을 오히려 深化시켜서 이들 國家의 社會的, 政治的 騷擾의 原因이 되었다는 것도 否定할 수 없다.

戰後 15年동안 日本은 經濟成長에 集中했고, 그結果 自由世界에서 美國 다음가는 第2位의 經濟大國이 되었다는 事實은 누구도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現在 日本은 고도의 인플레이션, 環境汚染의 問題, 經濟內構造의 投資와 福祉問題와 같은 國內的인 問題와 先進國家와의 貿易紛爭과 開發途上國家와의 수직적 分業問題에 當面해 있는 것이다. 結局 이와같은 問題는 고도성장지향적인 日本의 經濟政策에서 基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日本의 将来는 安定的인 經濟成長,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과의 互惠關係의 促進 등을 考慮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現在의 日本과 戰前時期的 日本의 特徵과를 比較해 보자.

明治維新以後 近代化를 推進하면서, 日本은 “日本精神과 西歐의 技術”로써 “西洋을 따라 잡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富國強兵”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경주하였고 그 結果 第1次大戦 當時에 日本은 5大強國中의 한나라가 되었다. 그때까지 日本이 擇한 것은 帝國主義 膨脹政策이었고, 이웃 아시아 諸國의 植民統治로 연결되었다. 第1次大戦 이후 日本은 軍事力을 만주, 中國本土, 東南아시아에 파견하여 “大東亞 共榮圈”을 창조하려는 꿈을 가졌었다. 이와같이 日本이 近代化 過程에서 이웃 아시아 諸國에 대하여 植民地政策을 추구하였다는 事實은 日本에 대하여 깊은 상처를 남겨 두었다. 이러한 觀点에서 본다면 第2次大戦後 戰爭을 否定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軍事的 위협을 根絶하기로 한 日本의 選擇은 옳은 것이고, 가장 잘한 選擇이었다. 그러나 現在 日本은 第2次大戦後 安保問題에 대하여 美國에 깊이 依存하면서 經濟成長에 集中하여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過程을 省察해야할 立場에 서게 되었다.

(5) 結論 : 1980年代 日本外交의 挑戰

1980年代에 들어와 日本은 經濟大國에 알맞는 만큼 방위 努力을 增加하라는 強力한 壓力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壓力에

대항하여 日本은 防衛努力을 強化해야할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經濟協力을 中心으로하는 소위 “綜合安保”를 추구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問題는 日本이 앞으로 防衛問題에 對하여는 美·日安保條約에 依存하면서 經濟中心의 政策을 繼續 추구할 것이 라는 點을 明白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만일 日本이 繼續 앞으로 美·日安保條約을 維持하려고 한다면 美國과의 充分한 理解에 到達할 必要가 있다.

또다른 問題는 日本이 防衛力을 增強하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美國의 戰略에 따라서 日本軍을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日本内에서는 憲法條項과 관련한 日本 防衛力 制限에 관한 論爭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아시아 諸國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點을 考慮해 본다면 日本이 할 수 있는 正當한 役割은 日本의 憲法을 준수하여 防衛力을 最少限으로 制限하면서 아시아에서 國際的 緊張을 緩和시켜 주며 平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즉 日本은 日本의 經濟力과 相應할 만한 政治的 役割을 해야하며 過去와 같이 軍事的인 役割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에 대하여 소위 現實主義者들은 強力하게 反발하고 아시아와 餘他世界에 存在하는 軍事的 緊張이란 어두운 現實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批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明治維新이 후의 日本歷史發展을 回顧해 보면 이와같은 길이 日本의 將來와 아시아의 平和를 위하여 最善의 方法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3. 國際政治經濟와 韓國

1960年代初에 西方産業國家의 植民地였던 많은 나라가 獨立을 한 後, 이들 新生國家들은 國際經濟秩序의 基本性格이 根本的으로 植民地時代의 支配關係를 持續하게 하여 新生國家의 發展努力을 沮害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이와같은 南의 主張이 그 方法이나 強調하는 側面이 나라마다 대단히 다르다는 點은 再언할 必要도 없다.

韓國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南의 國家와 共通點이 있다. 즉 韓國은 植民地經驗을 가진 新生國家이며, 대단히 資本이 不足한 나라이며, 또한 韓國은 過去의 記錄보다 韓國의 成長潛在力이 더 크다는 點에서 다른 南의 國家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韓國이 大部分의 南의 國家와 다른 面도 많이 있다. 즉 韓國은 資源이 不足하고 政治的으로 分斷된 國家라는 點이다. 가장 중요한 差異는 韓國은 既存의 國際經濟秩序의 不完全한 性格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經濟成長을 위한 潛在力은 어느 程度 實現시키는데 成功했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背景에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에 대한 韓國의 立場은 既存秩序를 改革한다는 것이지, 결코 南의 이데오르기적인 主張을 滿足시키기 위해서 國際經濟體制 그自体를 破壞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基本的인 目標은 經濟秩序의 土臺를 유지하는 同時에 南의 國家와 協力하여 그것을 改善해 나간다는 것이다.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와 關聯하여 여러가지 問題가 討議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세가지 問題點을 中心으로 南北問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貿易, 資本移轉, 그리고 通貨秩序에 관한 것이다. 이와같은 主要問題에 대한 韓國의 立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더 낫은 經濟環境을 提供함으로써 貿易과 다른 形態의 經濟交易이 增加되도록 國際經濟秩序가 改善되어야 한다.

둘째로, 開發途上國이 그들의 人的 資源을 改善하여 經濟적으로 自立해 나갈수 있도록 國際經濟秩序의 改善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國際經濟秩序는 低開發國家의 役割과 參與를 擴張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끝으로 모든 國家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을 높이도록 國際經濟秩序의 改善이 있어야 한다.

(1) 貿易과 世界經濟發展過程

하바나憲章 (The Havana Charter) 에서 提示된 貿易메카니즘은 本質적으로 自由貿易理論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바나憲章에 대한 各國의 조인이 實現되지 못했을 때, 現在의 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이 그대신 締結되었다. 이 關稅貿易一般協定은 主要 交易國들 사이의 多國的 협상무대가 되었으며, 이들은 工業生產品에 대한 關稅의 相互減少와 非關稅障壁의 相互調整을 주로 다루었으므로 南의 國家들은 이와같은 減少, 調整에 대하여 별다른 發言權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原料產

出國인 南의 國家들은 새로운 方法을 模索하게 되었고, 그 결과 UNCTAD가 設立되었다.

1973年 最初의 에너지危機가 發生하기 前에 南의 貿易問題에 대하여 北의 國家들의 反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商品價格의 심각한 不安定性을 경감하기 위하여 歐洲共同市場(EEC) 國家들은 두 차례에 걸친 로마會議(Rome Convention)에 參與했으며, 많은 産業國家들은 共同基金(Common Fund)의 設立에 대하여 호의적인 反應을 보였던 것이다. 工業製品의 貿易에 있어서 北의 國家들은 選好의 一般體系案(Cent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을 受諾하였다. 그외에도 커피協定, 설탕協定, 밀協定 등에 대하여도 비록 非效果的이지만 適切한 考慮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후 繼續된 두 차례의 에너지危機와 支拂不均衡은 國際環境을 상당히 變更시켰다. 産業國家들은 南으로부터의 輸入規制를 強化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南으로부터의 工業製品輸入에 대하여 北의 國家들은 選好의 一般體系(GSP)를 選別的으로 適用하고, 여러가지로 市場活動을 規制하는 조치를 取했던 것이다. 原料品에 대한 애드바로렘(Ad Valorem) 關稅政策이 점차로 強化되었고, 따라서 原料產出國이 原料輸出에 대하여 國內가치를 擴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最近에 몇몇 産業國家는 貿易政策에 대하여 差等を 두는 案을 提示하기도 하였고, 複雜한 規制方案을 만들어 내고 있다. 多國間的 纖維協定이라든가, 自國商品에 대한

保護節次를 一方的으로 適用하는 境遇가 많이 생겼다.

國際貿易政策에 대한 韓國의 立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韓國은 이와같은 保護主義는 世界的 發展過程을 교란한다고 믿고 있다. 新生産業國家에게 經濟的 침체를 強要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輕工業製品을 위하여 輸出市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保護主義가 制限的 貿易政策을 통하여 新生産業國家의 適應能力을 抑壓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新生産業國家는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政策을 통해서만 産業化의 深化를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은 또한 新生産業國家의 經濟構造에서 2次産業을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韓國은 商品安定政策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이 바라는 政策은 生産部門에 대한 단순한 보조보다는 供給과 需要側面에서 效果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世界的 協助體制을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國際的 協력이 없기 때문에 發生하는 現金 베이스 穀物에 대한 過剩投資는 事態를 惡化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國際的 機關이나 쌍방간의 協定體制에 의한 原料產品의 가공에 대한 投資는 商品安定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效果的이고 持續的인 方法이 될 것이라는 점을 指摘하고자 한다.

(2) 開發資金의 支援

北과 南의 國家들간의 高질적인 利害關係의 葛藤은 南에 대한 資本의 移轉조건과 方法, 또 資本量에 대한 것이다. 小數의 産油國을 除外하면 大部分의 南의 國家들은 經濟發展에 必要한

만큼 充分한 國內貯蓄을 産出해낼 수 없다. 어떤 南의 國家의 資本不足은 實質所得을 增加시키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實質所得을 維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南의 國家로 流入되는 大部分의 資本은 私企業을 通하거나 또는 貿易이란 經路를 通하여 들어온다. 지난해 開發途上國家에 約 500億拂을 대여한 金融會社는 剩餘資本이 있는 産油國과 다른 나라를 중개하는 役割을 擴張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의 問題點은 金融會社는 本質적으로 短期, 中期의 貸與業務에 局限되어 있다는 點이다. 金融會社는 長期的인 危險負擔을 지려고 하지 않으므로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을 支援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金融會社의 支援이 擴張되더라도 開發途上國은 金融會社의 貸與條件을 滿足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資源의 讓渡的인 性格의 移轉이 不可避하다는 理由이다. 人道主義的인 見地는 차치하고서라도, 南과 北의 所得隔差가 增加되는 것은 社會적으로 危險하다. 現實的인 見地에서 보아도 資源의 移讓은 充分히 正当化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投資에 대한 利益이 높은 다른 나라로 剩餘資本을 移轉하는 것은 훨씬 더 效果的으로 資源을 配分하는 것이다. 즉 資本은 좀 不足하더라도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豊富한 開發途上國은 그들의 消化能力, 즉 經營能力과 社會政治能力이 充分한 外部援助에 의하여 開發될 수만 있다면, 潛在적으로 훨씬 더 生産的인 投資環境을 保有하게 될 것이다.

시킬 수 없는 事前條件을 支援의 댓가로 要求했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開發途上國家들은 그들이 遂行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 保守的인 條件에 順應하도록 強要하고 있다고 不平하여 왔다. 한가지 分명한 非正常的인 點은 IMF의 權力構造이다. 원래 國際經濟에 대한 會員國의 影響力은 그것이 投票權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根拠에서 差等投票制度가 採擇되었다. 30年이 지나는 동안에 會員國들의 影響力이 變化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會員國家들 사이의 投票權의 再調整은 항상 지연되거나 不充分했다. 南의 國家들은 北의 國家들에게 現實에 適合하도록 再調整되어야 한다고 主張할 權利가 있다.

또다른 政策上的 問題點은 IMF가 信用貸与를 창출 해낼 수 있는 보다 많은 權限을 가져야 한다는 提案이었다. SDR은 비록 制限的인 方法에 의해서이지만, 이와같은 생각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世界貿易의 流動基金은 國際的 信用貸出의 必要만큼 增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같이 IMF의 信用貸出權限을 增大해야 한다는 主張에도 妥當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信用貸出權限을 가지는 國際機構를 수립하는 方向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 最小限 現在의 IMF의 構造를 가진 機構는 수립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過多한 信用貸出을 제어할 수 있는 充分한 메카니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過多한 通貨供給을 統制할 수있는 權限과 動機를 가진 個別國家에서도 人爲的인 信用貸出은 赤字를 뺀주기 위한 政治

만큼 充分한 國內貯蓄을 産出해낼 수 없다. 어떤 南의 國家의 資本不足은 實質所得을 增加시키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實質所得을 維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南의 國家로 流入되는 大部分의 資本은 私企業을 通하거나 또는 貿易이란 經路를 通하여 들어온다. 지난해 開發途上國家에 約 500億拂을 대여한 金融會社는 剩餘資本이 있는 産油國과 다른 나라를 증개하는 役割을 擴張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의 問題點은 金融會社는 本質적으로 短期, 中期의 貸與業務에 局限되어 있다는 點이다. 金融會社는 長期的인 危險負擔을 지려고 하지 않으므로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을 支援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金融會社의 支援이 擴張되더라도 開發途上國은 金融會社의 貸與條件을 滿足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資源의 讓渡的인 性格의 移轉이 不可避하다는 理由이다. 人道主義的인 見地는 차치하고서라도, 南과 北의 所得隔差가 增加되는 것은 社會적으로 危險하다. 現實的인 見地에서 보아도 資源의 移讓은 充分히 正当化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投資에 대한 利益이 높은 다른 나라로 剩餘資本을 移轉하는 것은 훨씬 더 效果的으로 資源을 配分하는 것이다. 즉 資本은 좀 不足하더라도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豊富한 開發途上國은 그들의 消化能力, 즉 經營能力과 社會政治能力이 充分한 外部援助에 의하여 開發될 수만 있다면, 潛在的으로 훨씬 더 生産的인 投資環境을 保有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때문에 韓國은 國際機關에 의한 援助라는 概念을 지지하고 있다. 1990年代까지 GNP의 0.75%를 ODA의 目標로 삼은 것은 可能하며, 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開發途上國家의 生産性이 增大된다면 先進國에서 生産되는 資本財商品에 대한 그들의 收入需要도 增大될 것이다. 더우기 國際的 機關의 資本基金이 增加하면 이러한 最小限의 加入費만을 要求하고 大部分의 基金은 會員國이 利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機關은 個人的인 資源을 動員하는데, 그리고 行政費의 相對的인 擴大를 가져오지 않고서도 個人的인 次元에서 屜출된 資源을 生産的인 용도에 돌리기에 必要한 強力한 人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

最近에 國際的인 機關을 通해서 開發資源을 直接 確保하려는, 많은 集團에 의하여 여러가지 提案이 提示되었다. 브란트委員會는 國家間의 武器交易에 대한 國際的인 税金을 부과하고, 그것을 開發을 위하여 使用하도록 하라고 勸告한 적이 있다. 武器交易量이 全体貿易量보다 더 急速度로 增加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武器交易量은 現在 每年 約 200億弗에 이르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러나 브란트委員會의 勸告案은 現在의 國際政治에서는 實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브란트委員會의 勸告案과 마찬가지로 正當한 것이기는 하지만 實施하기 어려운 提案은 海洋法會議에서 提案된 深海開發에서 나온 利益을 利用하라는 것이다.

現在의 國家領海以外에 있는 곳의 資源은 全人類의 共同財産이

어야 한다는 주장은 달(月)이 人類共同의 것이라는 것만큼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公海를 利用하여 開發資源을 獲得한다는 것은 그것이 人類共同의 財産이라는 것과는 全的으로 다른 이야기이다. 이와같은 海底鉍山의 探索과 開發에 必要的인 技術發展에 必要的인 投資는 開發途上國이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은 産業國家의 私企業에 依存해야 할 것이며, 이들 産業國家의 私企業은 그와같은 投資에 대한 充分的인 利潤性을 計算할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본다면 한때 西歐産業國家들이 提案한 合作投資등이 現實的인 妥協案이 될 수도 있다.

(3) 通貨秩序

國際通貨基金(IMF)의 役割은 根本的으로 두가지이다. 즉 첫째로, 各國이 貨幣交換政策(換率政策)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것을 抑制하는 機能이다. 이와같은 役割을 遂行하기 위하여 國際通貨基金은 憲章을 採擇하고 약간의 資源을 保有하고 있다.

둘째의 機能은 會員國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支拂상의 難點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最近 IMF는 配當資源을 補完하기 위하여 直接 貸與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主張하려는 點은 이와같은 IMF는 開發途上國의 構造的인 不均衡에 대하여는 별로 關心이 없고, 開發途上國家가 充足

시킬 수 없는 事前條件을 支援의 댓가로 要求했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開發途上國家들은 그들이 遂行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 保守的인 條件에 順應하도록 強要하고 있다고 不平하여 왔다. 한가지 分명한 非正常的인 點은 IMF의 權力構造이다. 원래 國際經濟에 대한 會員國의 影響力은 그것이 投票權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根拠에서 差等投票制度가 採擇되었다. 30年이 지나는 동안에 會員國들의 影響力이 變化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會員國家들 사이의 投票權의 再調整은 항상 지연되거나 不充分했다. 南의 國家들은 北의 國家들에게 現實에 適合하도록 再調整되어야 한다고 主張할 權利가 있다.

또다른 政策上的 問題點은 IMF가 信用貸与를 창출 해낼 수 있는 보다 많은 權限을 가져야 한다는 提案이었다. SDR은 비록 制限的인 方法에 의해서이지만, 이와같은 생각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世界貿易의 流動基金은 國際的 信用貸出의 必要만큼 增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같이 IMF의 信用貸出權限을 增大해야 한다는 主張에도 妥當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信用貸出權限을 가지는 國際機構를 수립하는 方向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 最小限 現在의 IMF의 構造를 가진 機構는 수립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過多한 信用貸出을 제어할 수 있는 充分한 메카니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過多한 通貨供給을 統制할 수있는 權限과 動機를 가진 個別國家에서도 人爲的인 信用貸出은 赤字를 메꾸기 위한 政治

的으로 가장 便利한 方法이라는 點이 證明되었고, 이와같은 信用
創出은 所得平衡과 經濟安定에 奇蹟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을 너
무나 잘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애매하게 規定된 國際的 信
用創出權限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機構가 소수의 強大國에
의하여 支配된다면, 우리는 또다른 形態의 인플레이션을 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것이 開發途上國家의 利益에 附合할런
지는 전혀 確信할 수 없다. 이러한 方法보다 더 그럴듯한 國
際的 流動基金不足에 대처할 수 있는 方法은 配當基金을 擴充하고
信用이 낮은 나라에 대한 商業資本의 再回轉을 促進하는 一種의
信用保險制度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信用保險制度의 基金은 貸與國과 借入國, 그리고 이에 加
入한 國家들이 共同으로 負擔할 수도 있다. 이미 이와같은
保險機構에 관한 많은 提案이 있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研究
와 分析을 繼續할 만하다.

(4) 開發途上國間の 經濟協力

開發途上國家는 全世界 人民의 3/4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相互間的 貿易量은 아직도 世界貿易量總合의 1/4
以下이다. 이들간의 貿易擴大의 潛在力은 많이 있으며, 그에 따른
生産性과 福祉에 주는 利得은 엄청난 것이다. 이와같은 開發途
上國間の 貿易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첫째로, 開發途上國들은 그들 相互間的 關係에 대한 經濟的 퍼

시펙티브를 再定立할 수 있다. 大部分의 開發途上國家는 以前의 宗主國으로부터 精神的으로 獨立되었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아직도 植民地國家에 대한 文化的, 實質的 定向은 強하게 남아있다.

둘째로, 政府와 個人企業部分은 開發途上國家間의 交易擴大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努力과 資金을 投入할 수 있다. 開發途上國家間의 人的 交流와 商業活動의 交流를 增加하면, 結局 貿易의 增大와 技術流通의 增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로, 現在 사용하고 있는 GSP 體制에 대한 代案으로 77 個 國구룹(the Group of 77)은 商品交易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반영하는 새로운 選擇的 交易體制(New preferential trading system)를 採擇할 수 있다. 現在 이와같은 體制는 아세안(ASEAN)이나 안디안共同地域(Andean Community)와 같은 地域的으로 採擇되고 있으나, 이들의 産業構造가 단순하고 서로 비슷해서 補完的인 貿易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效力이 상당히 制限되어 있다.

끝으로, 開發途上國家들은 外貨에 대한 依存度を 줄이기 위하여 일종의 支拂組合과 같은 機構를 開發해야 한다.

(5)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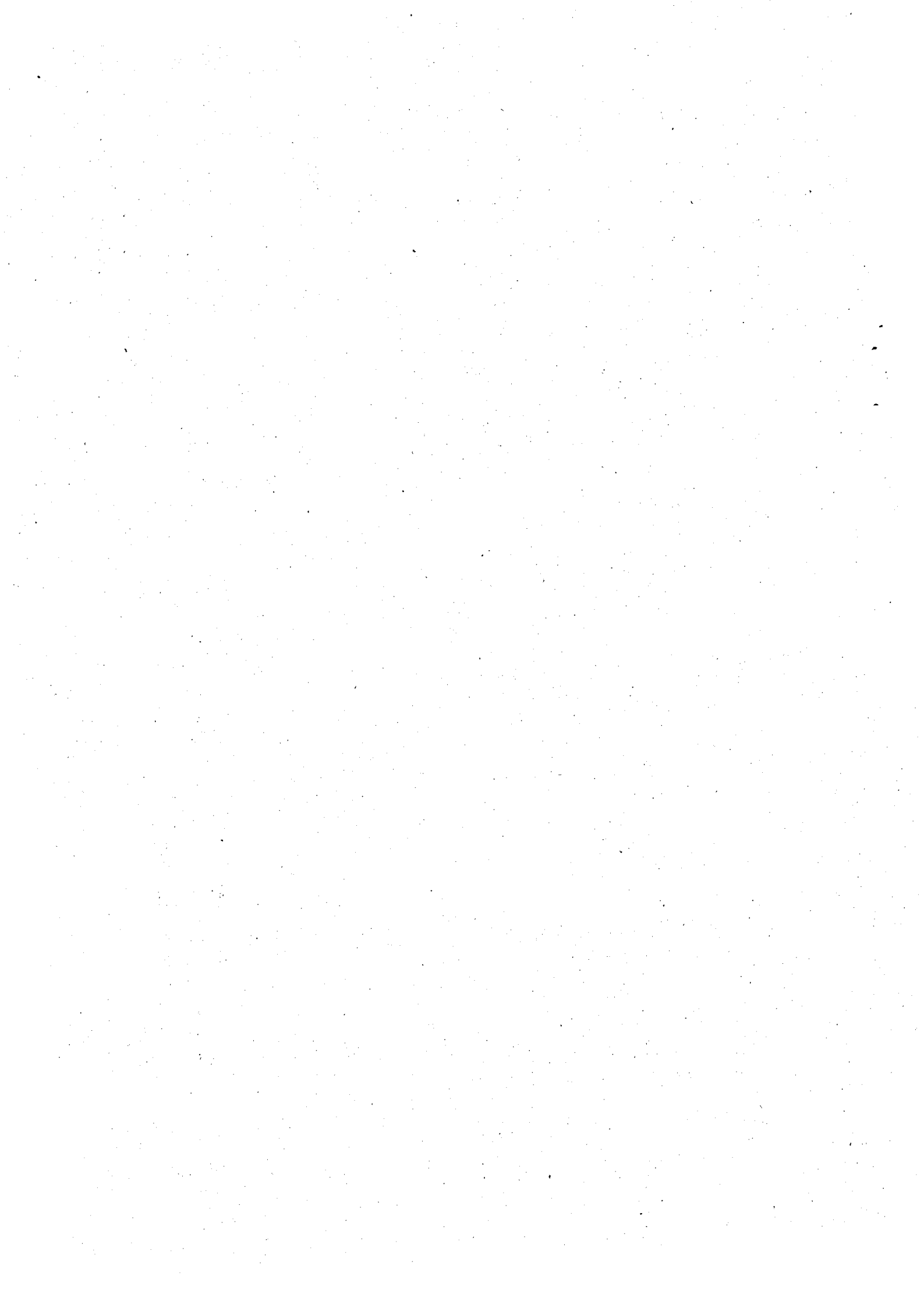
既存 産業國家와 新生産業國家의 利害關係의 葛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 세기 유럽만 보더라도 그와같은 現象을 찾아 볼 수 있다. 産業革命으로 英國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게 되었

고, 그後에 西歐는 東歐보다 先進的인 대열에 서게 되었다. 관련 된 모든 國家가 經濟的인 競争에 의거하여 그들의 葛藤을 解決 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國際体制는 生産性的 改善과 政治的 安定 이라는 惠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方法으로 葛藤을 解決하려고 하면, 그것은 軍備競争을 가져왔고, 軍備競争은 武装下 의 平和와 戰爭으로 發展되었다.

따라서 韓國은 南과 北의 葛藤을 通하여는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南·北間의 對話를 通하여 보다 有益한 結果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南·北間의 葛藤解消가 經濟的인 領域에서 이루어진다면 韓國으로서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하겠다.



V. 1980年代 國際秩序와 分斷國問題



V. 1980年代 國際秩序와 分斷國問題

1. 西獨과 東獨의 關係

(1) 獨逸歷史上 統一과 分斷

韓國, 中國, 獨逸과 같은 分斷國은 1980年代에도 遺憾스러운 일이지만 分斷狀態가 持續될 것 같다. 이들 三個國은 分斷國이란 側面에서도 同一運命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重要的 差異點이 있다는 것을 大部分의 사람들은 看過하고 있다. 즉 韓國과 中國은 現在와 같이 分斷되기 前까지 수백년동안 統一된 國家의 歷史를 가졌지만 近代 獨逸의 統一時代는 1871年 비스마르크에 依하여 第2帝國이 登場하고 1945年에 第3帝國이 破滅될 때까지의 75年동안만 持續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近代的 意味의 統一民族國家는 獨逸의 境遇에는 한사람의 一生에 相應하는 時期동안 存在했던 것이다.

그러나 獨逸(Germania)과 獨逸人이란 概念은 中央유럽과 유럽의 多樣的 民族의 歷史記錄이 있었던 수백년동안 存在해 왔었다.

과거 2000年 동안 統一된 獨逸國家體制의 存在가 없이 獨逸이라는 地理的, 種族的, 文化的인 實體가 存在해 왔다는 것은 과라독스가 아닐 수 없다.

찰스大帝의 西유럽帝國의 한부분으로서 10世紀頃에는 一種의 獨逸帝國(Regnum Teutonicum)이 登場하였다. 統治者들은 스스로 皇帝라고 稱하면서 교황의 이름을 빌어서 自己들의 統治의

正統性を 強化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地域的인 공후국이 支配的인 歴史가 있은후 比較的 短期間의 統一이 成就되었다. 이때 独逸皇帝를 選出한 領主들은 帝國의 中央政府 權力을 制約하였다.

皇帝權力和 教皇權力的 競争的인 二重構造는 中央政權의 弱화에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中世独逸을 도쿠가와 쇼군에 비유하여 独逸도 日本과 마찬가지로 政治的 權力이 없는 황제를 가졌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独逸의 境遇는 쇼군과 같은 存在가 없었고, 다만 帝國의 權威에 대하여 盲目的인 忠誠을 바치면서 實際權力을 行使하는 大廟와 같은 領主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独逸帝國이라는 이름, 象徴, 그리고 制度는 独逸人の 充足되지 못한 所望의 表現으로 繼續 存在했었다. 도쿠가와 時代의 日本政治体制와 다른 重要한 點은 領主들중에서 選出된 황제는 황제로 選出된 뒤에도 본래의 地域的 權力基盤을 그대로 保有했다는 點이다. 예를 들어 14世紀에서 1806년까지 独逸帝國의 王座를 占有했던 합스부르크王朝의 統治者들은 합스부르크王朝가 統治했던 오스트리아와 다른 나라의 權力基盤을 維持했었다. 1871年 以前의 独逸은 法的으로 然나 實質的으로 여러 獨立國家의 一種의 聯合形態를 지니고 있었고 이들 國家의 統治者中의 하나가 皇帝라는 직함을 가지고, 聯合體의 議長과 같은 役割을 했다. 이와같이 独逸이란 聯合을 構成한 國家들 사이에는 頻繁한 戰爭이 있었지만 그 이름과 弱한 法的構造는 19世紀初까지 持續되었었다.

宗教改革으로 始作된 近代歷史에서 獨逸聯邦國家들은 자주 戰爭을 하였다. 獨逸의 南部勢力과 北部 獨逸 勢力的 最初의 戰爭인 30年戰爭(1618-1648)으로 約33%의 人口가 減少하는 일까지 있었다. 古代 그리스이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이 南部獨逸에서는 오스트리아가 登場하였고 北部에서는 普魯시아가 支配的인 勢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世紀의 獨逸歷史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普魯시아의 도전으로 派生된 戰爭이 頻繁하였고, 흔히 英國,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유럽 強大國이 介入한 大規模의 戰爭으로 擴大되었다. 獨逸聯邦國家들뿐만 아니라 유럽大陸의 大部分을 征服한 나폴레옹의 帝國主義는 오스트리아와 普魯시아의 和解를 가져왔다. 더욱 重要的 事實은 프랑스의 膨脹政策에 直面하여 近代獨逸의 民族主義運動이 처음으로 登場하였다는 것이다. 獨逸民族主義의 第2의 波汶은 民主主義와 社會改革이란 目標를 가지고 登場하여 1948年과 1949年의 革命을 惹起시켰고 統一된 獨逸國家의 建立을 爲한 法과 政策을 마련하는 全獨逸民族會議를 選出하게 되었다. 革命이 失敗한 후 오스트리아와 普魯시아의 갈등이 38個의 聯邦國家로 構成된 獨逸聯邦內에서 再等場하였다. 結局 普魯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갈등은 1866年의 戰爭으로 發展하였다. 여기서 敗北한 오스트리아는 그후 獨逸聯邦에서 除外되었다. 勝戰國인 普魯시아는 獨逸內의 작은 國家들을 合併하여 約62%의 獨逸人口와 領土를 支配하게 되었고, 1871년에는 第二帝國를 形成하였다. 그후 普魯시아의 王은 獨

逸皇帝(Deutscher Kaiser)라는 称号를 使用하였다. 이와같이 独逸 最初의 統一된 民族國家는 領土와 人口, 그리고 軍事的 政治的 權力에 있어서 圧倒的인 影響力을 保有한 한나라의 霸權主義的 指導力에 依하여 탄생되었다. 이것은 聯邦制度를 扞하여, 그 構成國家들에게 相當한 自治權을 부여하였다. 이와같은 構造는 제 1차大戰으로 普魯西亞의 제 2 제국이 滅亡하고 나서 登場한 魏瑪共和國時代에도 基本的으로 維持되었고 民主化되었다. 그 후 第 1次大戰에서의 独逸敗亡에 對한 反발과 深刻한 經濟危機를 利用하여 1933年 히틀러의 나치黨이 政權을 掌握하였다. 히틀러의 공격적이고 非合理的인 外交政策은 마침내 世界第二次大戰을 觸發하였고, 그것은 히틀러의 第 3帝國의 滅亡을 가져왔다.

聯合國사이에서는 戰後 独逸問題에 對한 政策으로서 独逸의 分割이 論議되었고, 1945年 独逸의 敗亡과 聯合軍의 独逸占領은 独逸의 分割을 招來하였다. 사실 戰爭이 끝났을때 独逸民族의 政治的 將來에 關한 뚜렷한 政策은 없었다. 四大 強國의 独逸占領이란 事實以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戰爭 賠償金에 對한 概念과 独逸을 하나의 經濟的 實體로 取扱한다는 데에만 聯合國사이에서 意見一致가 있었다.

(2) 戰後 独逸分断의 重要要因

冷戰이라고 알려진 東西間의 權力鬭爭은 1946年에 明白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두세력은 各各 유럽과 다른 地域에서 自己

들의 影響圈을 保存, 擴大하려고 努力하였다. 1948년에 獨逸의 베르린은 戰後의 美蘇對立의 가장 危險스러운 장면을 演出하였다. 소련군이 西獨의 美軍 占領地域과 西베르린을 連結하는 陸路를 斷絶했던 것이다. 中共의 勝利는 世界의 勢力均衡을 蘇聯側에 有利한 方向으로 轉換시켰고 韓國戰爭은 同一한 領土內에서 두개의 相異한 體制와 政權의 對決 危險性을 보여 주었다. 美國은 이와같은 事態發展을 보고 西獨의 政治的 經濟的 潛在力을 西方世界에 加算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獨逸이 東西 兩大陣營에 대하여 等距離政策을 취한다는 條件에서 統一을 한다는 生覺은 거의 할 수도 없었다. 두개의 相異한 獨逸이 樹立된 직후, 美國과 소련은 獨逸의 再統一이란 目標에 대하여는 口頭로는 支持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相對方이 받아들일 수 없는 條件을 달아 獨逸統一案을 提示하였다. 漸次로 두개의 獨逸은 相互對立하는 東西陣營의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軍事的인 協力및 對決體制로 統合되었다. 콘라드 아데나워首相의 指導하에서 西獨은 對外關係에서 西方側을 強力하게 지지하는 政策을 追求하였다. 獨逸의 主權을 빨리 回復하려면 西獨政府와 그 同盟國家의 關係에 있어서 信賴性을 回復해야 한다는 것이다. 西獨의 將來에 關하여 아데나워와 그의 支持者들은 西歐의 統合體制를 創造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生覺했다. 이와같은 超國家組織의 創造에서 이들은 獨逸이 西歐諸國과 共有할 수 있는 歷史的 使命을 찾았던 것이다. 이를 爲하여 이들은

다른 나라들이 同意한다면 独逸의 民族的 特權을 犠牲할 의도까지 있었다. 아데나워, 처칠, 로버트 슈만 등은 유럽의 統合은 프랑스와 独逸의 恆久的인 和解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와같이 西独政府는 西歐의 統合過程에 對한 參與에 높은 政治的 價値를 賦与했기 때문에, 自由選舉를 통한 独逸의 再統一과 統一된 独逸의 軍事的 中立化에 對한 1952年과 1954年의 소련의 提案을 研究할 의도가 없었다. 소련의 第2次 提案은 소련이 東独을 “主權國家”로 認定한 6個月後, 그리고 西獨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加入을 決定하는 西歐頂上會談의 마지막날에 發表되었다.

独逸問題에 關한 限 1955年은 轉換點이 되었다. 西獨은 NATO에 加入하고 東獨은 華沙條約機構에 加入하였다. 그후 소련은 独逸問題에 對하여 새로운 立場을 취했다. 즉 独逸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責任있는 當事者는 2次大戰 當時의 聯合國이 아니라 東西獨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소련은 自由選舉에 依한 統一案에 反對하였다. 그대신 相互利益에 對한 問題를 討議할 수 있는 東獨과 西獨사이의 一種의 主要機關으로 議會체를 提示하였다. 1957年과 1967年 사이에 東獨은 여러가지의 聯邦制를 提案하였다. 西獨政府는 1958年에 独逸의 再統一을 爲한 條件과 形態에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 基本的인 決定者는 独逸國民 全体이지 東獨과 西獨政府가 아니라고 宣言함으로써 東獨의 聯邦制를 拒否하였다.

1961年 東獨은 西方世界로 人口가 流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東西獨의 境界線에 障壁을 쌓기 始作하였다. 西方世界에서는 이같은 東獨의 行爲를 西獨과의 體制競爭에서 東獨이 敗北했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東西獨의 障壁은 兩側의 接觸을 事實上 終結짓는다는 重大한 問題를 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間의 經濟的 交流는 繼續되었다. 東西兩大陣營間의 대당뜨를 豫感하고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이끄는 西獨의 社會黨과 自由黨의 聯立政府는 새로운 東方政策과 對東獨政策을 追求하였다. 아데나워는 美國과 強力한 西歐의 統合은 소련으로 하여금 東獨에서 撤収하게 하리라고 希望하였지만, 그것은 實現되지 못했다. 새로운 西獨政府의 東方政策은 에곤바르(Egon Bahr)의 假定, 即 소련의 參與없이 또는 소련意思에 反하여 東西獨間의 關係에 있어서 實質的인 進展이 있을 수 없다는 假定에 根拠를 두고 있다. 1972年 8月의 西獨과 소련의 條約은 베르린의 地位에 關한 1971年의 4大 強大國間의 條約과 함께, 1972年 12月 12日의 東西獨間의 條約의 前提條件이 되었다.

지난 10年間의 東西獨間의 關係를 回顧해보면 여러가지 分野에서 많은 進歩를 이룩했다고 하겠다. 특히 重要한 事實은 東獨과 西獨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不安定하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 分野에서 相互關係를 擴張했다는 것이다. 이점이야말로 東西獨間의 대당뜨를 繼續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고 하

겠다. 이와같이 体制의 不安定을 惹起하지 않고 兩体制가 相互 交流를 擴大할 수 있었다는 것은, 韓國의 境遇 南北交流가 体制의 不安定과 그로 因한 緊張狀態의 增加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고 憂慮하는 사람들에게 鼓舞的인 事實이 아닐 수 없다.

1978년에는 約8百萬名의 西獨人이 東獨을 訪問했으며, 150萬名의 東獨人이 西獨을 訪問하였다. 같은 해에 2,500만개의 小包가 東獨으로 發送되었으며, 1,000만개의 小包가 東獨에서 西獨으로 우송되어 왔다. 1978년에 東西獨間의 貿易量은 約90億마르크에 達하였다. 그외에도 演劇, 文化展示會, 經濟博覽會, 스포츠, 映面 등이 상당히 頻繁하게 交流되었다. 東獨과 西獨을 連結하는 既存의 通信手段이 대폭 補充되었으며, 東獨과 西獨의 協議와 協助에 依하여 改善되었다. 勿論 東西獨의 交流에는 否定的인 側面도 있다. 예를 들어 東獨政府는 두개의 獨逸國家가 있다고 主張할 뿐만아니라 갑자기 獨逸國民도 두개의 相異한 集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主張하면서 國籍是非를 提起하였다. 또한 東獨政府는 東獨을 訪問하는 西獨市民에게 西獨貨幣를 東獨貨幣로 交換하여서 使用할 것을 義務化하기도 하고, 西獨의 言論人들을 遂出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否定的인 側面은 東西獨의 交流에 依하여 이루어진 업적에 比較해 보면 별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3) 1980年代의 東西獨의 問題와 展望

西独의 國內政治와 外交政策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1980년 10월에 與党인 社会党和 自由党 聯合勢力이 選挙에서 勝利하였다. 비록 17席의 議席을 喪失하였지만 野党인 基督教民主党은 44.5%의 贊成投票率과 聯邦議會에서 226席을 차지하는 가장 強力한 政党인 것이다. 社会民主党(SPD)은 42.9%의 支持率과 218席을 獲得하였고, 自由党(LDP)은 39席에서 53席으로 增加하여, 가장 놀란만한 成長을 한 党으로 登場하였다. 이번 選挙에서 社会党이 絶對的인 多数席을 占有하지 못했기 때문에 슈미트首相은 強化된 自由党과의 聯立政府를 通하여 繼續 執權하였다. 最近에 自由党은 그들의 強化된 勢力을 利用하여 社会党이 強力히 推進했던 立法案을 支持하기도 하였다. 社会党에 對한 選挙民의 支持를 가져다 준 슈미트首相은 深刻한 심장병으로 打撃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社会党内의 強力한 派閥은, 소련의 軍事的 優勢에 對抗하기 爲하여 유럽에 새로운 核미사일을 配置하려는 NATO의 決定에 對한 슈미트首相의 支持에 對하여 반발하고 나서기 始作했다. 이들 反슈미트 파벌은 社会党이 提案한 財政社会政策에 對한 自由党的 拒否權을 容認할려고 들자 않고 있다. 따라서 自由党은 社会党과의 聯合戰線을 變更할지도 모른다는 所聞은 狀態를 더욱 複雜하게 하였다. 만일 自由党이 그와같은 決定을 내린다면, 西独은 基督教民主党과 自由党的 聯立政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社会党은 英國労働党이 現在 겪고있는 것과 같은 危機에 直面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狀況에서 構成된 基督教民主黨과 自由黨의 聯立 政府는 政治勢力의 兩極化를 深化시킬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같은 聯立政府는 最近에 弱화된 西獨과 美國의 同盟關係를 強化시키고, 믿을 만한 勢力均衡을 通하여 西歐를 防禦하려는 이 推進될지도 모른다.

西獨에서는 勿論이거니와 美國에서는 더욱더 슈미트首相의 政策 變化에 경악을 하고 있다. 即 最近 슈미트首相은 유럽에서 勢力均衡을 樹立하기 爲하여 SALT II 戰略武器制限協定에 包含되지 않은 퍼싱 II (Pershing II)와 크루즈미사일을 配置하려는 1979年 NATO 決定에 對하여 종전의 그의 政策과 見解와는 달리 冷淡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 그와같은 政策轉換이 있기 바로 며칠전에 西獨政府는 全体國防經費의 減少를 가져올 만한 國防費 削減을 決定하였다. 이와같은 1980年 10月末의 西獨政府의 決定은 每年 國防費를 3%씩 增加하도록 努力한다는 1978年의 NATO 決定과 明白하게 相反되는 것이었다. 西獨政府가 이같은 決定을 내리게 된 背景에는 失業人口의 增加, 燃料費의 上昇, 달러價値問題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形態의 核防衛에도 反對하고, 西獨政府와 美國의 防衛同盟을 強力히 反對하는 平和主義者와 左翼 勢力의 增加되는 壓力을 意識한 理由도 있다. 平和主義運動과 左翼運動은, 完全히 發達한 核武器體制를 独占하고 있는 두 強大國이 유럽에서 核戰爭을 벌리는 戰略을 開發하고 있으며 유럽인 들 自信이 이와같은 超強大國의 軍事的 對決의 게임에서 決定的

役割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苦惱의 表現이란 側面도 있다. 이와같은 狀況은 恐怖心과 소외감을 造成하며 그것은 美國에 대한 抗議와 一方的인 非難으로 發展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國에 대한 一方的인 抗議運動은 소련에 依하여 間接적으로 利用당하고 있다. 이들 平和運動 支持者들은 平和運動과 抵抗運動의 一方的인 性格이 그 運動의 道德的인 信賴性을 崩壞시킬지도 모른다는 事實을 意識하지 못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博士는 最近에 소련은 유럽을 겨냥하는 수천개의 核武器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소련의 挑戰에 対応하려고 努力하는 美國이 批判을 받고있다는 것에 對하여, 不滿을 토로하였다. 소련의 브레즈네프書記長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反核平和運動을 巧妙하게 利用하기 爲하여, 지난 10月2日字 獨逸의 影響力 있는 슈피겔紙(Der Spiegel)와의 會見에서, 소련은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지않은 나라에 對하여는 결코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브레즈네프는 소련政府는 이것을 兩國間的 條約의 形態로 確約할 意圖가 있다고 申明하였다. 이와같은 소련의 提案은 흔히 잊고 있지만 대단히 重要的인 유럽에서 軍事的 狀況의 일면에 對하여 우리의 주의를 喚起시켜 주고 있다. 즉 소련의 대단히 優勢한 在來式 軍事力을 防衛하려면 軍事的인 見地에서만 본다면 核武器를 使用하는 方法밖에는 없다는 事實이다. 西歐유럽 國家들은 비록 全体人口와 産業과 技術發展 程度에 있어서 소련보다 優勢하지만, 소련의 在來式 功擊에 對抗하여 在來

式 武器에 의하여 스스로를 防衛할 意志도 없으며 또한 그럴 能力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소련의 優勢한 地上軍을 利用한 功擊을 받게 될 境遇 敗北를 是認하거나 또는 그들의 在來式 軍事力의 弱點을 核武器體制로 補強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브레즈네프의 提案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結局 소련측에 有利하게 유럽의 既存의 勢力均衡에 變化를 가져다 줄것이 틀림 없다. 이에 대하여 슈미트首相은 所謂 “제로 解決策(Zero Solution)”이란 形態의 一種의 妥協案을 提唱하고 있다. 즉 西歐유럽에 新型 美國 核中距離 미사일을 配置하려는 NATO의 計劃을 取消하는 代가로 소련의 SS-20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無効化한다는 것이다. 소련은 非公式的으로 그와같은 提案을 考慮할 意思가 없다고 表明하고 있다.

만일 다른 妥協案이 없고 西獨이 벨지움과 네덜란드와 같이 레이진 行政府의 主要 國防政策에 對하여 反對하게 된다면, 美國의 立場은 대단히 難厄한 地境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事態의 結果는 美國과 西歐의 防衛協力의 弱化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소련에게 利得을 주게 될 것이다.

西獨政府에게 特殊한 問題는 東獨과 西獨間의 接觸과 交流가 앞으로 成功的으로 發展되려면 美國과 소련 兩側 모두로부터 協助를 받아야 한다는 事實이다. 아프가니스탄의 危機로 美國과

소련의 關係가 惡化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東獨과 西獨의 關係는 그로부터 影響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西獨政府의 見解에 대하여 에리히 호네킨(Erich Honecker)는 東獨共産黨 第10次 全党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間接적으로 応答하였다.

“만일 美國과 소련의 關係가 豫測할 수 없고 對決을 指向하는 美國의 政策으로 因하여 惡化된다면 우리가 가장 強力한 NATO 國家中の 하나인 西獨과 緊密한 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는 전혀 期待할 수도 없다.”

西歐政府가, 廣範囿한 西獨國民들이 東獨과의 關係를 持續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東西獨間의 關係를 民族的인 利益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事實을 아는 소련은 東西獨間의 關係를 減少시키거나 破壞시키겠다고 威脅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完全히 無視할 수 없는 소련의 影響力이 있는 것이다, 또한 폴란드의 危機로 말미암아 소련에 대한 東獨의 價値는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東獨指導者들이 潛在적으로 危險한 西獨과의 關係를 減少시키려는 政策에 대하여 소련측의 支持를 얻을 수 있는 機會가 커졌던 것이다. 西獨과 폴란드의 틈에 끼여있는 東獨은 外部로부터 들어오는 願하지 않는 政治的 影響力에 關하여 關心이 많고 그에 대하여 緊張하고 있는 形便이다. 西獨訪問者에 대한 義務的인 貨幣交換政策을 強化하는 東獨의 政策으로 이미 東獨과 西獨의 民間交流를 減少시키는데 成功하였다. 비록 東獨의 海外貿易의 8%만이 西獨과의 關係에 依存하고 있지만 東獨은 아직

도 西獨으로부터 여러가지 形態의 直接 또는 間接的인 經濟援助를 必要로 하고 있다. 이것이 東獨과 西獨의 關係에 있어서 西獨側이 지닌 影響力의 根拠가 되고 있다. 이러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은 効果的일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東獨과 西獨間의 和解를 通하여 이루어 놓은 業績을 도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西獨이 “드골主義”나 或은 中立의 方向으로 가게되고 美國과 NATO와의 關係가 소원해진다면 蘇聯과 東獨은 東西獨間의 接觸과 協力を 強化하고 補充하겠다고 提案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獨逸의 國內政治와 外交政策은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고 특히 西獨의 東獨과의 接觸과 和解政策은 西獨의 西方側과의 防衛政策과 連結되어 있다. 따라서 現在 蘇聯이 取하고 있는 兩面政策, 即 政治的인 壓力을 가하는 同時에 東西獨間의 關係改善이란 補償을 提案하는 政策이 西獨으로 하여금 새로운 政策方向을 抉하게 할려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이러한 決定은 여러가지 價值選択과 政策의 우선순위, 決定이라는 어려운 問題와 關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1980 年代의 南北關係

1980 年代의 南北關係는 豫測할 수 없는 不確定性으로 緊張關係가 持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中·蘇紛爭, 美·中關係의 劇的인 改善, 蘇聯의 軍事的地位의 向上등과 같이 急激히 變化하는 世界情勢는 韓國戰爭以來 持續되었던 既存의 勢力均衡에 影響을

출 것이고, 어떤 形態로든 極東地域에서 強大國間的 勢力關係의 變化가 南韓과 北韓의 國內政治와 外交政策, 그리고 南北韓의 關係에 密接한 影響을 줄 것이다. 이와같은 外的인 環境의 變化以外에도 南北韓自体内的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變化는 1980年代의 南北關係에 直接 反映될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의 南北關係는 두 가지 次元에서 分析해야 한다. 즉 南北韓의 外的 勢力의 變化와 南北韓의 內的 要因을 分析하여 1980年代의 南北關係를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南北韓의 國際環境을 1971年 7月の 所謂 「핑퐁」外交로 始作된 美·中關係의 劇的인 轉換으로, 1950年 韓國戰爭이후 持續되었던 冷戰体制의 根本的인 變化와 調整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韓國戰爭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干与되었던 美國, 蘇聯, 中共, 그리고 日本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勢力關係에 重大한 變化가 일어나고, 이들 國家들의 南北韓과의 關係에도 變化가 發生하였다.

무엇보다도 中·蘇紛爭과 美·中關係의 劇的인 發展은 冷戰時代의 勢力關係와 強大國들의 利益의 變化를 招來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毛沢東의 死亡과 實用主義派가 得勢한 以後 中共의 四大現代化運動은 中共으로 하여금 美國과 日本에게 密着하게 하였다. 蘇聯과 베트남의 同盟關係와 아프카니스탄 侵攻과 같은 事態는 蘇聯의 威脅을 対処하기 爲해서도 中共은 美國의 支援이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美·中關係는 單純한 國交正常화와 經濟關係의 發展이라는 次元을 넘어서 安保的, 軍事的인 關

係에 까지 發展되었다.

中共과 日本과의 關係도 豫想했던 것보다 急速度로 發展되어 1980年代의 中·日關係는 兩國의 經濟에 막대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1970年代에 推進中이었던 日本의 시베리아開發參與가 별다른 成果를 보이지 않게 되면서 日本과 蘇聯의 關係는 惡化되었으며, 領土紛爭問題는 日本과 蘇聯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重大한 장애요소로 남게 되어 間接적으로 日本의 對中共接近政策을 強化한 셈이다. 따라서 1980年代初에는 過去の 美國과 日本에 對한 蘇聯과 中共의 對立關係에서 蘇聯의 所謂 “霸權政策에 對한 美·日·中의 同盟關係로 변모하게 되었다. 特히 레이건行政政府의 登場과 넉탕뜨政策에 對한 全面的인 再調整은 中共의 反霸權政策과 더불어 1970年代에 이미 始作된 이와같은 勢力構造의 改編趨勢를 더욱 強化했던 것이다. 아에따라 이들 強大國들의 南北韓에 關한 政策에도 變化가 있었다. 우선 美國의 對韓政策은 카터行政政府末期에 이미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카터大統領은 그가 提案했던 南韓으로부터 美軍의 段階的인 撤軍計劃을 拋棄하고 韓國政府에 對한 軍事的, 政治的 支援을 強化하겠다고 約束하였다. 레이건大統領이 새로운 韓國의 指導者로 登場한 全斗換大統領을 招請함으로써 南韓에 對한 美國의 公約과 支援을 再確認하였다. 이와같은 美國의 政策變化는 1970年代에 있었던 韓·美間의 不便한 關係와 美國의 넉탕뜨政策으로 派生되었던 美國의 對韓政策에 對한 의구심을 拂拭시켰다는 點에서 南韓政府에게는

鼓舞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中共의 南北韓에 對한 政策은 아주 微妙한 것이었다. 韓國戰爭以來 中共과 北韓의 關係는 그들의 表現을 그대로 빌린다면 「脣齒의 關係」였다. 軍事的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維持했을 뿐만 아니라, 中共과 北韓은 世界觀과 世界政治에 對한 見解도 거의 一致하였다. 비록 中共의 文化革命으로 말미암아 兩國의 關係에 一時的인 不作用이 있었지만 美國과 日本에 對한 敵對的인 政策과 北 땅뜨를 反對하는 立場에서는 共同의 利益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中·蘇紛爭이 激化되면서 中共은 北韓의 支持를 더욱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美·中關係의 改善은 北韓의 의구심을 高潮시켰다. 實用主義派가 得勢한 以後에는 中共의 四大現代化政策은 北韓指導者들의 不安을 더욱 심화시켰다. 1980년에 開催된 第6次朝鮮勞動黨 全党大會에서 金日成은 中共을 指稱하지는 않았지만, 明白하게 中共에 對하여 帝國主義勢力과 無原則한 妥協을 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이와 같은 北韓의 重要와 의구심을 鎮靜시키기 爲하여 여러가지로 努力하였다. 經濟援助를 強化한다든가 또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蘇聯의 中共包圍作戰에 加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例를들어 北韓의 建國記念日에 對한 그의 메시지에서 中共黨主席으로 選出된 胡耀邦은 美國의 對韓政策을 非難하고, 美軍의 撤収를 要求하였으며 北韓의 統一政策을 積極的으로 支持한다고 表明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國家利益이 四大現代화와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 改善에 있는 한 公式的인 中共의 立場과 非公式的인 中共의 希望은 아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中共은 韓半島의 緊張이 高調되어 四大現代화와 中共과 美國의 關係를 威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立場을 間接的으로 여러번 表明하였다. 1978年 10月에 鄧小平이 日本을 訪問했을 當時 韓國의 統一問題에 對한 質問을 받고, 그것은 時急한 것이 아니고 1,000年이 걸려서라도 結局 統一은 될 것이라고 答辯함으로써 中共은 統一보다도 南北韓 間의 平和 및 現狀維持를 원하고 있다는 暗示를 주었다. 美軍 撤収에 대하여도 中共은 公式的인 立場과는 달리 美軍의 南韓駐屯을 默認하는 듯한 印象을 주었다. 1978.5 華國鋒은 “즉각적이고 全面的”인 美軍 撤収에 對한 要求를 하지 않았으며, 美國의 브라운 國防長官이 1980.1.에 中共訪問 當時 南韓의 美軍 撤収는 拳論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中共은 蘇聯의 膨脹政策을 沮止하기 爲하여 아시아에서 美國軍事力의 役割을 強調하고, 따라서 韓國에 美軍의 役割도 認定한다는 報道까지도 있었다.

이와같은 中共의 微妙한 態度는 南韓에 對한 中共의 政策變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4年에 中共이 韓國과의 郵便通信 關係를 樹立한 以後, 文化, 體育, 經濟分野에서 南韓과의 非公式的, 間接的인 接觸을 持續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中共은 第3國을 通하여 韓國과의 經濟交易을 默認하고 있다.

비록 1981.3.에 中共當局은 南韓의 政府當局과 貿易關係에 있

지 않다고 公式的으로 發表했지만, 1981年 9月5日字의 中共新聞은 香港을 經由하여 20t의 中共商品을 韓國에 輸出했다는 事實을 報道하였다. 이와같은 中共의 公式的인 立場과 非公式的인 立場의 差異는 中共의 對韓政策의 目標가 北韓의 親蘇化를 阻止해야 하는 同時에 美國과의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는 二律背反의인 性格에 그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美·日·中의 緊密한 協助關係는 아시아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 擴大에 重要한 威脅要素로 看做되는 것이 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蘇聯은 中共의 反霸權主義同盟을 견제하기 爲해서 北韓의 協助가 더욱 必要하게 되었고, 이와같은 北韓의 重要性을 最近 蘇聯과 北韓의 關係를 改善시키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1960年代와 1970年代에 蘇聯과 北韓의 關係는 蘇聯의 德壤뜨政策과 金日成의 所謂 主体思想에 對한 批判的인 態度로 말미암아 低調한 狀態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같은 蘇聯과 北韓의 疎遠한 關係는 兩側의 相異한 世界觀에서 出發했다고 할 수 있다. 蘇聯指導者들은 1956년에 후르시초프에 依한 스탈린 批判運動을 展開한 以後 共產國家內에서 個人崇拜思想에 對하여 批判的인 立場을 取하였고 美國과의 平和共存을 통한 德壤뜨政策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對美強硬政策에 對하여도 蘇聯은 批判的인 立場을 取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政策에 對하여 北韓은 여러번 不滿을 表示하였다. 例를들어 北韓의 1964年 9日7日字 勞動新聞은 蘇聯의 內政干涉을 猛烈하게 批判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1970年代에 蘇聯이 美國과의 détente政策을 追
求하는 과정에서 南韓에 대하여도 平和的인 態度를 取하게 되자
北韓은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通하여 蘇聯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자 이와같은 蘇聯과 北韓의 相反된
利益追求는 相當히 解消되게 되었다. 美·日·中의 關係改善은
蘇聯과 北韓에게 共同的인 威脅으로 看做되었고, 北韓으로 하여금
蘇聯의 支援에 보다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蘇聯側의
立場에서도 極東地域에 새로운 國際的 勢力均衡을 維持하는데 北
韓의 役割이 重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最近 蘇聯은 北韓에 對
한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보다 強化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始作
하였다. 蘇聯의 羅津港租借 같은 形態로 나타나기 始作한 새
로운 北韓과 蘇聯의 關係가 繼續된다면 北韓의 軍事力과 經濟
力을 安定시키기 爲한 蘇聯의 支援이 強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아직은 蘇聯이 1970年代에 追求하였던 조심스러운 對
北韓政策을 根本的으로 變更했다는 證據는 없다. 蘇聯과 베트남
의 同盟關係와 같은 劃期的인 轉換點이 없었다는 것이다. 蘇聯
의 立場은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으로 高調된 西方世界的 警覺
心を 緩和하기 爲하여 自制하고 있는 편이며 可能하면 美國과의
直接的인 軍事對決을 回避하려고 하는것 같다. 이와같은 政策은
1970年代의 蘇聯의 北韓의 軍現代化에 對한 微溫的인 態度에서
나타났다. 即 蘇聯은 北韓에 現代的인 武器供給을 해주지 않았
다. MIG-23S, MIG-25S, 또는 T-72 탱크와 같은 새로 開發

된 武器를 리비아든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아랍諸國에는 提供하면서도, 蘇聯은 北韓에게는 提供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微溫의인 政策은 北韓의 軍事力을 強化함으로써 南韓에 대한 北韓의 圧倒的인 優勢를 가져다 주면 南北關係의 不安定을 더욱 深化시킬것으로 憂慮했기 때문이다. 만일 北韓이 戰爭을 挑發하게 된다면 蘇聯은 어쩔 수 없이 美國과의 軍事的 對決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判斷에서 蘇聯은 可能한 限 北韓의 冒險主義的 政策을 견제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政策은 1980年代에 들어와 美·中·日關係改善과 더불어 어느정도 修正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蘇聯은 韓國問題로 美國과의 軍事對決까지 甚 準備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 事實 韓國問題는 蘇聯의 立場에서나 美國, 中國, 日本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韓國戰爭以後 維持되었던 勢力均衡을 破壞시키야 할 程度로 重要한 問題는 아니었다. 美國이나 蘇聯에게 第1次的인 關心事는 유럽에 集中되어 있으며, 韓國問題는 어떤 意味에서는 中東問題보다도 더 下位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美國과 蘇聯은 모두 南北韓關係의 根本的인 變化로 말미암아 世界的인 次元에서 그들의 國家利益이 威脅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中共이나 日本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韓半島에서 勢力均衡의 變化보다는 現狀維持를 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四強은 世界的인 勢力變化에도 不拘하고 根本的으로는 韓國戰爭以後의 現狀維持政策을 堅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1-

이러한 國際情勢가 大 變해 되고, 또한 當時의 強大國은 南北韓關係에 內在되어 있는 不安定性을 抑制하기 爲하여 南北韓의 接觸을 促求하였기 때문에 北韓은 暴力的인 統一政策을 一時的으로 拋棄하고 南北韓關係에 応했던 것이다. 南韓의 立場은 이미 이승만政權以後 武力統一의 方案을 撤回하였으나, 統一 自体보다도 南北關係의 安定性을 強調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國際的인 環境의 變化와 南北韓의 內的인 政策變化는 一時的이나, 1972년에 南北關係에 새로운 突破口를 마련한 듯하였다. 따라서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은 이데올로기와 體制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인 大同團結을 宣言하였고, 南韓과 北韓은 武力挑發을 自制할 것에 同意하였다. 즉 南北韓은 平和共存과 協商과 妥協에 依한 漸進的인 統一을 한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共同聲明은 韓國戰爭以來로

-233-

VI. 結論：1980年代의 韓國의 對外戰略

따라서 1980年代의 南北關係가 根本적으로 變貌될 수 있는 계기는 南北關係의 外的環境에서 온다기 보다는 南北韓의 內的인 變化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統一國家로서 오랫동안 存続되어 왔던 南北韓이 強大國에 依한 對立으로 말미암아 分斷되었다는 點에서 南北關係의 變化는 強大國間의 勢力變化에 따라서 많은 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假定이 一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強大國의 利益이 制限의이고 南北韓에 대한 強大國의 影響力이 減少되고 있다는 事實을 勘案할때 1980年代의 南北關係는 強大國間의 關係에 依하여 말기보다는 南北韓 兩體制內의 變化가 보다 直接的인 平和要因으로 登場하게 될것이라고 豫想된다. 더구나 韓國 戰爭以後 強大國의 南韓과 北韓政府에 대한 影響力은 눈에 띄게

VI. 結論 : 1980 年代의 韓國의 對外戰略

1980 年代의 國際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美·蘇 關係와 德 땅뜨의 狀態가 不分明하다는 것과 資源問題가 強大國의 政治的 軍事的 對立을 더욱 不安定하게 하는 要因으로 登場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1970 年代에 支配的이었던 德 땅뜨는 蘇聯의 急激한 軍事力 增強과 膨脹主義的인 政策으로 말리암아 더이상 持續될 수 없게 되었고, 特히 레이건 行政府가 들어서면서 美國의 蘇聯에 對한 強硬政策이 強化되면서, 마침내 交錯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美國과 蘇聯의 德 땅뜨에 對한 幻滅은 根本的으로 이 둘의 德 땅뜨에 對한 期待와 解釋이 相反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世界秩序에 對한 새로운 理解에 到達하기 前에는 美·蘇關係는 根本的으로 對立과 갈등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즉 美國은 蘇聯과의 德 땅뜨의 德 땅뜨로 第3世界에의 政治的 安定과 現狀維持를 원했던 반면에 蘇聯은 이와같은 연계關係를 否定할 뿐 아니라, 德 땅뜨를 利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와 中東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擴大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行動은 世界政治構造의 安定에 必須的인 超強大國間의 妥協을 어렵게 하였고, 아프카니스탄의 侵攻과 같은 行動은 美國으로 하여금 軍備增強과 蘇聯과의 對決政策을 扞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蘇間의 對決은 過去와 같이 邊방지역에 局限된 것

對韓政策이 南韓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展開되었고, 美·中·日의 關係改善이 韓國의 平和에 寄與하는 側面도 있으나 이와같은 極東地域에서의 勢力構造의 變化는 蘇聯과 北韓을 모두 刺戟할 憂慮도 있으며, 또한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役割을 強調하는 美國의 政策이 南韓의 國家利益과 반드시 附合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도 銘心해야 할 것이다.

1980年代에는 이와같은 不安定의 要素가 累積되어 있으며, 韓國에 對한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流動的이고 制限的이 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더욱 더 創意的인 對外戰略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된 武器를 리비아든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아랍諸國에는 提供하면서도, 蘇聯은 北韓에게는 提供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蘇聯의 微溫的인 政策은 北韓의 軍事力을 強化함으로써 南韓에 대한 北韓의 圧倒的인 優勢를 가져다 주면 南北關係의 不安定을 더욱 深化시킬것으로 憂慮했기 때문이다. 만일 北韓이 戰爭을 挑發하게 된다면 蘇聯은 어쩔 수 없이 美國과의 軍事的 對決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判斷에서 蘇聯은 可能的 限 北韓의 冒險主義的 政策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政策은 1980年代에 들어와 美·中·日關係改善과 더불어 어느정도 修正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蘇聯은 韓國問題로 美國과의 軍事對決까지 갈 準備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 事實 韓國問題는 蘇聯의 立場에서나 美國, 中國, 日本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韓國戰爭以後 維持되었던 勢力均衡을 破壞시켜야 할 程度로 重要한 問題는 아니었다. 美國이나 蘇聯에게 第1次的인 關心事는 유럽에 集中되어 있으며, 韓國問題는 어떤 意味에서는 中東問題보다도 더 下位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美國과 蘇聯은 모두 南北韓關係의 根本的인 變化로 말미암아 世界的인 次元에서 그들의 國家利益이 威脅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中共이나 日本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韓半島에서 勢力均衡의 變化보다는 現狀維持를 扞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四強은 世界的인 勢力變化에도 不拘하고 根本的으로는 韓國戰爭以後의 現狀維持政策을 堅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의 南北關係가 根本적으로 變貌될 수 있는 계기는 南北關係의 外的環境에서 온다기 보다는 南北韓의 內的인 變化에서 가늠할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統一國家로서 오랫동안 存続되어 왔던 南北韓이 強大國에 依한 對立으로 말미암아 分斷되었다는 點에서 南北關係의 變化는 強大國間의 勢力變化에 따라서 많은 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假定이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強大國의 利益이 制限적이고 南北韓에 대한 強大國의 影響력이 減少되고 있다는 事實을 勘案할때 1980年代의 南北關係는 強大國間의 關係에 依하여 받기보다는 南北韓 兩體制內的 變化가 보다 直接的인 平和要因으로 登場하게 될 것이라고 豫想된다. 더구나 韓國 戰爭以後, 強大國의 南韓과 北韓政府에 대한 影響력은 눈에 띄게 減少되기 始作하였고, 이러한 趨勢는 1980年代에 더욱 強化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韓國問題에 對한 南北韓政府의 政策이 重要な 變數로 登場하게 될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과 平和定着에 對한 南北韓의 立場은 그 어느 때보다도 重要な 變數가 될 것이다.

統一과 平和問題에 對하여는 두가지 極端的인 狀況을 設定할 수 있다. 即 民主化統一이든 共產化統一이든가에 南北韓의 어느 한쪽이 完全히 制壓하여 統一이 이루어지는 境遇이다. 이것은 대체로 武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體制內的 革命과 같은 暴力的인 方法에 依하여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暴力

의인 方法에 依한 統一에 對照되는 것으로는 分斷狀態가 持續되는 限이 있더라도 暴力的 方法에 依한 統一보다는 平和維持를 더 強調하는 立場이 있다. 즉 兩体制의 平和共存과 勢力均衡을 通하여 漸進的인 方法을 通하여 統一을 為한 基盤을 造成한다는 것이다. 現在 北韓의 立場은 前者에 가깝고, 南韓의 立場은 後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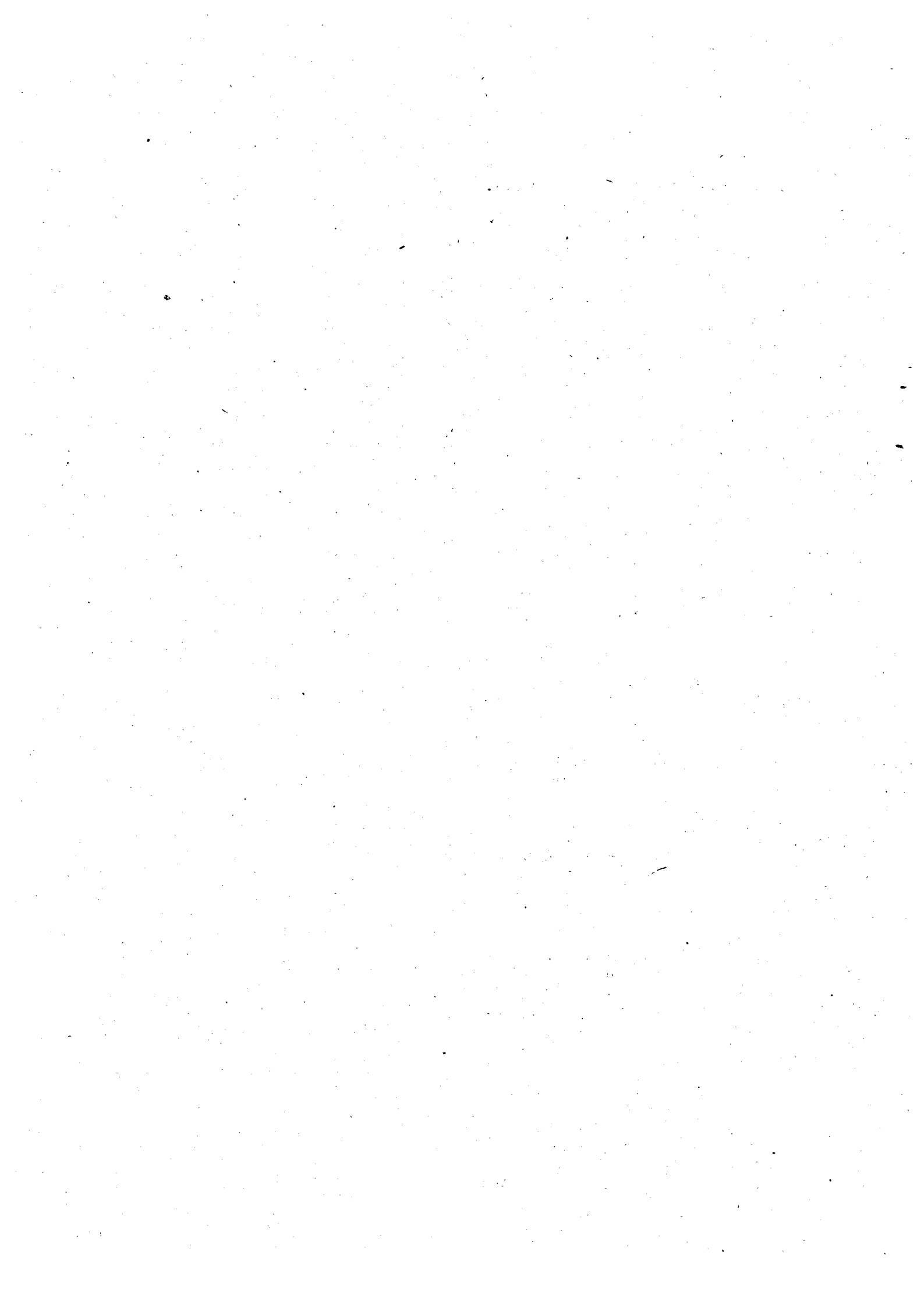
1970年代初에 美·中關係의 劇的인 轉換과 美·蘇間의 대당프로 말미암아 韓半島에 對한 美·蘇·中等 強大國의 立場이 變貌되는 듯하자 南北韓은 모두 그들의 運命이 그들 자신의 參與가 없이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한 當時의 強大國은 南北韓關係에 內在되어 있는 不安定性을 抑制하기 為하여 南北韓의 接觸을 促求하였기 때문에 北韓은 暴力的인 統一政策을 一時的으로 拋棄하고 南北韓協商에 應했던 것이다. 南韓의 立場은 이미 이승만政權以後 武力統一의 方案을 撤回하였으나, 統一 그自体보다도 南北關係의 安定性을 強調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國際的인 環境의 變化와 南北韓의 內的인 政策變化는 一時的이나 마 1972年에 南北關係에 새로운 突破口를 마련한 듯하였다. 따라서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은 이데올로기와 体制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인 大同團結을 宣言하였고, 南韓과 北韓은 武力挑發을 自制할 것에 同意하였다. 즉 南北韓은 平和共存과 協商과 妥協에 依한 漸進的인 統一을 한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共同聲明은 韓國戰爭以來로

北韓이 追求해왔던 暴力的, 革命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方案을 拋棄한 것 같았고, 따라서 南北關係의 劃期的인 轉換點이 마련된 것 같았다. 그러나 곧 北韓은 基本的인 統一政策案을 조금도 變更할 意圖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後 北韓은 繼續 南韓政府의 正統性을 認定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南韓에서의 人民革命을 武力을 使用하여 支援할 意圖가 있다는 點을 明白하게 했던 것이다. 第6次勞動黨 全党大會에서 提案한 所謂 "高麗聯邦共和國" 案도 南韓의 政府를 對象으로 하지 않고, 南韓 政治体制의 "民主化" 를 前提條件으로 내세움으로써 北韓의 統一政策은 基本的으로 暴力的, 革命的 方法을 扞하고 있다는 것이 分明해졌다. 이에 比하여 南韓政府는 平和共存과 協商을 통한 統一을 繼續 主張하고 있다. 事實 南韓은 北韓에 比하여 統一 그 目的보다는 南北關係의 安定과 平和維持를 優先적으로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南韓政府의 立場은 平和的인 統一이 不可能하거나 어려운 境遇에는 戰爭을 抑制할 수 있는 方案으로써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現狀維持를 確保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相反된 立場을 考慮할 때, 1980年代에 韓半島에서 어떤 變化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南韓에 依해서라기보다는 現狀打破를 目標로 하고 있는 北韓에 依하여 始作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1980年代에 北韓이 南北關係의 變化를 가져오려고 할 만한 要因은 充分히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는 現在 北韓을 南韓에 對하여 軍事的 優位를 維持하고 있으나, 北韓經濟

의 沈滯를 考慮할 때, 그와 같은 軍事的 優勢가 얼마동안 持續된 지 모른다. 따라서 北韓은 그들의 軍事力의 優勢가 持續되는 동안 自身들에게 有利하게 南北關係를 變化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推測할 수 있다. 둘째로 金日成体制의 構築을 爲하여 北韓은 南北間의 緊張高調를 利用할지도 모른다는 點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金正日体制은 軍部の 反발과 官僚技術階層의 自由化에 對한 要求에 直面할 可能性이 많다. 이와 같은 体制內의 不安要素는 그렇지 않아도 이데올로기적인 金正日体制을 더욱더 強硬政策路線으로 끌고 갈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즉 金正日体制은 統一問題를 政權의 正統性和 安定性的 構築을 爲하여 利用해야 할지도 모르며, 軍부와 不滿勢力을 統制하기 爲하여 南北韓의 緊張狀態를 利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1980年代의 南北關係는 不安한 要因을 안고 있다. 特히 北韓의 体制가 後繼者問題와 經濟的인 問題로 不安定하게 되면 그에 對한 突破口를 찾기위하여 過激한 南北關係의 變化를 追求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1980年代의 南北關係의 危險性은 南韓이나 北韓의 体制가 不安定하게 될때 高潮될 것이며, 더구나 南北韓에 對한 國際的인 影響力이 急速度로 減少되고 있는 狀況에서 南北韓의 指導者들의 判斷에 依하여 支配되기 때문에 더욱 危險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VI. 結論：1980年代的 韓國의 對外戰略



VI. 結論：1980 年代의 韓國의 對外戰絡

1980 年代의 國際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美·蘇 關係와 德 땅뜨의 狀態가 不分明하다는 것과 資源問題가 強大國의 政治的 軍事的 對立을 더욱 不安定하게 하는 要因으로 登場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1970 年代에 支配的이었던 德 땅뜨는 蘇聯의 急激한 軍事力 增強과 膨脹主義的인 政策으로 말리암아 더이상 持續될 수 없게 되었고, 特히 레이건 行政府가 들어서면서 美國의 蘇聯에 對한 強硬政策이 強化되면서, 마침내 交錯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美國과 蘇聯의 德 땅뜨에 對한 幻滅은 根本적으로 이 둘의 德 땅뜨에 對한 期待와 解釋이 相反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世界秩序에 對한 새로운 理解에 到達하기 前에는 美·蘇關係는 根本적으로 對立과 갈등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즉 美國은 蘇聯과의 德 땅뜨의 댓가로 第3世界에의 政治的 安定과 現狀維持를 원했던 반면에 蘇聯은 이와같은 연계關係를 否定할 뿐 아니라, 德 땅뜨를 利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와 中東地域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擴大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行動은 世界政治構造의 安定에 必須的인 超強大國間의 妥協을 어렵게 하였고, 아프리카니스탄의 侵攻과 같은 行動은 美國으로 하여금 軍備增強과 蘇聯과의 對決政策을 扨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蘇間의 對決은 過去와 같이 變방지역에 局限된 것

이 아니라 美國과 蘇聯의 影響圈의 中樞地域인 유럽이나 中東地域에도 直結되고 있으므로 더욱 危險스러운 狀況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過去에 比하여 美國과 蘇聯은 모두 同盟國과의 問題에 直面하게 됨으로써 1980年代의 國際政治는 더욱 不安定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美國과 西歐, 美國과 日本의 見解差異는 對蘇共同步調를 取하려는 美國의 努力에 支障을 줄 뿐만 아니라 蘇聯으로 하여금 選扨的인 대 땅뜨政策을 통한 西方世界의 교란을 試圖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同盟國間的 不和는 蘇聯에게도 커다란 問題가 되고있다. 폴란드事態가 보여 주듯이 東歐圈의 經濟的 危機는 蘇聯과 社會主義體制에 直接的인 威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의 美·蘇關係는 非但 美·蘇間的 對決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美國과 蘇聯의 同盟國과의 關係가 不安定하다는 측면에서도 危險性이 內在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美·蘇의 軍事的, 政治的 對決은 第3世界와 資源問題가 國際政治의 重要 잇슈로 대두되면서 더욱 危險스럽게 되었다. 대부분의 重要한 資源은 政治적으로 不安定한 第3世界에 소장되어 있으며 強大國들은 이와같은 必要不可決한 資源에로의 接近을 確保하기 爲하여 競爭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年代의 國際的 狀況은 世界第1次大戰直前과 너무나 類似하다는 것이다. 1980年代의 境遇 資源問題가 美·蘇間的 對決을 더욱 緊迫한 事態로 發展시킬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으며, 資源의 供給에 대한 妥協

과 協調가 없이는 새로운 資源戰爭의 危險性이 앞으로 더욱 增加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에는 그 어느때보다 國際政治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變數가 不確實하며, 地域的인 紛爭이 大規模의 世界的인 紛爭으로 擴大될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그 以前보다도 國際政治體制는 適應力과 融通性을 喪失하고 있으며, 強大國의 利益이 世界的인 規模로 擴大된 反面에 그들의 역할은 局限되어 있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과 蘇聯과 같은 強大國들은 自身の 同盟體制內에서 意見의 不一致와 不安定性을 지니고 있으며, 多元化的 傾向이 強化되면서 相互國家利益의 衝突까지도 發生하기 때문에 冷戰時代와 같은 同盟國內의 秩序는 回復할 수 없는 形便이다. 이와 같은 同盟體制內의 問題點은 共產圈에서 보다 深刻한 問題가 되고 있다.

東歐圈의 經濟危機가 蘇聯 및 共產國全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는 再論의 여지가 없다. 東歐는 蘇聯의 世界政策에 있어서 核心的인 地域이란 點을 勘案할 때 社會主義體制에 對한 東歐圈의 動요는 蘇聯으로서는 相當히 危險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蘇聯의 威脅이나 干涉에도 不拘하고 東歐圈은 長期的인 經濟危機에 當面할 것 같고, 그와 같은 經濟的 不安은 社會主義體制에 對한 改革運動만으로 解決될 수 없는 것 같다는 見解가 支配的인 見解로 登場하고 있다. 東歐圈의 經濟危機는 單純한 經濟政策의 失敗에 起因한 것이 아니라 體制自体에 그 原因이 있기 때문에 體制의 全面的인 變化없이 經濟的 危機要因을 完全히

除去할 수 없다는 것이다.

共産圈이 当面한 問題는 비단 東歐圈의 동요만이 아니라 中·蘇紛爭과 美·中·日關係의 劃期的인 轉換으로 招來된 東南아시아에서 새로 形成되고 있는 勢力關係로 인한 1980年代의 共産圈의 變化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969년에 武力衝突로까지 發展된 中·蘇紛爭은 이데올로기적인 次元을 넘어서 國家利益의 衝突이라는 性格을 強力하게 부각시켰다. 따라서 毛沢東의 死亡과 實用主義派의 登場으로 이데올로기적인 紛爭의 餘지가 없어졌지만 中蘇關係는 改善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惡化되는 傾向마저도 나타내고 있다. 鄧小平과 같은 實用主義者들이 執權하면서 中共은 四大現代化를 中共政權의 “最高目標”로 設定하였고, 이와같은 目標를 早速히 達成하기 爲하여 美·日·西方과의 急激한 關係改善을 推進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政策轉換은 비단 四大現代化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科學技術과 資本을 調達한다는 經濟的 實用主義的인 思考의 結果일 뿐만 아니라 中共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은 蘇聯이고 蘇聯의 霸權主義를 抵制할 수 있는 나라는 美國이라는 判斷의 結果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判斷은 鄧小平과 같은 實用主義指導者만의 判斷이 아니라, 毛沢東이나 左派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點에서 中·蘇紛爭은 中共의 國內政治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繼續되었고,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다.

1972년에 美·中關係의 突破口가 마련되었지만 美·中關係가

安保同盟關係에서 까지 發展될 수 있었던 것은 蘇聯과 베트남의 同盟關係樹立, 蘇聯에 의한 아프카니스탄 占領과 같은 事態로 말미암아 美國의 對蘇데 땅뜨政策에 變化가 不可避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中共이 反蘇, 反霸權主義 統一戰線 政策을 推進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즉 中共은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膨脹政策을 沮止하기 爲하여 美·日·中共의 安保同盟까지 拮起하였고, 既存의 革命外交 政策을 根本적으로 修正하여 東南아시아와 韓國등의 國家와 關係改善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四大現代化外交」는 中共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強大國間의 勢力均衡과 安定을 維持하려는 勢力으로 變貌시켰지만, 그것이 반드시 世界平和와 西南아시아의 安定에 도움이 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中共의 積極적인 反霸權政策은 蘇聯을 刺戟시켜 아시아에서 蘇聯의 影響力 確保를 爲한 努力을 加速化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不安定性은 1980年代에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과 보다 緊密한 關係를 摸索하게 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지나친 親西方政策과 東歐圈의 不安定性을 1980年代에 蘇聯의 世界政策의 重要な 變數로 作用한 것이 틀림없으며, 이와같은 소비에트陣營의 불투명한 將來는 蘇聯의 世界戰略의 不安定性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世界平和와 韓半島의 安定에 有利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指摘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1980年代의 韓國의 國際環境은 流動的이고, 豫測할 수 없는 軍事的, 政治的 變數에 依하여 影響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와같은 不安定性을 더욱 緊迫한 狀況으로 몰고 갈수 있는 要因으로는 第3世界の 登場과 資源供給의 不安定性을 들지 않을수 없다. 이미 指摘한 바 있듯이 資源問題は 美國과 蘇聯과 같은 強大國들의 對立을 더욱 硬直化할 것으로 豫想될 뿐만 아니라 各國의 經濟的 發展에 重大한 影響을 주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政治的인 安定과도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問題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一部 第3世界國家들은 經濟發展에 不可缺한 資源을 政治的인 武器로 使用하고 있으며, 그들의 國際政治的 役割의 擴大와 國際經濟構造의 改革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에 1980年代의 國際政治는 이와같은 第3世界の 要求를 어떻게 消化할 수 있는냐는 問題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같이 大部分의 資源을 外國에 依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資源問題は 經濟的인 問題일 뿐 아니라 政治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對外政策의 重要한 決定 要因으로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日本의 境遇는 所謂 綜合安保論을 主張하면서 資源確保와 經濟發展을 爲主로 하는 經濟外交를 展開해 왔다. 1980年代에도 美國의 壓力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이와같은 經濟外交를 追求해 나갈 것같이 보인다. 韓國의 立場은 日本과 같이 全的으로 經濟外交에 置重할 수 없는 形便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資源問題와 世界經濟의 不合理한 要因을 그대로 放置해 둘 수도 없는 立場이다. 여러가지 側面에서 韓國은 第3世界와 共同의 關心事를 가지고 있지만,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立場은 第3世界와 同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資源問題와 世界經濟의 改革問題에 어떻게 對峙하느냐의 問題는 1980年代의 韓國外交의 主要課題라고 하겠다.

美·蘇關係의 惡化와 資源問題의 登場, 共產圈의 變貌 등은 韓國과 獨逸과 같은 分斷國의 南北關係나 東西關係에 至大한 影響을 줄 것이라는 點은 再三 強調할 必要도 없다. 獨逸의 境遇는 부분적인 대 땅뜨를 持續하여 東獨과의 協商을 繼續하려는 西獨의 國家利益과 NATO의 軍事的 強化를 통하여 유럽에서 蘇聯의 軍事的 優位를 견제하려는 美國의 世界的 利益이 磨擦을 일으키고 있으며, 蘇聯은 이와같은 西獨과 美國의 相異한 立場을 利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東獨과 西獨의 交流는 繼續될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關係는 軍事的 優勢를 견지하고 北韓이 暴力的 方法에 依한 統一을 基調로 하는 對南政策을 固守하고 있고, 中·蘇紛爭으로 蘇聯과 中共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이 制約되어 있기 때문에 不安定한 狀況이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더구나 後繼者問題와 經濟的 危機같은 北韓의 國內的 要因은 南北關係에 對한 北韓의 非妥協的 態度를 強化할 뿐 아니라 美·蘇關係의 惡化로 蘇聯이 北韓의 이와같은 非妥協的인 態度를 지원할 徵兆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不安性의 要因이 增加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즉각적인 統一보다는 韓半島에서 平和와 現狀維持를 追求하고 있는 南韓의 政策目標은 비록 強大國의 利益과 어느정도 附屬되지만, 1980年代에는 대 단히 불투명한 未來가 豫測된다. 특히 美·蘇關係의 惡化로 因하여 美國의

對韓政策이 南韓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展開되었고, 美·中·日의 關係改善이 韓國의 平和에 寄與하는 側面도 있으나 이와같은 極東地域에서의 勢力構造의 變化는 蘇聯과 北韓을 모두 刺戟할 憂慮도 있으며, 또한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役割을 強調하는 美國의 政策이 南韓의 國家利益과 반드시 附合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도 銘心해야 할 것이다.

1980年代에는 이와같은 不安定의 要素가 累積되어 있으며, 韓國에 對한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流動的이고 制限的이 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더욱 더 創意的인 對外戰略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要 約

1980年代의 國際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な 問題點은 美蘇關係와 米랑트의 將來가 不透明하다는 것과 資源問題가 強大國의 政治的·軍事의 對立을 더욱 不安定하게 하는 要因으로 登場하기 始作였다는 點이다. 1970年代에 支配的이었던 米랑트가 蘇聯의 공격한 軍事力 增強과 膨脹主義的인 政策으로 말미암아 더욱 上 持統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레이진政府가 들어서면서 美國의 蘇聯에 대한 強硬政策이 強化되면서, 마침내 膠着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美國과 蘇聯의 米랑트에 대한 환멸은 根本적으로 이들 의 米랑트에 대한 期待와 解釈이 相反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世界秩序에 대한 새로운 理解에 到達하기 前에는 美蘇關係가 根本적으로 對立과 葛藤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즉 美國은 蘇聯과의 米랑트의 對立로 第三世界에서의 政治的 安定과 現狀維持를 원했던 反面에, 蘇聯은 이와같은 連繫關係를 부정할 뿐 아니라, 米랑트를 이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와 中東地域에서 蘇聯의 영향력을 確大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世界政治構造의 安定에 必須的인 強大國間的 妥協을 어떻게 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의 侵略과 같은 行動은 美國으로 하여금 軍備增強과 蘇聯과의 對決政策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蘇間的 對決은 과거와 같이 變방지역의 局限된 것이 아니라 美國과 蘇聯의 영향권의 중추지역인 유럽이나 中東地

域에도 직결되고 있으므로 더욱危險스러운 狀況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過去에 比하여 美國과 蘇聯은 모두 同盟國과의 問題에 直面하게 됨으로써 1980年代의 國際政治는 더욱 不安定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美國과 西歐, 美國과 日本의 見解差異는 對蘇共同步調를 取하려는 美國의 努力에 力量을 줄 뿐만 아니라, 蘇聯으로 하여금 選擇的인 非랑트政策을 통한 西方世界의 靑年을 試圖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同盟國間的 不和는 蘇聯에게도 커다란 問題가 되고 있다. 폴란드專態가 보여주듯이 東歐國의 經濟的 危機는 蘇聯과 社會主義體制에 直接的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의 美蘇關係는 비단 美蘇間의 對決이란 側面에서뿐만 아니라, 美國과 蘇聯의 同盟國과의 關係가 不安定하다는 측면에서도 危險性이 內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美蘇의 軍事的 政治的, 對決은 第三世界와 資源問題가 國際政治의 중요「인슈」로 대두되면서 더욱 危險스럽게 되었다. 대부분의 重要한 資源은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第三世界에 尠望되어 있으며 強大國들은 이와같은 必要不可欠한 資源에로의 接近을 確保하기 爲하여 競争하고 있다는 點에서 1980年代의 國際的 狀況은 世界第一次大戰直前과 너무나 類似하다는 것이다. 1980年代의 경우 資源問題가 美蘇間의 對決을 더욱 긴박한 事態로 發展시킬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으며, 資源의 供給에 대한 妥協과 協調가 없이는 새로운 資源戰爭의 위험성이 앞으로 더욱 增加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에는 그 어느 때보다 國際政治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變數가 不確實하며, 地域的인 紛爭이 大規模의 世界的인 紛爭으로 擴大될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國際政治體制가 종전에 비하여 適應力과 융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強大國의 利益이 世界的인 規模로 確大된 反面에 그들의 役割은 制限되어 있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과 蘇聯과 같은 強大國들은 自身들의 同盟體制에서 意見의 不一致와 不安定性을 지니고 있으며, 多元化的의 傾向이 強化되면서 相互國家利益의 충돌까지도 發生하기 때문에 冷戰時代와 같은 同盟國內의 秩序는 回復할 수 없는 形편이다. 이와같은 同盟體制內의 問題點은 共產圈에서 보다 深刻한 問題가 되고 있다. 東歐圈의 經濟危機가 蘇聯 및 共產國家全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는 再論의 餘지가 없다. 東歐는 蘇聯의 世界政策에 있어서 核心的인 地域이란 點을 감안할 때 社會主義體制에 대한 東歐圈의 動搖는 蘇聯에게는 相當히 危險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蘇聯의 危脅이나 간섭에도 불구하고 東歐圈은 長期的인 經濟危機에 當면할 것 같고, 그와같은 經濟的 不安은 社會主義體制에 對한 改革運動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見解가 支配的인 見解로 登場하고 있다. 東歐圈의 經濟危機는 單純한 經濟政策의 失敗에 起因한 것이 아니라 體制自体에 그 原因이 있기 때문에 體制의 全面的인 變化없이는 經濟的 危機要因을 完全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共産圏이 当面한 問題는 비단 東歐圏의 動搖만이 아니라 中·蘇紛爭과 美·中·日關係의 획기적인 轉換으로 초래된, 東南아시아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勢力關係로 1980年代의 共産圏의 變化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969년에 武力衝突로까지 발전된 中·蘇紛爭은 이데올로기적인 次元을 넘어서 國家利益의 衝突이란 性格을 強力하게 부각시켰다. 따라서 毛沢東의 死亡과 實用主義派의 登場으로 이데올로기적인 紛爭의 여지가 없어졌지만 中·蘇關係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惡化되는 影響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鄧小平과 같은 實用主義者들이 執權하면서 中共은 四大現代化를 中共政權의 "最高目標"로 設定하였고, 이와같은 目標을 조속히 達成하기 爲하여 美·日·西方과의 急激한 關係改善을 推進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政策轉換은 비단 四大現代化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科學技術과 資本을 조달한다는 經濟的 實用主義的인 思考의 結果일 뿐만 아니라 中共에 對한 直接的인 威脅은 蘇聯이고 蘇聯의 霸權主義를 저지할 수 있는 나라는 美國이라는 判斷은 鄧小平과 같은 實用主義 指導者만의 判斷이 아니라, 毛沢東이나 左派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中·蘇紛爭은 中共의 國內政治의 變化에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다.

1972년에 美·中關係의 突破口가 마련되었지만 美·中關係가 安保同盟關係에로까지 發展될 수 있었던 것은 蘇聯과 베트남의 同盟關係樹立, 蘇聯에 의한 아프카니스탄 점령과 같은 事態로 말

미암아 美國의 對蘇데탕트政策에 變化가 不可避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中共이 反蘇, 反霸權主義的 統一戰線政策을 推進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即 中共은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膨脹政策을 저지하기 爲하여 美·日·中共의 安保同盟까지 제기하였고, 既存의 革命外交政策을 根本적으로 修正하여 東南아시아와 韓國등의 國家와 關係改善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中共의 「四大現代化外交」는 中共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強大國間의 勢力均衡과 安定을 維持하려는 努力으로 변모시켰지만, 그것이 반드시 世界平和와 東南아시아의 安定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中共의 積極的인 反霸權政策은 蘇聯을 자극시켜 아시아에서 蘇聯의 影響力確保를 爲한 努力을 加速化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不安定性은 1980年代에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과 보다 긴밀한 關係를 摸索하게 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지나친 西方政策과 東歐圈의 不安定性은 1980年代에 蘇聯의 世界政策의 重要한 變數로 作用할 것이 틀림없으며, 이와같은 소비에트陣營의 不透明한 將來는 蘇聯의 世界戰略의 不安定性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世界平和와 韓半島의 安定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點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1980年代의 韓國의 國際環境은 流動的이고 豫測할 수 없는 軍事的 政治的 變數에 의하여 影響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와같은 不安定性을 더욱 긴박한 狀況으로 몰고갈 수 있는 要因으로는 第三世界의 登場과 資源供給의 不安定性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資源問題는 美国과 蘇聯과 같은 強大国들의 對立을 더욱 硬直化시킬 것으로 豫想될 뿐만 아니라 各國의 經濟的 發展에 深대한 影響을 주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政治的인 安定과는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一部 第三世界 國家들은 經濟發展에 不可欠한 資源을 政治的인 武器로 使用하고 있으며, 그들의 國際政治的 役割의 確大와 國際經濟構造의 改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980年代의 國際政治는 이와같은 第三世界의 要求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는 問題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같이 大部分의 資源을 外國에 依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資源問題는 經濟的인 問題일 뿐 아니라 政治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對外政策의 重要한 決定要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日本의 경우는 소위 綜合安保論을 주장하면서 資源確保와 經濟發展을 위주로 하는 經濟外交를 전개해 왔다. 1980年代에도 美国의 壓力을 받고 있지만 繼續 이와같은 經濟外交를 追求해 나아갈 것 같이 보인다. 韓國의 立場은 日本과 같이 全적으로 經濟外交에 倚重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資源問題와 世界經濟의 不合理的 要因을 그대로 放置해 둘 수도 없는 立場이다. 여러가지 側面에서 韓國은 第三世界와 共同의 關心事를 가지고 있지만, 韓國의 政治的·經濟的 立場은 第三世界와 同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資源問題와 世界經濟의 改革問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問題는 1980年代의 韓国外交의 主要課題라

고 하겠다.

美蘇關係의 變化와 資源問題의 登場, 共產圈의 변모등은 韓國과 獨逸과 같은 分斷圈의 南北關係나 東西關係에 至大한 影響을 줄 것이라는 點은 再三 強調할 必要도 없다. 獨逸의 경우는 部分的인 데탕트를 持續하여 東獨과의 協商을 繼續하려는 西獨의 國家利益과 NATO의 軍事的 強化를 通하여 유럽에서 蘇聯의 軍事的 優위를 牽制하려는 美國의 世界的 利益이 마찰을 빚고 있으며, 蘇聯은 이와같은 西獨과 美國의 相異한 立場을 利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當분간 東獨과 西獨의 交流는 繼續될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關係는 軍事的 優勢를 견지하고 있는 北韓이 暴力的 方法에 依한 統一을 基調로 하는 對南政策을 固守하고 있고, 中·蘇紛爭으로 蘇聯과 中共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이 制約되어 있기 때문에 不安定한 狀況이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더구나 후계자문제와 經濟的 危機같은 北韓의 國內的 要因은 南·北關係에 對한 北韓의 非妥協的 態度를 強化할 뿐만 아니라, 美·蘇關係의 惡化로 蘇聯이 北韓의 이와같은 非妥協的인 態度를 支援할 징조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不安定性의 要因이 增加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즉각적인 統一보다는 韓半島에서 平和와 現狀維持를 追求하고 있는 南韓의 政策目標는 비록 強大國의 利益과 어느 정도 附合되지만, 1980年代에는 대단히 不透明한 未來가 豫測된다. 특히 美·蘇關係의 惡化로 因하여 美國의 對韓政策이 南韓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展

開되었고 美·中·日의 關係改善이 韓國의 平和에 寄與하는 側面도 있으나 이와같은 極東地域에서의 勢力構造의 變化는 蘇聯과 北韓을 모두 자극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役割을 強調하는 美國의 政策이 南韓의 國家利益과 반드시 附合하지 않은 點도 銘心해야 할 것이다.

1980年代에는 이와같은 不安定의 要素가 누적되어 있으며, 韓國과 北韓에 대한 強大國의 理解關係가 流動的이고 制限的이 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더욱더 創意的인 對外戰略이 要請된다고 하겠다.